

제38차 유네스코 총회 참가 보고서

제38차 유네스코 총회 참가 보고서

펴낸이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펴낸때 2015.12.31.
펴낸곳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유네스코길 26 (우) 04536
전화 (02) 6958-4100
웹사이트 www.unesco.or.kr

ISBN 978-89-94307-68-8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간행물등록번호 IR 2015 RP 1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5

©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2015

유네스코 창립 70주년에 즈음하여 개최된 이번 총회에서는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는 갈등과 폭력, 불평등, 빈곤 등의 제 문제를 고려할 때 인류의 평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궁극적 목표로 삼고 있는 유네스코의 사명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의 이행에 있어 유네스코의 역할과 기여를 강조했다.

2011년 말 팔레스타인의 유네스코 가입과 미국의 분담금 납부 중단사태에 의해 촉발된 유네스코의 재정위기는 지난 4년간 유네스코 조직 운영은 물론 사업 전반에 걸쳐 큰 타격을 주었다. 이 같은 암울한 상황은 다가올 2016-2017년에도 크게 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유네스코는 축소된 예산과 조직으로 날로 높아지는 회원국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지극히 어려운 과제를 떠안고 있다. 한편, 미국은 제37차 총회에 이어 이번 총회에서도 분담금 미납으로 인해 투표권을 상실했으나, 집행이사국 재선에 성공하는 등 건재한 영향력을 과시했다.

한국은 이병현 주유네스코 대사를 비롯한 20여명으로 대표단을 구성하여 이번 총회에 참가했다. 이번 총회 기간 중 한국은 집행이사회, 국제인간과생물권계획 조정위원회, 정부간생명윤리위원회 위원국으로 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총회 직전 유네스코 및 주유네스코 대한민국대표부와 공동으로 '유네스코 창설 70주년 기념 유네스코 본부 고은 시인 시낭송회 및 양방언 공연 (주제: 평화에 목마르다)'을 개최했다. 유네스코 창립 70주년과 대한민국 광복 70주년이라는 뜻 깊은 해에 전 세계 유일의 분단국 출신 시인과 음악가가 평화의 국제기구 유네스코에서 시와 음악을 통해 우리 한국민의 평화에 대한 열망과 의지를 전 세계에 널리 알렸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시낭송회 및 공연' 직후 이리나 보코바 사무총장과 메틸트 뢰스러 세계유산센터 소장, 전 세계 유네스코국가위원회 사무총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

계유산 보호를 위한 기금 약정식을 진행했다. 3년간 미화 10만달러(한화 1억 1,500만원)를 규모로 조성되는 이 기금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국가위원회로서는 최초로 민간 후원을 통해 마련한 기금으로서,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 보호를 위한 파트너십 개발에 활용될 예정이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바로 이어 유네스코와 함께 '국가위원회 환영만찬'을 개최하여 전 세계 199개 국가위원회가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고, 총회 기간에 열린 제2차 유네스코국가위원회 전체회의 중에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후원개발 경험을 발표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후원모금에 대한 경험 공유는 재정위기에 처한 유네스코의 위기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끝으로,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사업과 활동이 지난 60년간 한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바를 대중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2014년에 실시한 연구의 결과물인 <Value and Impact of UNESCO Activities in Korea>를 유네스코국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개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도 이 보고서에 큰 관심을 표하며 "이러한 일에 보다 많은 국가위원회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이 책의 국문판인 <교과서 한편의 기적: 유네스코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꿨나>도 곧 발간할 예정이다.

유네스코 창립 70주년을 기념하는 해에 유네스코 총회에 참석한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더 강화된 대(對) 유네스코 외교 활동으로 이어지길 희망하며 이번엔 내는 이 보고서가 그런 과업 달성에 도움이 되길 희망해본다.

2015년 12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민동석**

목차

I. 회의개요	008	V. 기타 회의·행사 및 면담결과	104
1. 기간	008	1. 주요인사 면담결과	104
2. 장소	008	2. 제2차 유네스코국가위원회 전체회의	120
3. 참가대상	008	3. 청년포럼	129
4. 참가 주요인사	008	4. 교육 2030 고위급회의	135
5. 의제목록	009	5. 세계인문학포럼 국제운영위원회	137
6. 회의구성 및 일정	012	6. 루가노미팅 후속회의	139
II. 본회의 결과 보고	014	7. 고은시인 시낭송회 및 양방언 공연	141
1. 회의개요	014	8. 유네스코국가위원회 환영만찬	143
2. 회의결과	014	VI. 한국 대표단 명단 및 한위 주요 활동	145
III. 분과회의 결과 보고	017	1. 참가목적	145
1. 교육 분과회의	017	2. 대표단 명단	145
2. 자연과학 분과회의	027	3. 주요활동	146
3. 인문사회과학 분과회의	038	VII. 종합 관찰, 평가 및 제안	148
4. 문화 분과회의	046	1. 종합 관찰	148
5. 정보·커뮤니케이션 분과회의	058	2. 평가	148
6. 행정·재정·프로그램·대외협력 분과회의	068	3. 제안	150
IV. 주요 선거결과	092	VIII. 참고자료	152
1. 집행이사회 선거결과	092	1. 수석대표 기초연설문	152
2. 총회 산하 정부간위원회 선거결과	094	2. 관련 기사	155
3. 2015-19년 임기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 선거결과	103	3. 사진	165

I · 회의개요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1 기간

- 2015년 11월 3일(화) ~ 18일(수), 총 14일간
 - ※ 제9차 청년포럼: 2015년 10월 26일(월) ~ 28일(수)
 - ※ 제2차 유네스코국가위원회 전체회의: 2015년 11월 2일(월)

2 장소

- 유네스코 본부 (프랑스 파리)

3 참가대상

- 195개 정회원국, 10개 준회원국 대표단
- 유엔 및 유엔전문기구 대표
- 비회원국 및 국제기구 · 정부간위원회 · 비정부기구 옵서버 등

4 주요인사

- H.R.H. Haakon 왕세자 (노르웨이)
- H.H. Sheikh Hamdan Bin Rashid Al Maktoum 두바이 부통치자 (아랍에미리트)
- H.E. Mr Henry Puna 국무총리 (쿡아일랜드)
- H.E. Mr. Nursultan Nazarbayev 대통령 (카자흐스탄)
- H.E. Mr. Evo Morales Ayma 대통령 (볼리비아)
- H.E. Mr. Jorge Carlos De Almeida Fonseca 대통령 (카보베르데)
- H.E. Ms Dalia Grybauskaitė 대통령 (리투아니아)
- Mr Agila Saleh Essa Gwaidar 국가원수 대행 (리비아)

- H.E. Mr Gjorge Ivanov 대통령 (마케도니아)
- H.E. Mr Paul Biya 대통령 (카메룬)
- H.E. Mr Rosen Plevneliev 대통령 (불가리아)
- H.E. Mr François Hollande 대통령 (프랑스)
- H.E. Mr Ilham Aliyev 대통령 (아제르바이잔)
- H.E. Ms Marie-Louise Coleiro Preca 대통령 (말타)

5 의제목록

의제번호	의제 제목
1.1	제37차 총회 의장의 개회
1.2	신임장위원회 구성 및 동 위원회 보고
1.3	유네스코 헌장 제IV조 C항 8(c)문단 관련 회원국 제출 서한에 대한 사무총장 보고
1.4	의제 채택
1.5	의장단 선출
1.6	총회 업무 구성
1.7	NGO 옵저버의 총회 참가
2.1	2012-2013년도 활동에 대한 사무총장 보고
2.2	사업과 프로그램 이행에 관한 집행이사회 보고
3.1	예산 수립 방법 · 기술 및 2016-2017년도 예산안
3.2	2016-2017년도 예산안 심의 및 채택
3.3	2016-2017년도 지출결의안 채택
3.4	2018-2021년도 사업 및 예산안 준비
3.5	예산안 상한선 채택
4.1	2016-2017년도 유네스코 연계 기념일 제정 관련 회원국 제안
4.2	예루살렘 관련 제37차 총회 결의안 44 이행
4.3	아랍 점령지역 교육 및 문화기관 관련 제37차 총회 결의안 67의 이행
4.4	유네스코 카테고리 2 센터 설립
4.5	청년포럼 결과
4.6	교육분야 카테고리 1 센터운영

의제번호	의제 제목
4.7	국제 지구과학 및 지질공원 프로그램(IGGP) 규정
4.8	국제교육국(IBE) 정관 개정
4.9	국제 체육교육 및 스포츠 헌장 개정
4.10	장애인을 위한 통합적 ICT에 관한 뉴델리 선언
4.11	전시 상황 하 문화재 보호 및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유네스코의 활동 강화
4.12	국제 대학스포츠의 날 선포
4.13	“CONNECTing The Dots” 컨퍼런스 결과문서
4.14	교육 2030 의제 이행에 있어서 유네스코의 역할
4.15	2015-2025년도 인간과 생물권(MAB) 사업 전략
4.16	물 교육을 위한 유네스코-IHE 센터관련 유네스코와 네덜란드 간 운영 협정 갱신 및 정관 개정
4.17	평화의 문화를 위한 아프리카 지역 고위급 훈련 및 연구 카테고리2 센터 설립
4.18	“세계 로마니 언어의 날”선포 (11월 5일)
4.19	“세계 맹그로브 생태계 보전의 날” 선포 (7월 26일)
4.20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유네스코의 기여
4.21	“아프리카 세계유산의 날” 선포 (5월 5일)
4.22	예술가를 위한 유네스코 애쉬버그 장학금 재설계 및 국제문화진흥기금 개정
4.23	“세계 정보접근성 향상의 날”선포 (9월 28일)
4.24	아프리카지역 제1차 평화의 문화 포럼(루안다 비엔날레)
5.1	사무국의 집행이사회 대상 새로운 사업이행 보고형식(EX4)
5.2	유네스코 정무간기구 업무방식에 관한 유엔합동 조사반 권고 후속조치
5.3	특별계좌 관련 재정규정 개정
5.4	관리자문위원회(OAC) 권한 개정
5.5	유네스코의 투명성
5.6	유네스코 지역 사업 이행에 있어 지역의 정의
5.7	재정규정 12조 10항 개정
5.8	유네스코 의사결정기구의 운영, 업무진행절차 및 방식
6.1	디지털유산을 포함한 기록유산 보존 및 접근에 관한 권고문 초안
6.2	박물관 및 소장품 보호와 증진에 대한 비구속적 규범제정 제안
6.3	고등교육학위인증에 대한 국제협약 준비 관련 예비보고
6.4	기후변화 관련 윤리적 원칙 선언 준비의 타당성 검토

의제번호	의제 제목
7.1	1974년 과학 연구자의 지위에 관한 권고안 개정을 위한 준비 경과 보고
7.2	2003년 다언어사용 증진 및 사이버스페이스 접근에 관한 권고 이행에 대한 3차 보고
7.3	1970년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이행 보고
7.4	1980년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권고 이행 보고
7.5	1976년 성인교육 발전에 관한 권고 개정 제안
7.6	기술 및 직업 교육에 관한 개정 권고의 재수정 제안
7.7	2011년 역사도시경관 권고에 대한 회원국 이행 보고
7.8	1993년 고등교육의 수학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권고 이행에 관한 종합보고
8.1	유네스코 활동에 대한 NGO의 기여 보고
8.2	몬트세랫의 유네스코 준회원국 가입 요청
8.3	코소보의 유네스코 회원국 가입 요청
8.4	말리 평화와 화해 협정 이행을 위한 유네스코의 지원
9.1	2013년도 유네스코 재정 보고, 재무제표 및 외부감사 보고
9.2	2014년도 유네스코 재정 보고, 재무제표 및 외부감사 보고
9.3	회원국 분담금 비율 및 회원국 분담금 통화
9.4	회원국 분담금 납입 현황
9.5	운영기금(WCF) 현황 및 관리
10.1	인사 규정 및 규칙
10.2	직원 보수, 수당 및 혜택
10.3	2016-2017년도 유네스코 직원연금 위원회 회원국 대표 임명 및 유엔 공동 직원 연금기금
10.4	의료혜택기금(MBF)의 상황에 대한 사무총장보고
11.1	유네스코 본부건물 관리에 대한 사무총장 보고
11.2	본부위원회의 임무
12.1	집행이사회 이사국 선출
12.2	제39차 총회 법률위원회 위원국 선출
12.3	본부위원회 위원국 선출
12.4	교육 차별 방지 협약국 간 발생할 수 있는 논쟁 해결 위원회 및 조정회 위원 선출

의제번호	의제 제목
12.5	유네스코 국제교육국(IBE) 위원국 선출
12.6	모두를 위한 정보사업(IFAP) 정부간사업 위원국 선출
12.7	국제 인간과생물권계회(MAB) 조정위원회 위원국 선출
12.8	국제수문학 사업(IHP) 정부간위원회 위원국 선출
12.9	불법소유문화재 반환 촉진위원회(ICPRCP) 위원국 선출
12.10	국제 커뮤니케이션 개발사업위원회(IPDC) 위원국 선출
12.11	사회변동관리사업(MOST) 정부간위원회 위원국 선출
12.12	정부간 생명윤리위원회(IGBC) 위원국 선출
12.13	체육교육 및 스포츠에 관한 정부간위원회(CIGEPS) 위원국 선출
12.14	유네스코통계기관(UIS) 이사회 이사국 선출
12.15	국립 이집트 문명 박물관(카이로) 및 누비아 박물관(아스완) 설립 국제 캠페인 집행이사회 이사국 선출
13.1	제39차 총회 개최지
추가의제	유네스코 통계연구소 활동에 관한 이사회 보고

6 회의구성 및 일정

■ 본회의 (Plenary Meeting)

- 개회 : 11월 3일
- 폐회 : 11월 18일
- 유네스코 사무총장 일반정책토론 소개 : 11월 3일
- 일반정책토론 : 11월 4일~7일
- 유네스코 사무총장 일반정책토론 답변 : 11월 9일
- 논의의제 (의제번호) : 1.1, 1.2, 1.4, 1.5, 1.6, 1.7, 2.1, 2.2, 3.3, 8.2, 8.3, 12.1, 13.1

■ 교육 분과회의 (ED Commission)

- 일시: 11월 5일~7일
- 논의의제 (의제번호) : 3.2, 3.4, 4.3, 4.4, 4.5, 4.6, 4.8, 4.14, 4.18, 6.3, 7.5, 7.6, 7.8

■ 자연과학 분과회의 (SC Commission)

- 일시 : 11월 9일~10일
- 논의의제 (의제번호) : 3.2, 3.4, 4.4, 4.5, 4.7, 4.15, 4.16, 4.19, 4.20

■ 인문사회과학 분과회의 (SHS Commission)

- 일시 : 11월 10일~12일
- 논의의제 (의제번호) : 3.2, 3.4, 4.5, 4.9, 4.12, 6.4, 7.1, 8.4

■ 문화 분과회의 (CLT Commission)

- 일시 : 11월 12일~13일
- 논의의제 (의제번호) : 3.2, 3.4, 4.2, 4.3, 4.4, 4.5, 4.11, 4.21, 4.22, 6.2, 7.3, 7.4, 7.7

■ 정보·커뮤니케이션 분과회의 (CI Commission)

- 일시 : 11월 10일~11일
- 논의의제 (의제번호) : 3.2, 3.4, 4.4, 4.5, 4.10, 4.13, 4.23, 6.1, 7.2

■ 행정·재정·프로그램·대외협력 분과회의 (APX Commission)

- 일시 : 11월 4일~9일
- 논의의제 (의제번호) : 1.3, 3.1, 3.2, 3.4, 3.5, 4.1, 4.17, 4.24, 5.1, 5.2, 5.3, 5.4, 5.6, 5.7, 5.8, 8.1, 9.1, 9.2, 9.3, 9.4, 9.5, 10.1, 10.2, 10.3, 10.4, 11.1, 11.2, 추가의제

■ 합동회의 (Joint Commission)

- 일시 : 11월 4일, 18일
- 논의의제 (의제번호) : 3.3, 3.4, 3.5

■ 리더스 포럼 (Leader's Forum)

- 일시 : 11월 16일~17일
- 참가대상 : 국가원수, 장관급 정부대표 등
- 주제 : 유네스코의 창립 70주년 기념
(celebration of UNESCO's 70th anniversary)

II · 본회의 결과 보고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1 회의개요

■ 일시

- 개회식 : 11월 3일
- 정책토의 : 11월 4일 ~ 7일
- 사무총장 답변 : 11월 9일
- 폐회식 : 11월 18일

■ 요지

- 정회원국, 준회원국, 기타 유엔 전문기구 및 NGO 대표들의 연설로 이루어진 정책토의가 진행됨.
- 다수의 회원국들은 유네스코 창립 70주년 및 유엔의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채택에 즈음하여 향후 교육, 과학, 문화,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유네스코의 역할을 강조함. 또한 회원국들은 ▲글로벌 시민교육의 중요성, ▲기후변화 대응 및 COP21의 개최, ▲분쟁지역 문화유산의 보호, ▲난민 이슈,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인들의 안전, ▲코스보 회원국 가입 이슈 등을 주로 언급함.

2 회의결과

■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정책토의 개최

- 이리나 보코바 (Irina Bokova)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유네스코 창립 70주년과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채택을 상기시키며 평화를 위한 협력 증진을 촉구함. (유네스코 헌장에 깃든 희망의 정신을 언급하면서, 우리나라 고은 시인의 시 '유네스코에게'를 일부 인용함).
- 최근에 발생한 문화재·다양성·인간존엄성 파괴 등 전례 없는 문화 말살(cultural

cleansing) 행위를 규탄하며, 폭력적 극단주의에 대한 유네스코의 대응(문화재 복원, 문화재 불법 반출 금지, 교육 증진, 캠페인 전개 등)을 소개하고, 극단주의에 대항할 포용력, 세계시민의식, 관용, 다양성 등에 기초한 새로운 휴머니즘(new humanism)을 강조함.

-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의 17개 목표가 유네스코의 이념 및 활동과 관련이 있음을 강조하며, 특히 4·5·6·11·13·14·15번 목표 달성을 위한 유네스코의 역할 및 계획을 언급함.
- 유네스코의 개혁, 투명성 증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사무국의 노력을 강조하며, 유네스코에 대한 회원국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함. (여성 교육 분야의 기업 협력 관련 한국의 CJ가 언급됨.)

■ 한국 수석대표 연설 주요내용

- 이병현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대사는 인천선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한민국의 교육분야 ODA 확대 및 유네스코 협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밝힘.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세계유산협약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기록유산 보호 관련 유네스코의 역할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세계유산·기록유산 보호 역량강화 지원을 지속·강화하겠다고 밝힘.

■ 각국 대표 정책토의 주요내용

- **일본** : 세계유산 및 기록유산 보호 관련 유네스코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거버넌스 투명성을 촉구함.
- **중국** : 세계유산 보호 관련 유네스코의 역할을 강조하며,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추진 관련 적극적 협력의사를 표명함.
- **미국** : 지난 집행이사회에서 채택한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함. 더불어 코스보의 유네스코 가입 관련 111개 회원국이 코스보를 정식국가로 인정하고 있음을 언급함.
- **러시아** : 시리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코스보 등에서 자행되는 문명 파괴에 우려를 표하며 유네스코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함. 더불어 코스보의 유네스코 가입 이슈의 정치화에 반대 의사를 표명함.
- **북한** : 과학 기술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함.
- 레소토와 말리위는 '아프리카 브릿지 프로젝트'를, 신트마르틴은 '국가위원회 웹사이트'

Ⅲ. 분과회의 결과 보고

트개발 지원사업' 등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지원 사업에 대해 각각 언급함.

■ 유네스코 사무총장 답변

- 보코바 사무총장은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각국의 리더십, 주인의식 및 역량 발휘를 촉구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함.
- 세계교육포럼의 성공적 개최와 '교육 2030 실행계획'의 채택을 중요한 성과로 언급하고, 글로벌 시민교육, ICT 교육, 여아·여성 교육, 직업기술교육 등의 중요성을 강조함.
- 폭력적 극단주의 관련 사태와 유네스코의 대응을 재차 언급함. 또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인들의 안전을 강조하고, 기후변화, 해양, 수문학, 생물권 보존 등에 대한 회원국의 관심과 지지에 사의를 표함.

■ 의장단 선출

- **총회 의장** : Mr. Stanley Mutumba Simataa (나미비아 정보통신기술부 차관)
- **교육위원회 의장** : Ms Kris Rampersad (트리니다드토바고)
- **자연과학위원회 의장** : Dr Noorul Ainur binti Mohd. Nur (말레이시아)
- **인문사회과학위원회 의장** : Ms Hadidja Alim Youssouf (카메룬)
- **문화위원회 의장** : Mr Arūnas Gelūnas (리투아니아)
- **정보·커뮤니케이션 의장** : Mr Abdulla El Reyes (아랍에미리트)
- **행·재정 및 대외협력위원회 의장** : Mr Matthew Sudders (영국)
- **신임장위원회 의장** : Mrs Mariam Yalwaji Katagum (나이지리아)
- **지명위원회 의장** : Dr Michael Worbs (독일)
- **법률위원회 의장** : Prof. Pierre Michel Eisemann (프랑스)
- **본부위원회 의장** : H.E. Mr M. S. Islam (방글라데시)

■ 준회원국 가입

- 회원국들은 몬트세랫(Montserrat: 카리브해 지역)의 준회원국 가입을 승인함.

1 교육 분과회의

회의기간 · 11월 5일 ~ 7일 10:00~18:00

장소 ·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

■ 요지

- 교육분과위원회 의장은 2015년이 국제사회에서 교육과 유네스코를 위해 중요한 해가 됨을 강조하고, 유네스코 70주년을 맞아 평화의 방벽을 세우기 위한 교육의 기본적인 역할에 대해서 주목함.
- 교육분과위원회는 ▲교육분야 2016-2017 예산안 심의 및 채택 ▲교육 2030 의제 이행 관련 유네스코의 역할 ▲1976년 성인교육개발 권고 개정 제안 ▲직업기술교육(TVET) 권고 개정 제안 등 배정된 13개 의제를 심의하고 관련 결의안을 채택함.
- 회원국들은 다수의 교육 분야 의제에 교육 2030 실행계획이 적절히 반영된 점을 환영하고, 향후 이행과정에서 유네스코의 지속적인 리더십과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주문함. 회원국들은 국가 전략에 맞는 교육 2030 의제 이행의 중요성, 양질의 교육 실현, 소외계층 없는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세계시민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성인교육 및 직업기술교육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함.

■ 논의의제 및 주요일정

11월 5일, 목

- **의제 3.4** 2018-2021년도 사업 및 예산안 준비
- **의제 4.5** 청년포럼 결과
- **의제 4.14** 교육 2030 의제 이행에 있어서 유네스코의 역할
- **의제 6.3** 고등교육학위인증에 대한 국제협약 준비 관련 예비 보고

- 의제 7.8 1993년 고등교육의 수학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권고 이행에 관한 종합보고

11월 6일 . 금

- 의제 6.3 및 의제 7.8 (계속)
- 의제 4.3 아랍 점령지역 교육 및 문화기관 관련 제37차 총회 결의안 67의 이행
- 의제 3.2 2016-2017 예산안 심의 및 채택
- 의제 7.5 1976년 성인교육 발전에 관한 권고 개정 제안
- 의제 7.6 기술 및 직업 교육에 관한 개정 권고의 재수정 제안

11월 7일 . 토

- 의제 7.5 및 의제 7.6 (계속)
- 의제 4.4 유네스코 카테고리 2 센터 설립
- 의제 4.6 교육분야 카테고리 1 센터운영
- 의제 4.8 국제교육국(IBE) 정관 개정
- 의제 4.18 “세계 로마니 언어의 날” 선포 (11월 5일)

■ 의장단 선출

- 의장 : Ms Kris Rampersad (트리니다드토바고)
- 부의장 :
 - Mr Aleksi Kalenius (핀란드)
 - Ms Dagmar Kopcanova (슬로바키아)
 - Mr Balgh Ur Rehman (파키스탄)
 - Ms Rachel Annick Ogoula Akiko Ep. Obiang Meyo (가봉)
- 보고관 : Mr Sadih Al Mokhaizm (쿠웨이트)

■ 상세내용

의제번호	Item 3.4 (38C/7)
의제 제목	2018-2021년도 사업 및 예산안 준비 Preparation of the Draft Programme and Budget for 2018-2021 (39 C/5)
의제번호	Item 4.14 (38C/54, 38C/INF.16)
의제 제목	교육 2030 의제 이행에 있어서 유네스코의 역할 UNESCO's Role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Education 2030 Agenda

- Tang 교육사무차장보(ADG/ED)의 의제 소개
 - EFA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교육 2030 의제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보편적이고 총체적인 접근을 요청하는 과제임을 강조함.
 - 2018-2021(39 C/5) 준비와 관련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이행을 위한 사업부문 간 연계와 전문가들의 학제간 협력 강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소개함.
- 다수의 회원국은 교육 2030 의제 설정 과정에서 발휘된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리더십에 사의를 표하고, 유네스코가 교육 2030 의제 이행 과정에서 선도 기관으로서의 조정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아울러 향후 이행 과정에서 유네스코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리더십을 요청하고 고등교육과 직업기술교육 분야에 있어서의 유네스코의 규범 설정(standard-setting) 역할이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함.
- 회원국들은 국가전략이 글로벌 교육전략과 목표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 청년의 참여 독려, 다양한 네트워크 (카테고리1·2기관, 국가위원회, ASPnet, UNITWIN,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특별 대사)와의 파트너십 협력을 통해 목표 달성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함.
- 한국은 발언을 통해 유네스코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적 연계 노력을 지지하며, 한국이 GEFI 고위급회의에서 언급한 'Better Life for Girls' 이니셔티브, ICT를 통한 교육지원 사업 내용 등을 공유함. 또한 브릿지 아프리카 프로젝트와 아시아 프로젝트 등을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세계시민교육은 학제 간 접근, 부문 간 연계 프로그램 등 총체적인 접근을 통한 이행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강조함. (사무국 답변: 치안탕 사무차장보가 한국의 발언을 인용하며 학제적 접근, 부문 간 연계, 총체적 접근을 강조함.)

- 38 C/54(의제 4.14) Paragraph 15 일부 수정 후 결의안 채택

의제번호	Item 4.5 (38C/19)
의제 제목	청년포럼 결과
	Conclusions of the Youth Forum

- 사무국은 청년포럼 결과 문서(39 C/19)를 원안대로 접수함.
- 발언에 참여한 회원국 대표들은 청년포럼은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이행과 관련하여 논의가 지속되어야 하며, 청년들의 참여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함.

의제번호	Item 6.3 (38C/26)
의제 제목	고등교육학위인증에 대한 국제협약 준비 관련 예비보고
	Preliminary Report concerning the preparation of a global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of higher education qualifications
의제번호	Item 7.8 (38C/72)
의제 제목	1993년 고등교육의 수학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권고 이행에 관한 종합보고
	Consolidated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1993 Recommendation on the Recognition of Studies and Qualifications in Higher Education

- 다수의 회원국들은 새로운 국제협약의 제정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고 그 준비과정을 지지함. 다만 동 협약의 제정과 적용에 있어 다양한 국별, 지역별 교육시스템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함.
-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고, 지역협약에 기반을 두는 국제협약 ▲투명성과 질적 보장 ▲제한된 인적자원의 한계로 학생 참여가 관건 ▲지역협약-글로벌 협약 간 연계성,

유연한 접근, 상호 시너지를 통한 효과확대 필요 ▲지역 간 협약의 글로벌 협력 접근 시 공통의 가치와 원칙이 필요 ▲질적 보장과 메커니즘의 중요성 ▲지역과 글로벌 차원에서의 학문분야 및 전문가 네트워크 동원의 필요성 등을 강조함.

의제번호	Item 4.3 (38C/17)
의제 제목	아랍 점령지역 교육 및 문화기관 관련 제37차 총회 결의안 67의 이행
	Implementation of 37 C/Resolution 67 concerning educational and cultural institutions in the occupied Arab territories

- 논의 없이 결의안 채택됨.

의제번호	Item 3.2 (38C/5+Add., 38C/6+Add., 38/C8)
의제 제목	2016-2017 예산안 심의 및 채택
	Consideration and adoption of the Draft Budget for 2016-2017

- 회원국들은 대체로 예산안이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을 위해 적절히 준비되었다고 평가하고, 교육이 과학, 문화 부문과의 연계를 통해 양질의 교육 목표 달성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함.
- 주요회원국 발언 : 덴마크는 사무국에 차기 사업예산 문서에 있어 시너지를 올리기 위한 차별성은 무엇인지 문의하고, 러시아는 효과적인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실행을 위해 세계시민교육을 강조함. 중국은 새로운 교육 2030 의제 이행에 있어서의 유네스코의 리더십을 재차 강조하고, 직업기술교육 및 평생학습, 여아교육을 지지함. 그리스는 평화의 문화 및 폭력 예방에 주목하고 교육에의 총체적(holistic) 접근의 필요성, ASPnet 및 유네스코석좌의 활용, 세계시민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함. 영국은 스웨덴 및 노르웨이와 함께 UIS 및 GEMR 지원 등을 통해 모니터링 강화에 힘을 기울일 것을 제안함. 독일은 지속가능발전교육(ESD) 글로벌실행프로그램(GAP)을 환영하고, 직업기술교육센터(UNEVOC)의 활용 및 카테고리 1 기관의 예산 지원을 재차 강조함. 우간다는 아프리카 지역에 커리큘럼 제공과 재정지원을 요청함.
- 사무국은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와 교육 2030 의제 등 새롭게 채택된 목표들의 이

행과 이 과정에서 조정자로서의 유네스코의 역할 수행이 교육부문에 부과된 가장 큰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유네스코의 주도적 역할을 위해 회원국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함. 아울러 유네스코의 조정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유엔기구 및 시민사회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는 뜻을 밝힘. 한편, 사무국은 덴마크의 질의와 관련하여 교육분야 사업 이행과정에 있어서 통계적 수치 및 지표개발, 모니터링과 평가 메커니즘을 통한 보고이행 등을 유네스코의 차별화된 전략이라고 답함.

- MP I 38C/5 Volume 1의 01000 paragraph (전략목표 3번 관련) 수정후 채택 (아래 참조)

Major Programme I – Education

The General Conference

1. Authorizes the Director-General to continue implementing during the period 2016–2017 the plan of action for Major Programme I as approved in 37 C/Resolution 3 (paragraph 01000 of document 37 C/5 Approved), with the following adjustments:

(b revised) to lead the coordination of the post-2015 education agenda in collaboration with co-convening agencies and key stakeholders support countries in the 38 C/91 – page 8 implementation of the new agenda and monitor progress towards the internationally agreed up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SDG) on education;

Strategic objective 3 (revised): Leading and coordinating the Education 2030 agenda

(iii revised) During 2016–2017, UNESCO will continue to advocate for education by coordinating, facilitating and providing policy advice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post-2015 education

agenda. UNESCO will further strengthen networks and partnerships, among Member States, at the global, regional and national levels, and with the co-convening agencies and civil society, including the private sector; support Member States in identifying national priorities in education and translating the global education agenda into national action; facilitate and promote evidence-based policy formulation; and establish global for a for the international education community to debate on future trends on education; particular attention will be paid to advancing girls' and women's education, including by strengthening its actions and mobilizing extrabudgetary resources from diverse financing channels, in close cooperation with its networks including Goodwill Ambassadors/Special Envoys.

2. Requests the Director-General:

Main Line of Action 3 (revised): Leading and coordinating the Education 2030 agenda through partnerships, monitoring and research

(11 revised) Coordination and monitoring mechanisms established and evidence from research generated in support of sustained political commitment for Education 2030

(12 deleted)

(13 deleted)

(c revised) to report, in her statutory reports on the execution of the programme adopted by the General Conference, on measures taken to optimize the use of resources in the implementation of programme activities.

의제번호	Item 7.5 (38C/31)
의제 제목	1976년 성인교육 발전에 관한 권고 개정 제안 Proposal for the Revision of the 1976 Recommendation on the Development of Adult Education
의제번호	Item 7.6 (38C/32)
의제 제목	기술 및 직업 교육에 관한 개정 권고의 재수정 제안 Proposal for the Revision of the 2001 Revised Recommendation concerning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 두 가지 권고 모두 교육 2030과 관련이 깊은 주요 국제 규범으로서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두 권고의 개정 제안을 지지함. 특히, 여러 회원국들은 기술 및 직업교육과 성인교육이 교육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이행되어야 하며 학습방법에 있어 ICT와 온라인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함. 이를 위해서는 국별 단위에서도 다양한 부처 간 협력,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의 협력이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함.
- 사무국은 직업기술교육이 형식, 비형식 등 모든 분야에서의 접근이 중요하고 평생학습도 전반적인 삶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특히, 직업기술교육은 교육뿐만 아니라 정부, 지방 차원에서의 협력과 평가 정책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차기 집행이사회에 새로운 직업기술교육전략안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소개함.
- 의제 7.5 38 C/31 및 관련 Annex II와 의제 7.6 38 C/32 및 관련 Annex II 내용 중 일부 수정 후 채택함.

의제번호	Item 4.6 (38C/20)
의제 제목	교육분야 카테고리 1 센터운영 Management of the education-related category 1 institutes
의제번호	Item 4.8 (38C/20)
의제 제목	국제교육국(IBE) 정관 개정 Management of the education-related category 1 institutes Amendments to the Statutes for the International Bureau of Education (IBE)

- 사무국은 유네스코의 교육 관련 사업부와 카테고리 1센터 간의 시너지 강화를 통해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이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힘. 한편, 이들 기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기관 스스로의 자율적·자치적 운영이 중요하며, 호스트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함.
- 교육관련 7개 기관 대표의 2014-2015 운영 보고 후 IBE 정관 개정 및 절차규칙을 소개함. 일부 자구 수정 후 결의안을 채택함.

의제번호	Item 4.4 (38C/18 Parts II to XXII)
의제 제목	유네스코 카테고리 2 센터 설립 Establishment of Category 2 institutes and centres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 별도 수정 없이 결의안을 채택함.

의제번호	Item 4.18 (38C/65)
의제 제목	"세계 로마니 언어의 날" 선포 (11월 5일) Proclamation of 5 November As "World Day of Romani Language"

- 별도 수정 없이 결의안 채택함.

■ 관찰과 평가

- 교육 2030 실행계획(FFA)은 각 회원국이 향후 15년간 글로벌 교육 의제를 이행하는 데 있어 지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새로운 교육 목표와 세부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이끌어가는 핵심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 대다수의 회원국, 교육관련 국제기구, NGO 등이 2015년 세계교육포럼을 개최한 한국 정부에 사의를 표명하고, 동 회의 결과물인 인천선언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등 동 포럼 개최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 고등교육학위(자격) 인정에 관한 국제규범 설정은 예비 보고 단계로 협약 체결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렀으나, 향후 고등교육에 대한 국제적 수요 증가를 고려할 때 주요 국제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직업기술교육 권고안 개정과 더불어 향후 새로운 글로벌 직업기술교육 전략이 유네스코 차원에서 수립될 예정임. 한편, 한국의 직업기술교육 수준에 대한 회원국들의 평가가 매우 긍정적이고 한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은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직업기술교육 분야에서 개도국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2015년은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및 교육 2030 의제가 채택된 해로서, 특히 교육 분야에서의 유네스코는 권한과 리더십이 강조되고, 동시에 그 이행과정에서 회원국들의 국가 차원에서의 책임이 강조됨. 유네스코의 차별화된 전략이자 발언국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고 논의한 과제로는 ▲교육 2030 의제 달성에 있어서의 양성평등과 여성 및 여아에 대한 우선적 지원 ▲국가 차원에서의 다양한 파트너들과의 협력 ▲학제간 접근 및 분야 간 프로그램 강화 ▲코디네이션, 모니터링, 파트너십, 재정확보 등에 있어서의 유네스코의 조정 역할과 다양한 네트워크 및 기구들과의 협력 강화 등을 꼽을 수 있음.

2 자연과학 분과회의

회의 기간 • 11월 9일 ~ 10일

장소 •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본부

■ 요지

- 자연과학분과위원회는 ZNG+ 예산안에 따른 2016-2017년도 자연과학 분야 예산 \$67,350,200 (IOC예산 \$13,860,900 포함)을 채택하고, 2018-2021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검토함.
- 동 위원회는 수자원, 물리학, 공학교육 등 14개국이 제안한 자연과학 분야 17개 카테고리 2 센터 설립 제안을 승인하고, 사무총장이 해당 정부와 협정을 체결하도록 재가하였으며, 카테고리 1 센터인 물 교육을 위한 유네스코-IHE센터 협정 갱신에 대한 안건을 집행이사회에 위임함.
- 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의제 실현을 위한 인간과 생물권(MAB) 프로그램과 생물권보전지역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2015-2025년도 MAB 전략을 승인함.
- 위원회는 국제지구과학지질공원프로그램(IGGP)의 규정 및 지질공원 운영지침을 승인하고, 동 프로그램 안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을 설치하기로 함.
- 사무국은 위원회 기간 중 세계과학보고서 발간행사(11.10 세계과학의 날) 및 유네스코 물 사업 50주년을 기념하는 부대행사를 개최함.

■ 논의의제

11월 9일 . 오전

- 개회(의장단 선출, 일정 채택, 사무총장 대리 발언)
- 5개 정부간/국제 과학 프로그램(MAB, IGCP, IHP, MOST, IBSP)와 국제해양위원회 (IOC)의 공동 성명 발표
- 의제 4.5 청년포럼 결과
- 의제 3.4 2018-2021년도 사업 및 예산안 준비

11월 9일 . 오후

- **의제 3.2** 2016-2017 사업계획 및 예산안(38C/5) Major Programme II-Natural Sciences의 검토와 채택
- **의제 4.4** 유네스코 카테고리 2 센터 설립
- **의제 4.16** 물 교육을 위한 유네스코-IHE 센터관련 유네스코와 네덜란드 간 운영 협정 갱신 및 정관 개정

11월 10일 . 오전

- **의제 4.20**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유네스코의 기여
- **의제 4.19** “세계 맹그로브 생태계 보전의 날” 선포 (7월 26일)

11월 10일 . 오후

- **의제 4.15** 2015-2025년도 인간과 생물권(MAB) 사업 전략
- **의제 4.7** 국제 지구과학 및 지질공원 프로그램(IGGP) 규정

■ 의장단 선출

- **의장** : Dr. Noorul Ainur binti Mohd. Nur (말레이시아)
- **부의장** :
 - Prof. Nizamettin Kazanci (터키)
 - Ms. Ligia do Cardona (도미니카공화국)
 - Mme Gakou Salimata Fofana (남아프리카공화국)
 - Prof. Abdullah Ahmed Abdulsalam (수단)
- **보고관** : Prof Dr. Stane Pejovnik (슬로베니아)

■ 상세내용

• 개회식

- Nur 의장의 개회로 자연과학분과위원회를 시작하였으며, 유네스코 과학 분야 정 부간 프로그램을 대표하여 인간과생물권계획(MAB) 프로그램 국제조정이사회의 장이 공동성명을 발표하였고,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이행을 위한 과학의 중요성과 교육 및 정책 자문 강화 필요성 등을 강조함.
- 이어서 세계공학기술단체연합회(WFEO)와 국제과학위원회(ICSU)는 각 단체를 대 표하여 발언하였으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공학의 중요성, 유엔 사무총장 과학자 문위원회와 유네스코의 협력을 강조함.

의제번호	Item 3.2 (38C/5+Add., 38C/6+Add., 38C/8)
의제 제목	2016-2017 자연과학분야 예산안(38 C/5) 검토 및 채택 Consideration and adoption of the Draft Budget for 2016-2017, Major Programme II – Natural Sciences (38C/5)

- 위원회는 집행이사회가 권고한 ZNG+ 예산안 및 지출계획에 각각 667백만 불, 518 백만 불이 배정되었고 과학 분야 예산으로 \$67,350,200 (IOC \$13,860,900)이 배정 되었음을 보고 받은 후, 과학 분야 주요활동(MLA) 6개에 대한 사무국의 일부 수정제 안(MLA 3에서 해양 관련 재해에 쓰나미 추가, MLA 4에서 생물다양성 삭제 등)을 확 인하고 2016-2017 예산안을 이견 없이 채택함.
- 회원국들은 집행이사회에서 결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이 분배되었음을 환영하였 으며, 우리나라는 특히 IOC에 대한 예산배정을 환영하면서 차기 예산안을 지지하고, 제도적 역량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함. 북한은 유네스코가 과학기술과 공학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해야 하며, 회원국의 역량강화에 노력해줄 것을 요청함.

의제번호	Item 3.4 (38C/7)
의제 제목	2018-2021년도 사업 및 예산안 준비 Preparation of the Draft Programme and Budget for 2018-2021 (39C/5)

- 사무국은 2018-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을 위한 지역별 협의과정 등 향후 일정을 소개한 후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으로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와의 연계 강화, 과학기술혁신 정책개발, 역량강화, 물·생물다양성·지질다양성·기후변화·재해위험경감 등의 우선순위사업 및 IOC 사업 등을 소개함. 이에 위원회는 사무국이 준비한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지지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함.
- 다수의 회원국들은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준비과정에 유네스코의 기여에 대한 사의를 표하고, 이의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유엔 기구 및 회원국과 협력, 과학프로그램의 역할 등을 강조하고, 유네스코 내에서 학제 간·부문 간 협력 강화를 요청함.

의제번호	Item 4.4 (38C/18 Parts II to XXII)
의제 제목	유네스코 카테고리 2 센터 설립 Establishment of the Category 2 institutes and centers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 위원회는 17개 과학 분야 센터 설립 제안을 승인하고, 사무총장이 해당 정부와 협정을 체결하도록 재가함.
- 이번엔 설립이 승인된 과학 분야 센터는 에티오피아의 생태수문학, 르완다의 기초연구, 콩고민주공화국의 열대림통합관리, 이집트의 환경 질 모니터링, 쿠웨이트의 물 연구, 파키스탄의 수문학과 화학·생물학, 이란의 물 통합관리, 태국의 천문학, 베트남의 물리학과 수학, 중국의 공학교육과 이론물리학, 브라질의 기초연구, 멕시코의 물리·수학·에너지·환경, 그리스의 수자원관리, 카메룬의 마이크로과학 등으로 독일은 센터 설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가 제대로 이뤄져야 함을 강조하고, 센터 수의 급격한 증가와 이에 대한 관리 등에 대해 집행이사회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함.
- 17개 센터 제안 내용
 - Proposal for The Establishment in Addis Ababa, Ethiopia, of an African

- Regional Centre for Ecohydrology
- Proposal for The Establishment in Kigali, Rwanda, of an East Africa Centre for Fundamental Research
- Proposal for The Establishment in Kinshasa,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of a Regional Post-Graduate Training School on Integrated Management of Tropical Forests and Lands
- Proposal for The Establishment in El-Qanater, Egypt, of a Central Laboratory for Environmental Quality Monitoring (CLEQM)
- Proposal for The Establishment in Kuwait City, Kuwait, of a Water Research Centre
- Proposal for The Establishment in Abbottabad, Pakistan, of a Regional Water Research Centre on Hydrology of Headwater Catchments
- Proposal for The Establishment in Karachi, Pakistan, of an International Centre for Chemical and Biological Sciences
- Proposal for The Establishment in Tehran, Islamic Republic of Iran, of an International Centre for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Watershed and Bio-resources in Arid and Semi-rid Regions
- Proposal for The Establishment in Chiang Mai, Thailand, of an International Training Centre in Astronomy
- Proposal for The Establishment Hanoi, Vietnam, of an International Centre for Physics
- Proposal for The Establishment in Hanoi, Viet Nam, of an International Centre of Research and Post graduate Training in Mathematics
- Proposal for The Establishment in Beijing, China, of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Engineering Education
- Proposal for The Establishment in Beijing, China, of an International Centre for Theoretical Physics Asia-Pacific
- Proposal for The Establishment in Sao Paulo Brazil, of the South American Institute for Fundamental Research (SAIFR)
- Proposal for The Establishment in Tuxtla Gutierrez, Mexico, of a Regional Centre for Advanced Training and Research in Physics Mathematics,

Energy and Environment

- Proposal for The Establishment in Thessalonikim Greece, of a Centre on Integrated and Multi-Disciplinary Water Resources Management
- Proposal for The Establishment in Yaoundé, Cameroon, of a Centre of Excellence in Microscience (CEM)

의제번호	Item 4.5 (38C/19)
의제 제목	청년포럼 결과
	Conclusions of the Youth Forum: Young Global Citizens for a Sustainable Planet (as regards Natural Science)

- 청년포럼 참가자 대표인 Ms. Samantha Montesarchio (이탈리아)가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젊은 세계시민'이라는 주제로 159개국 500여명이 참석하여 10.26-28에 열린 청년포럼 결과를 발표함.
- 청년포럼 참가자들은 기후변화 및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와 관련된 주제별 토론을 하였으며,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청년의 기여와 역할을 논의함.
- 청년포럼에 한국대표로 신재윤(연세대 경영학과), 최단아(건국대 일어교육과) 등 2명이 참가함.

의제번호	Item 4.7 (38C/14)
의제 제목	국제 지구과학 및 지질공원 프로그램(IGGP) 규정
	Statutes of the International Geosciences and Geoparks Programme (IGGP)

- 위원회는 유네스코 국제지구과학·지질공원프로그램(IGGP) 정관 및 유네스코 지질공원 운영지침을 승인하고, 동 프로그램 안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을 두며, 현재의 세계지질공원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포함할 것을 승인함.
- 영국, 스페인, 중국, 덴마크, 그리스, 체코 등 다수 회원국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사업을 환영하였으며, 우리나라는 동 프로그램이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함을 지적하였고, 스위스 등은 다른 프로그램과 시너지 증진 및 유네스코 브랜드 관리에 대해 요청하였으며, 포르투갈, 독일 등은 정규예산에 부담을 주지 않고 비정규예산으로 운영되어야 함을 재확인함.

의제번호	Item 4.15 (38C/55)
의제 제목	2015-2025년도 인간과 생물권(MAB) 사업 전략 Man and the biosphere (MAB) Programme Strategy for the period 2015-2025

- 위원회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에 기여하는 MAB 프로그램의 역할을 재확인하면서 MAB 전략을 승인하고, 사무총장에게 제200차 집행이사회에 MAB 전략과 행동계획 실행에 대한 경과 보고를 요청함. 한편, 독일, 프랑스, 페루 등의 제안으로 회원국에게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와 이의 실행에 있어 생물권 보전지역의 적극적인 활용을 요청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함.
- 40여 개국이 발언을 신청해 MAB 프로그램과 MAB 전략에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독일, 프랑스, 중국, 스페인, 포르투갈, 이집트, 아르헨티나 등 다수의 회원국이 생물권보전지역이 2030 지속가능개발 의제이행을 위한 좋은 수단임을 강조하였고, 접경 생물권보전지역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역할 등을 언급함.

의제번호	Item 4.16 (38C/56)
의제 제목	물 교육을 위한 유네스코-IHE 센터관련 유네스코와 네덜란드 간 운영 협정 갱신 및 정관 개정 Renewal and revision of the Operational Agreement between UNESCO and the Government of the Netherlands on the UNESCO-IHE Institute for Water Education and revision of the Statutes of the Institute

- 위원회는 유네스코 카테고리 1 센터인 동 센터의 협정이 2016년 12월에 종료됨을 인지하고, 네덜란드 정부의 재정지원에 사의를 표함. 한편 회원국들은 사무총장에게 유네스코-IHE센터 운영에 관한 유네스코와 네덜란드 정부간 협정서 초안을 준비하여 제200차 집행이사회에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집행이사회에는 사무총장의 네덜란드 정부와의 협정(2017-2022) 체결을 재가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함.

의제번호	Item 4.19 (38C/66)
의제 제목	“세계 맹그로브 생태계 보전의 날” 선포 (7월 26일) Proclamation of 26 July as the “International Day for the Conservation of the mangrove system”

- 위원회는 7월 26일을 세계 맹그로브 생태계 보전의 날로 지정할 것을 사무총장에게 요청하고, 또한 동 일자를 기념하는 활동을 촉진할 것을 요청함.

의제번호	Item 4.20 (38C/67)
의제 제목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유네스코의 기여 Contribution by UNESCO in combating climate change

- 위원회는 2015년 12월 파리에서 열리는 제21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1) 관련 유네스코의 기여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기후변화 교육과 인식증진을 위한 활동을 환영함. 위원회는 COP21의 성과를 반영한 유네스코 기후변화 전략을 제200차 집행이사회에 제출하도록 사무총장에게 요청하고, 녹색기후기금의 공인된 실행기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함.
- 통가,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등 섬나라들은 기후변화 관련 섬나라 상황을 호소하면서 전통지식을 활용한 교육을 강조하였으며, 우리나라와 오스트리아, 독일, 코트디부아르 등은 생물권보전지역을 비롯한 IOC, 지질공원,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용을 강조함.
- 결정문 채택 시 캐나다는 COP21의 협정서가 국가별 상황이 ‘다름’을 고려하는 문구를 추가했으나 다수의 회원국이 반대하여 원안대로 채택됨.

■ 부대행사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유네스코 물 사업 50년 부대행사(11.9)
 - 위원회는 유네스코 물 사업 50주년을 맞아 사무국이 초청한 6개국 대표(미국, 이집트, 일본, 케냐, 네덜란드, 세르비아)에게 그 동안 IHP가 국내 및 해당 지역에 기여한 바, 앞으로 기여할 바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으며, 각국 대표들은 우수사례 공유, 교육 강화, 기후변화 경감 활동, 지역협력 강화 등의 의견을 발표함.
- 유네스코 과학보고서 '2030을 향하여' 발간 행사(11.10)
 - 사무국은 유네스코 지정 '평화와 발전을 위한 세계 과학의 날'(11.10)에 유네스코 과학보고서 발간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으며, Irina Bokova 사무총장 및 F. Schlegel 자연과학부 사무차장보(ADG/SC)를 비롯하여 보고서의 주요 저자 등이 참석.
 - 동 보고서에는 우리나라의 GDP 대비 연구개발비(GERD) 비율이 2005년 0.6%에서 2013년 0.95%로 독일, 미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 캐나다 등 관련국들 보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소개하는 등 관련 내용이 언급됨.

■ 관찰과 평가

- 회원국들은 과학분과위원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과학 사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특히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등 국제사회의 주요 과제와 유네스코 사업 간의 긴밀한 연계를 강조하였으며, IHP, MAB, IOC 및 지질공원 등 유네스코 과학프로그램의 역할에 기대를 표명함.
- 회원국들이 과학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는 있으나, 예산부족 등으로 과학 분야 사업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이 관심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면 대 유네스코 영향력 제고의 기회를 삼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번 총회에서도 다수의 카테고리 2 센터 설립 제안서들을 검토하였으며, 17개를 승인한 바, 앞으로 급증하는 카테고리 II 센터의 관리 및 모니터링이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됨.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의 카테고리 2 센터의 활동 및 유네스코 브랜드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지난 총회부터 논의된 지질공원 제도가 유네스코 공식 프로그램으로 승인됨으로써

제주도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정됨.

- MAB 전략 채택과 관련하여 다수 회원국의 적극적인 지지를 재확인할 수 있었음. 우리나라는 동북아생물권보전지역(EABRN) 설립을 주도한 국가로서 신탁기금 제공, 전문성 기여 등 MAB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바, 앞으로도 생물권보전지역의 모범적 운영 뿐 아니라 개도국 역량 강화 지원 등 기여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다수의 회원국들은 사무국이 준비한 차기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으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이 충분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 유네스코 사업계획에서도 평가 또는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다양한 기대결과와 지표들이 제시되었듯이 국제사회에서 국제기구 활동에 대한 성과측정노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활동의 과정과 성과를 측정가능한 형태로 축적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아울러, 기후변화를 비롯한 다양한 범지구적 과제 해결과 관련하여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한 정책결정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향후 자연과학 분야의 역할과 기능이 점점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3 인문사회과학 분과회의

회의 기간 · 11월 10일 ~ 12일

장소 ·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본부

■ 요지

- 인문사회과학분과위원회는 2018-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39C/5) 준비, 2016-201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검토 및 채택, 국제 체육교육 및 스포츠 현장 개정, 국제 대학 스포츠의 날 선포, 기후변화 관련 윤리적 원리 선언을 위한 준비의 타당성, 2015년 5월 15일과 6월 20일 말리에서의 평화와 화해 협정 실행을 위한 유네스코의 지원 등 관련 의제 논의 후 이를 채택함.
- 다수의 회원국들은 사무국이 준비한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전략, 프로그램 및 예산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이행을 위한 유네스코 인문사회과학 프로그램의 활용을 강조하며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 사무국이 유네스코 고유의 기능을 인식하고 활동해줄 것을 요청함.
- 한국은 유네스코 청년포럼에서 세계시민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한 점을 평가하고, 내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4회 세계인문학포럼에 회원국들의 관심과 참여를 촉구하였으며, 인문사회과학 분야가 자연과학 분야 등 다양한 분야들과 협력하는 분야 간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함.

■ 논의의제

11월 10일 . 오후

- 개회 (의장단 선출, 일정 채택, 인문사회과학 사무처장보의 사무총장 대리 발언)
- 의제 4.5 청년포럼 결과
- 의제 3.4 2018-2021년도 사업 및 예산안 준비

11월 11일 . 오전

- 의제 3.2 2016-2017 사업계획 및 예산안(38C/5) 검토 및 채택
- 38C/DR.2, 38C/DR.11 이란과 중국이 제출한 두 개의 결의안 초안

11월 11일 . 오후

- 의제 4.9 국제 체육교육 및 스포츠 현장 개정
- 의제 4.12 국제 대학스포츠의 날 선포
- 의제 7.1 1974년 과학 연구자의 지위에 관한 권고안 개정을 위한 준비 경과 보고

11월 12일 . 오전

- 의제 6.4 기후변화 관련 윤리적 원리 선언 준비의 타당성 검토
- 의제 8.4 말리 평화와 화해 협정 이행을 위한 유네스코의 지원

■ 의장단 선출

- 의장 : Ms Hadidja Alim Youssef (카메룬)
- 부의장 :
 - Mr Akif Kireççi (터키)
 - Ms Pamela Mamani (볼리비아)
 - Mr Yacine Bellarab (모로코)
 - Mr Darko Strajn (슬로베니아)
- 보고관 : Ms Assel Utegenova (카자흐스탄)

■ 상세내용

의제번호	Item 3.4 (38C/7)
의제 제목	2018-2021년도 사업 및 예산안 준비 Preparation of the Draft Programme and Budget for 2018-2021 (39 C/5)
의제번호	Item 4.5 (38C/19)
의제 제목	청년포럼 결과 Conclusions of the Youth Forum: Young Global Citizens for a Sustainable Planet (as regards Natural Science)

- Al-Nashif 인문사회과학부문 사무차장보(ADG/SHS)는 개회사에서 시리아 난민 등 떠오르는 사회적 이슈들에 대한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데 MOST(사회변동관리)프로그램과 같은 인문사회과학분야 사업이 긍정적인 역할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교육 및 자연과학분야등과의 분야간 접근(inter-sectoriality)을 통해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를 실현해나가는 데 있어 시너지를 기대한다고 발언함.
- 또한 다수의 회원국들은 10.28-30 열린 유네스코 청년포럼의 결과에 대해 긍정적 평가함.
- 차기 사업 및 예산안(39C/5) 의제에 대해 다수의 회원국들은 유네스코 인문사회과학분야의 MOST 프로그램, 국제스포츠반도핑, 생명윤리 분야 등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긍정적인 활동을 평가하고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 세계 도처에서 발생하는 위기에 대처하고 난민, 이민자, 기후변화 등 떠오르는 사회적 이슈들을 학제적· 분야 간 접근 및 문화 간 대화와 상호이해를 통해 사회통합(social inclusion)을 이끌어내어야 한다고 강조함.
- 한국은 유네스코 청년포럼에서 세계시민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한 점을 평가하고, 내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4회 세계인문학 포럼에 회원국들의 관심과 참여를 촉구하고 인문사회과학분야에 자연과학분야 등 분야 간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함.

의제번호	Item 3.2 (38C/5+Add., 38C/6+Add., 38C/8)
의제 제목	2016-2017 사업계획 및 예산안 검토 및 채택 Consideration and adoption of the Draft Budget for 2016-2017, Major Programme II - Natural Sciences (38 C/5)

- 의제 3.2 2016-201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사무차장보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회원국들은 더 이상의 수정 없이 집행이사회가 권고한 38C/5 승인을 총회에 권고하기로 결정함.
- 필리핀, 스웨덴 등 다수의 국가들은 사무국이 모니터링과 평가체계의 강화를 위해 기대결과와 지표 문서에 포함시킨 점을 높이 평가함.
- 부르키나파소, 감비아, 모잠비크 등 다수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청소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청소년 정책, 청소년의 체육교육과 스포츠 활동 활성화, 사회참여 확대 필요성 등을 강조했고 말레이시아, 인도 등은 MOST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한 성찰과 혁신적인 정책을 바탕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향한 사회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 덴마크는 보편적인 인권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생명윤리가 국제 규범 의제임을 강조하면서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의 이행을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활동 필요성을 강조함. 한편 캐나다는 명공학윤리, 반도핑, 청소년 스포츠 분야 등을 강조하며 유네스코 체어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제안함.
-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유네스코가 추진하는 국제 문화 간 화해 10년(International Decade for the Rapprochement of Cultures, 2013-2022)에 대한 기대를 표함.

의제번호	Item 4.9 (38C/47)
의제 제목	국제 체육교육 및 스포츠 헌장 개정 Revision of the International Charter of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 위원회는 의제 4.9에 대한 결의안 초안을 검토하고 총회가 일부 수정사항과 함께 동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권고함. 특히 사무차장보는 동 의제와 관련하여 모로코와 콜롬비아의 적극적인 협력에 사의를 표함.
- 이집트, 브라질, 카메룬, 아르헨티나, 일본 등 다수의 회원국들은 개정된 헌장이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이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특히 청소년 및 교육 분야에서 유용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힘.
- 사무국은 개정된 헌장 내용을 제6차 국제 체육교육 및 스포츠 장관 및 고위급 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f Ministers and Senior Officials Responsible for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MINEP) 의제에도 반영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윤리와 스포츠의 연계 중요성을 강조하고 회원국들의 재정 지원을 촉구함.
- 모로코는 개정된 헌장 내용의 이행에 있어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조하는 문구를 결의안에 반영시켰고, 미국은 체육교육이 육체적 차원뿐 아니라 심리적·정신적 차원에서 도움을 준다는 점을 강조함.

의제번호	Item 4.12 (38C/50)
의제 제목	국제 대학스포츠의 날 선포 Proclamation of an International Day of University Sport

- 사무국의 의제 설명 후 위원회는 수정 없이 총회에 채택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함.
- 회원국들은 학생들이 체육교육과 스포츠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과 시민의 건강한 삶, 성 평등, 차별 반대, 사회통합, 시민 책무성 증진에 기여하길 희망하면서 동 건을 지지함.
- 특히, 중국은 고등교육에서 뿐 아니라 시민이나 취약계층의 아동, 여성, 장애인들에게도 스포츠를 누릴 수 있는 포용사회(inclusive society) 지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의제번호	Item 7.1 (38C/27)
의제 제목	1974년 과학 연구자의 지위에 관한 권고안 개정을 위한 준비 경과 보고 Progress report on action undertaken to revise the 1974 Recommendation on the Status of Scientific Researchers

- 사무국은 1974년 권고의 용어나 표현이 과학기술의 발달, 환경문제 등의 변화로 인해 개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COMEST나 IBC 등과의 연계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소개함.
- 다수의 회원국들은 동 권고가 갖는 국제적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동 권고 개정을 지지함. 특히, 기술, ICT, 사회과학 등이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과학적 연구의 자유가 매우 중요한 직업조건이 될 것이며, 실질적으로 중요한 점은 개정된 권고의 확산(dissemination)과 실행(implementation)의 문제라고 지적함.
- 우간다, 독일, 캐나다, 엘살바도르, 네덜란드 등은 충분한 비정규 예산(extrabudgetary funding)이 마련되었을 경우, 특별위원회(special committee)를 운영한다는 내용을 결의안에 반영시킴.

의제번호	Item 6.4 (38C/33)
의제 제목	기후변화 관련 윤리적 원칙 선언 준비의 타당성 검토 Desirability of preparing a declaration of ethical principles in relation to climate change

- 사무국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언급하면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윤리적 원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아울러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와 파리에서 열릴 COP21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힘. 또한, 세계과학기술윤리위원회(COMEST), 생명윤리위원회(IBC) 및 인간과생물권 사업(MAB) 등 다양한 유네스코의 프로그램 등과의 관련성은 물론 기후변화의 복합적 성격을 고려해야한다고 언급함.
- 그리스, 캐나다,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은 기후변화 문제가 환경문제 뿐 아니라 경제 문제(가난한 취약계층의 문제, 탄소배출감소 문제 등)를 포함한 사회문제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지구문제에 대한 윤리적 원칙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특히 교황청은 기후변화에 대한 노력은 공동선의 문제이며, 지구상에 있는 어려운 세계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윤리적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함.

- 덴마크와 독일 등 일부 회원국은 제시된 원리가 너무 광범위하고 비구속적(non-binding)이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지만 두 나라를 포함한 다수의 회원국은 동 선언이 기본적인 윤리적 원칙의 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지지를 표명함.
- 사무국은 그 동안 유엔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많은 논의와 성과가 있었음을 소개하고 새로운 윤리적 원칙 수립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f Climate Change, UNFCCC)과 협의를 통해 추진할 것이며, 지식기반의 윤리적 원리로서 국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힘.
- 한편 동 선언 준비가 갖는 재정적 함의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정도로 답변함(지역 회의, 전문가 회의, 결과물 공유, 유엔체제 일정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함). 한편 동 권고를 추후 법적 구속력을 갖는 규범으로 발전시키는 문제는 당장 논의하기 어려움이 있으며 먼 미래에 다시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함.
- 그라나다가 (방글라데시, 바베이도스, 벨리스, 가나, 그레나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제출한 결의안 초안 DR(38 C/COM SHS/DR.1)이 채택되어 최종 결의안에 반영됨.
 - 추가로 제출 지지한 국가: 알제리, 스웨덴, 마다가스카르, 세네갈, 베냉, 팔레스타인, 슬로베니아, 필리핀, 우간다, 말리, 짐바브웨, 부르키나파소, 탄자니아

〈DR(38 C/COM SHS/DR.1) 수정안〉

4.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COMEST conclusions that these principles could also be an inspirational basis for a ~~potential possible~~ process to elaborate a Declaration of ethical principles in relation to global climate change.
5. Invites the Director-General to prepare, in close cooperation with COMESTm, and in consultation with the Member States, a preliminary text of a ~~new non-binding standard-setting instrument~~ declaration on ethical principles in relation to climate change, to complement existing ~~standard-setting instruments~~ reference, in the form of a declaration,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outcome of negotiation processes under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COP 21 and COP 22 and to submit the text to it at its 39th session, ~~to be funded from extrabudgetary sources, if necessary;~~

~~6. Invites the Director-General to present to the 199th session of the Executive Board options regarding the process.~~

의제번호	Item 8.4 (38C/11)
의제 제목	말리 평화와 화해 협정 이행을 위한 유네스코의 지원 UNESCO's Suppor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on Peace and Reconciliation in Mali of 15 May and 20 June 2015

- 아르헨티나, 스웨덴, 알제리, 프랑스,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케냐, 세네갈 등 다수의 회원국은 동 사업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면서, 유네스코의 지속적인 지원 촉구와 함께 지지를 표명함.
- 말리는 유네스코와 회원국들에게 사의를 표명하고, 문화유산 복구 및 젊은이들이 폭력에 노출되거나 관여되지 않도록 하는데 유네스코의 지원이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발언함.

■ 관찰과 평가

-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와 관련하여 기후변화윤리선언 등과 같은 유네스코의 인문사회과학 분야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표명하였으며, 유엔체제와 적극적으로 협력을 촉구하는 등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중심의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향후 논의도 이러한 틀 안에서 심화 확대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자연과학 분야와 마찬가지로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도 학제간 또는 융합적 성격의 사업기획과 운영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었으며, 지구문제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동향은 지속 심화될 것으로 판단됨.

4 문화 분과회의

회의 기간 · 11월 12일 ~ 13일

장소 ·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본부

■ 요지

- 위원회는 11월 12-13일 간 유네스코본부(II)에서 문화 분과를 개최하여, ▲2018-21년 문화 사업계획 예산 준비 ▲2016-2017 예산안 심의 및 채택 ▲카테고리 2센터 설립 ▲아프리카 세계유산의 국제기념일' 선포 ▲역사도시조경에 관한 권고문 ▲디지털유산을 포함한 기록유산 보존 및 접근에 관한 권고문 초안 ▲예술가 지위에 관한 권고 등 관련 의제를 논의 후 이를 채택함.

■ 논의의제

11월 12일

- 의제 3.4 2018-2021년도 사업 및 예산안 준비
- 의제 4.5 청년포럼 결과
- 의제 3.2 2016-2017 예산안 심의 및 채택
- 의제 4.21 "아프리카 세계유산의 날" 선포 (5월 5일)
- 의제 4.4 유네스코 카테고리 2 센터 설립

11월 13일

- 의제 7.7 2011년 역사도시경관 권고에 대한 회원국 이행 보고
- 의제 7.4 1980년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권고 이행 보고
- 의제 4.2 예루살렘 관련 제37차 총회 결의안 44 이행
- 의제 4.3 아랍 점령지역 교육 및 문화기관 관련 제37차 총회 결의안 67의 이행
- 의제 4.11 전시 상황 하 문화재 보호 및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유네스코의 활동 강화
- 의제 7.3 1970년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이행 보고

- 의제 4.22 예술가를 위한 유네스코 애쉬버그 장학금 재설계 및 국제문화진흥기금 개정
- 의제 6.2 박물관 및 소장품 보호와 증진에 대한 비구속적 규범제정 제안

■ 의장단 선출

- 의장 : H.E. Mr Arūinas Gelūsnas (리투아니아)
- 부의장 :
 - Mr Roberts Ramírez Aldara (온두라스)
 - Dr Christina Cameron (캐나다)
 - H.E. MsRuchira Kamboj (인도)
 - H.E. Khalil Karam (레바논)
- 보고관: Mr Ali Ould Sidi (말리)

■ 상세내용

의제번호	Item 4.5 (38C/19)
의제 제목	청년포럼 결과
	Conclusions of the Youth Forum
의제번호	Item 3.4 (38C/7)
의제 제목	2018-2021년도 사업 및 예산안 준비
	Preparation of the Draft Programme and Budget for 2018-2021 (39 C/5)

- 위원회는 청년포럼 대표(이탈리아, 필리핀)로부터 청년포럼의 결과를 청취함.
 - 2015년 10월 26-28일간 159개국 500여명이 참가하여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청년글로벌시민” 주제로 토론
- Arūinas 의장은 위원회 의제안 및 잠정일정을 제시한바 위원회는 원안대로 채택함.
- Bandarin 문화사무차장보(ADG/CLT)는 2018-2021년간 사업계획 및 예산 초안의 구성과 그 간의 변화에 대해 소개함.
 - 37차 총회에서 채택된 현 2014-2021 중기전략 하에 2018-2021년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준비될 예정이며, 제197차 집행이사회 결정문 7에 따라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유네스코의 역할에 강조점을 두고 동 문서를 마련하였다고 설명함.
 - 2030년까지의 새로운 국제개발의제 설정, 유산을 둘러싼 비상상황 발생, 6개 협약의 운영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부연함.
- 스웨덴, 캐나다, 핀란드, 라트비아 등 대다수의 회원국들은 사무국이 준비한 문화 부문의 2018-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준비 문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이행에 초점을 맞춰 줄 것을 사무국에 주문함.
- 덴마크는 유네스코의 규범제정자로서의 기능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문화 분야의 6개 협약을 중심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문화 분야는 분야 간 협력(intersectoral approach)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프랑스는 사무국이 제시한 로드맵에 만족감을 표시하면서 2005년 협약을 중심으로 한 문화다양성 증진을 강조함.
- 태국, 러시아는 유산사업을 더욱 강화해야 하며, 랍사나 지질공원 프로그램과 같은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함.

- 사무국은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에 문화 분야가 기여, 다제간 접근, 6개 협약을 중심의 사업 집중화에 대한 회원국들의 의견에 사의를 표함.
 - 1954년 헤이그협약, 1970년 불법문화재반환협약의 경우는 아직도 많은 회원국이 가입하지 않고 있는바 가입유도가 필요하다고 설명.

의제번호	Item 3.2 (38C/5+Add.)
의제 제목	2016-2017 예산안 심의 및 채택
	Considering and adoption of the Draft Budget for 2016-2017 Part II.A Major Programme IV - Culture

- 위원회는 사무국(ADG/CLT)으로부터 의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38C/5 및 결의안 수정안을 채택함.
- 문화부문 사무차장보는 2016-2017년도 예산은 결과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이행지표(Performance indicator)도 실효성을 고려하여 개수를 약간 감축했다고 하면서 사업계획 및 예산 초안의 구성과 그 간의 변화에 대해 소개함.
 - 총 \$57,147,000 (MLA1 \$35,634,900 / MLA2: \$21,512,100)
- 덴마크, 도미니카, 태국, 몽골 등 대다수의 회원국들은 사무국이 준비한 문화부문의 2016-1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함.
- 덴마크는 사무국의 우선순위 선정에 동의하며, 현재 유네스코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문화부문은 협약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사업의 질적 컨트롤과 예산의 적절한 배분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도미니카, 아르헨티나 등 남미국가들은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서 문화의 역할을 강조하며, 사회통합에 문화유산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United 4 Heritage 캠페인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함.
- 사무국은 재정위기로 협약과 관련 없는 사업은 폐지하거나 비정규 예산으로 전환했으며, 캐나다의 지표적용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복잡한 지표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줄였다고 답변함.

〈 결의안 채택 〉

1. 유산 친화적인 사이버 적용 및 모바일게임과 유산교육 프로그램(이란/6만불)

-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 선진국 그룹은 결의안 수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부속 Explanatory note(해설노트)의 일부 내용이 적절치 않다면서 이란 측에 삭제하자고 요청하여 이를 빼고 채택함.
 - AS such~ 1.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위해한 게임의 판매와 배포를 금지하도록 회원국들에게 요구하고 2. 게임의 위해성에 대한 특별 테스크포스팀을 만들고 종합보고서를 총회에 보고하라는 내용을 포함함.
 - 법률자문가는 해설노트는 구속력이 없으며 본문만 채택하는 것이라고 설명함.
 - 이란은 현 상황을 구두보고에 반영하기로 하고 삭제에 동의함.

2. 실�크로드 연구사업 (중국/1백만불)

- 위원회는 예산운영이나 관리가 명확하여 따로 수정할 필요가 없다는 사무국의 설명을 청취하고 원안대로 채택함.

의제번호	Item 4.4 (38C/18 Part XXI)
의제 제목	유네스코 카테고리 2 센터 설립 Establishment of category 2 institutes and centres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International Center for Creativ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중국)

- 별도 수정 없이 결의안을 채택함.
 - 중국은 창의성과 관련된 유네스코 첫 번째 센터임을 강조하면서 창의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여하겠다고 발언함.

의제번호	Item 4.21 (38C/68)
의제 제목	“아프리카 세계유산의 날” 선포 (5월 5일) Proclamation of 5 May as African World Heritage Day

- 별도 수정 없이 결의안을 채택함.

의제번호	Item 7.7 (38C/71)
의제 제목	2011년 역사도시경관 권고에 대한 회원국 이행 보고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by Member States of the 2011 Recommendation on the Historic Urban Landscape, including a glossary of definitions
의제번호	Item 7.4 (38C/30)
의제 제목	1980년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권고 이행 보고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1980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Status of the Artist(38C/30)

- 위원회는 사무국(ADG/CLT)로부터 의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논의한 후 결의안을 채택함.
- 사무국은 법률위원회가 이미 두 가지 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마쳤다고 설명하면서, 결의안 채택 필요가 없다고 부연함.
 - 급속한 경제발전 속에 유산보존을 위한 환경이 많이 바뀌어서 통합적인 환경의 시각에서 다시 살펴보기 위해 동 권고문이 채택되었다고 설명함.
 - 예술가지위에 관한 권고문은 35년 전에 작성되었고 이행상황에 대해 실문을 조사하여 60여 개국으로부터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하면서 동 권고문이 2005년 협약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함.
- 캐나다는 60개국이 보고서를 제출했다면 그 가운데 모범사례를 선발해 배포하여 구체적인 이행 모델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안함. 이에 사무국은 이미 몇 가지 실사례를 가지고 있으며 다음 회기에 관련된 실문지를 배포할 예정임을 밝히면서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함.
- 한편, 쿠바, 브라질, 아르헨티나는 예술가 지위에 관해 온라인 공동 DB 구축을 공동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고, 2016년 10월 에콰도르에서 UN 도시경관회의 개최 예정이며 도시 보전(urban conservation)이 주제가 될 것이라고 소개함.
- 잠비아, 베냉, 콩고, 말리, 탄자니아 등 회원국들은 사무국의 활동에 사의를 표하면서 권고문의 이행을 위해 더욱 노력해줄 것을 촉구함.

의제번호	Item 4.2 (38C/16)
의제 제목	예루살렘 관련 제37차 총회 결의안 44 이행
	Jerusalem and the implementation of 37C/Resolution 44

- 별도 수정 없이 결의안을 채택함.

의제번호	Item 4.3 (38C/17)
의제 제목	이탈 점령지역 교육 및 문화기관 관련 제37차 총회 결의안 67의 이행
	Implementation of 37C/Resolution67 concerning educational and cultural institutions in the occupied Arab territories

- 별도 수정 없이 결의안을 채택함.

의제번호	Item 7.3 (38C/29)
의제 제목	1970년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이행 보고
	Reports on the measures taken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1970 Convention on the Means of Prohibiting and Preventing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 위원회는 사무국(ADG/CLT)로부터 의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논의한 후 이탈리아가 제출한 결의안 초안을 수정하여 결의안을 채택함.
- 독일, 스웨덴, 그리스 등 대다수의 국가들은 전시상황에서 문화유산보호 및 문화다양성 보호를 위한 유네스코의 역할이 강화되는 데 적극적인 지지를 보냄.
- 일본은 갈등 지역에서의 문화유산 보호 및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일본 정부가 이라크의 유물 보호 및 박물관사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소개함.
- 에스토니아,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등은 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해서는 전략적 제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United 4 Heritage 캠페인을 지지한다고 하면서 인터폴, 적십자사, UNHCR 등과 같은 기관과의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함.
- 북한은 어떤 경우에도 문화재는 보호되어야 하며 특히 전시에도 중요하다고 하면서 유네스코헌장에 나온 것처럼 인간의 마음에 평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언함.
- 한국은 문화재의 조직적 파괴와 이로 인한 불법반출 문제가 높아지는 가운데 1970년 협약의 이행은 더욱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한국 역시 최근 보고서를 제출하였다고 밝히면서 다른 당사국들의 동참을 기대한다고 발언함.
- 사무국은 아래 보고서들의 경우 특별한 결의사항이 없으므로 주목하고 넘어갈 것을 제안한 바, 위원회가 이 제안을 수용함.
 -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on its activities (2014–2015)
 - Report on the activities of the 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Promoting the Return of Cultural Property of its Countries of Origin or its Restitution in case of illicit appropriation
 -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n its activities (June 2012–June 2104)
 - Report on the activities of the International Fund for the Promotion of Culture (IPDC)

의제번호	Item 4.22 (38C/69)
의제 제목	예술가를 위한 유네스코 애쉬버그 장학금 재설계 및 국제문화진흥기금 개정
	Re-design of the UNESCO-Aschberg Bursaries for Artists and amendment of the International Fund for the Promotion of Culture (IFPC)

- 위원회는 사무국(ADG/CLT)로부터 의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논의한 후 캐나다와 스페인의 제안으로 체코가 추가 제안한 문단을 삭제하고 채택함.
 - 체코는 구두보고에 포함할 것을 요구

〈결의안 채택〉

2. (체코) Request the DG to submit to the 200th Session of the Executive Board a report on a new Special Account that used with a view to on the protection and the promotion of cultural diversity and the creative cities network, by fostering inter alia greater North-South and South-South cooperation.

의제번호	Item 6.2 (38C/25)
의제 제목	박물관 및 소장품 보호와 증진에 대한 비구속적 규범제정 제안 Proposal for a non-binding standard-setting instrument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various aspects of the role of museums and collections

- 위원회는 사무국(ADG/CLT)으로부터 의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논의한 후 일부 수정된 결의안을 채택함.
- 사무국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박물관의 역할도 관광, 교육 등 많은 변화가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동 권고안이 제안되었음을 소개하고 준비에 협조해준 ICOM에 사의를 표함.
- 대다수의 회원국들은 동 권고안이 박물관의 역할이 점차 더 중요해 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앞으로 관광뿐만 아니라 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도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동 권고안을 적극 환영함.
- 스웨덴은 새로운 권고안을 지지하면서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의 채택으로 인해 박물관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학교와의 협력을 통한 그 교육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함.
- 오스트리아, 터키 등은 동 권고안을 환영하면서 박물관의 포괄적인 역할을 잘 반영하였으며 ICOM과의 모범적인 협력 사례라고 강조함.
- 캐나다는 올해 5월 27-28일 개최된 Category II 회의에서 동 권고안을 검토했음을 보고하고 동 권고안이 비구속적(non-binding)임을 상기시킴. 한편 일본은 박물관의 사회, 교육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2019년 ICOM 총회를 유치했다고 안내함.
- 사무국은 박물관 관련 고위급 회의 개최 제안에 대해 재정문제로 박물관 사업이 많이 줄었으나 다음 회기에 비정규 예산을 모색해 보겠다고 답변함.

■ 관찰과 평가

-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사무국이 준비한 차기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환영하는 한편, 문화 분야가 주로 협약사업 위주로 되어 있는 바, 유네스코 재정위기로 인해 위축될 것을 염려하면서도 협약사업 사업 간의 시너지 및 효율성을 요구하였음.
- 문화 분야가 재정위기로 인해 협약사업 위주로 개편되고 사무국도 협약사업에 치중할 것으로 보이나 이 경우, 우리나라가 관심이 있는 창의도시 네트워크 사업 등이 위축될 가능성도 상존하는 것으로 판단됨. (단, 금번 총회에서 예술가를 위한 UNESCO Aschberg Bursaries 국제 문화진흥기금 일부가 재조정되어 창의도시 네트워크 사업에 쓰이게 되는 바, 그간 재정위기로 인해 위축되었던 창의도시사업의 활성화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됨).

5 정보·커뮤니케이션 분과회의

회의 기간 · 11월 10일 ~ 11일

장소 ·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본부

■ 요지

- 위원회는 11월 10-11일간 유네스코 본부(Room XI)에서 정보커뮤니케이션분과를 개최하여, ▲2018-21년도 정보커뮤니케이션 사업계획 예산 준비 ▲2016-2017년도 예산안 심의 및 채택 ▲카테고리 2센터 설립 ▲‘정보의 보편적 접근을 위한 국제 기념일’ 선포 ▲디지털유산을 포함한 기록유산 보존 및 접근에 관한 권고문 초안 등 관련 의제를 논의 후 이를 채택함.
- 다수의 회원국들은 사무국이 준비한 38C/5를 통한 정보커뮤니케이션부문의 프로그램 및 예산안을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의 실행에 유네스코가 적극 기여 ▲정보커뮤니케이션부문의 정규 및 비정규 예산의 확보 ▲언론인 안전 및 정보의 자유로운 보장 ▲세계기록유산사업의 중요성 등을 강조함.
- 위원회는 2003년 다언어사용 증진 및 사이버공간에 대한 보편적 접근에 관한 권고 이행에 대한 제3차 보고를 채택하고 보고서 미제출국에 대해 보고서 제출을 요청하는 한편 제40차 총회에 제4차 보고를 요청함. 아울러 9월28일 ‘정보의 보편적 접근을 위한 국제기념일’ 선포를 채택함.
- 카테고리 2센터로는 쿠웨이트의 ICT를 활용한 장애인 역량 강화 글로벌 센터(Global Centre for Excellence for the Empower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roug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음.

■ 논의의제

11월 10일

- 의제 3.4 2018-2021년도 사업 및 예산안 준비
- 의제 4.5 청년포럼 결과
- 의제 3.2 2016-2017 예산안 심의 및 채택

- 의제 4.13 “CONNECTing The Dots” 컨퍼런스 결과문서

11월 11일

- 의제 4.23 “세계 정보접근성 향상의 날” 선포 (9월 28일)
- 의제 6.1 디지털유산을 포함한 기록유산 보존 및 접근에 관한 권고문 초안
- 의제 7.2 2003년 다언어사용 증진 및 사이버스페이스 접근에 관한 권고 이행에 대한 3차 보고
- 의제 4.4 유네스코 카테고리 2 센터 설립
- 의제 4.10 장애인을 위한 통합적 ICT에 관한 뉴델리 선언

■ 의장단 선출

- 의장 : Dr. Abdulla El Reyes (아랍에미리트)
- 부의장 :
 - H.E. Ms Cristina Rodríguez Galáan (안도라)
 - Mr Andrejs Vasilevs (라트비아)
 - Minister Leticia Casati (파라과이)
 - Ms Wang Hongmin (중국)
- 보고관 : Mr Riche-Mike Wellington (가나)

■ 상세내용

의제번호	Item 4.5 (38C/19)
의제 제목	청년포럼 결과
	Conclusions of the Youth Forum
의제번호	Item 3.4 (38C/7)
의제 제목	2018-2021년도 사업 및 예산안 준비
	Preparation of the Draft Programme and Budget for 2018-2021 (39 C/5)

- Abdulla 의장은 위원회 의제안 및 잠정일정을 제시한바 위원회는 원안대로 채택함.
- Engida 사무총장보(DDG)는 2018-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초안의 구성과 그 간의 변화에 대해 소개함.
 - 제37차 총회에서 채택된 현 2014-2021 중기전략 하에 2018-2021년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준비될 예정이며, 제197차 집행이사회 결의안 7에 따라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유네스코의 역할에 강조점을 두고 자유로운 표현의 증진 및 지식사회 건설이라는 두 가지 목표 하에 동 문서를 마련하였다고 소개함.
- 위원회는 모든 이를 위한 정보 프로그램(Information for All Programme (IFAP)) 및 커뮤니케이션발전을 위한 국제사업 정부간위원회(Intergovernmental Council of the International Programme for the Development of Communication (IPDC))의 보고를 청취하고 이를 채택함.
 - IFAP는 불가리아, 중국, 이집트 등의 지원을 받아 2015년 6월 IPDC와 함께 청년과 인터넷에 관한 컨퍼런스를 개최하였으며 2014-15 기간 중 151개 총 2,468,392달러 규모의 사업을 승인
 - 안도라, 덴마크, 핀란드,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태국은 총 1,965,607 달러의 기부금을 IPDC에 공여
- 위원회는 청년포럼 대표(이탈리아, 콜롬비아)로부터 청년포럼의 결과를 청취함.
 - 2015년 10월 26-28일, 159개국 500여명이 참가하여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청년글로벌시민”의 주제로 토론
 - 유네스코의 주요 정책결정에 있어 청년들의 참여가 필요하며, ICT를 이용한 청년

- 들 간의 네트워킹이 가능하도록 국가위원회 차원의 기회를 제공해달라고 제안함.
- 대다수의 회원국들은 사무국이 준비한 정보커뮤니케이션부문의 2018-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준비 문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이행에 초점을 맞춰 줄 것을 사무국에 요청함.
-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은 자유로운 정보의 유통, 언론인의 안전, 세계 언론자유 날 등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한편, 유네스코가 이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요청함.
 - 노르웨이는 내년 헬싱키에서 세계 언론 자유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발표함.
- 러시아, 볼리비아는 IPDC, IFAP사업의 성과를 치하하면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비정규예산 및 민간분야의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함.
- 중국은 IPDC, IFAP 성과에 만족감을 표시하는 한편, 기록유산사업이 유네스코의 가시성을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정보커뮤니케이션부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차기 회기에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함.
- 사무국(DDG)은 표현의 자유는 매우 중요한 주제이며, 정보커뮤니케이션부문은 작은 사업 분야로서 인력이나 예산에 있어 부족한 형편이나 회원국과의 파트너십 강화, 인턴십 활용 등 전략적인 방안을 통해 회원국들의 많은 요구를 부응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함.

의제번호	Item 3.2 (38C/5+Add., 38C/6+Add., 38C/8, 38C/DR.4)
의제 제목	2016-2017 예산안 심의 및 채택
	Considering and adoption of the Draft Budget for 2016-2017 Part II.A Major Programme V -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 위원회는 사무국 Le Saux 전략기획국장(Dir/BSP)으로부터 의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38C/5, 38C/DR.4(이란)의 수정안 및 38C/6 및 관련문서 수정안을 채택함.
 - 전략기획국장은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 지식사회 건설 두 가지 기초를 그대로 유지하되,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에의 기여를 위한 방향으로 구성하였다고 설명함.
 - 아울러 39C/5는 2016년 초 온라인 설문, 2016년 봄 전략보고서 채택, 2016년 5월-6월 지역자문 및 비디오 회의를 통해 회원국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7년 총회에서 채택될 예정이라고 부연함.

- 대다수의 회원국들은 사무국이 준비한 정보커뮤니케이션부문의 2016-17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함.
- 캐나다,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독일 등 다수의 회원국들은 정보커뮤니케이션부문의 사업이 언론의 자유,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 기록유산사업 등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전제하고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함.
 - 중국은 현 예산안을 환영하면서, IFAP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디지털 유산을 포함한 기록유산사업에 깊은 관심을 표명함.
 - 독일은 현 예산안을 승인하면서 사업의 강화를 위해 비정규 예산 조달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함.
 - 폴란드, 케냐, 오스트리아, 독일은 기록유산사업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함.
 - ※ 러시아는 기록유산사업의 정부간 사업화에 지지 입장을 표함.
- 한국은 2016-2017 예산안을 환영하며, 특히 세계기록유산사업은 유네스코의 가시성을 높이는데 기여한 사업이니만큼 앞으로도 한국은 동 분야에서 유네스코 사무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힘.
 - 유네스코 한위가 지난 8월 기록유산등재훈련워크숍을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했음을 소개함.
- 사무국은 결과기반예산을 적용하고 있으며, 재정위기에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 미디어 발전, 보편적 정보 접근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설명함.

<결의안 채택>

- 38C/DR4 (iran)
 - (4) Universal access to information enhanced and documentary heritage preserved in all its forms ~ towards pluralistic, inclusive and peace-oriented knowledge societies 추가
 - DG ~ towards inclusive and pluralistic knowledge societies
 로 제안하여 수정안대로 채택됨.

의제번호	Item 4.13 (38C/53)
의제 제목	“CONNECTing The Dots” 컨퍼런스 결과문서 Outcome document of the “CONNECTing The Dots: Options for Future Action” Conference

- 위원회는 사무국(DDG)로부터 표제 회의에 대한 결과문서를 청취함.
- 사무국은 제196차 집행이사회 결의안 5.(I, F)(EX/Decision (I, F)에 따라 2015년 3월 3-4일간 유네스코 본부에서 개최된 표제회의의 결과를 회원국들과 공유하고자 한다고 설명함.

의제번호	Item 4.23 (38C/53)
의제 제목	“세계 정보접근성 향상의 날” 선포 (9월 28일) Proclamation of 28 September as the “International Day for the Access to Information”

- 위원회는 사무국(DDG)로부터 의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원안대로 채택함.
- 인도, 캐나다, 필리핀, 브라질, 노르웨이, 중국 등 다수의 회원국들은 연구와 자문의 결과로 나온 인터넷 보편성(Internet Universality)을 환영하면서 인터넷 관련 이슈에 있어 Post-2015에도 유네스코가 지속적으로 기여해줄 것을 당부함.
- 케냐, 탄자니아, 콩고 민주공화국, 짐바브웨, 수단, 터키, 나이지리아 등 다수의 국가들은 국제기념일 제정을 환영하는 한편 정보접근권은 인간의 기본권임을 강조함.
 - 이집트는 동 기념일이 다양한 정책결정자들이 참여하는 행사로서 지역에서의 참여를 장려하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제안함.
 - 중국은 동 기념일을 환영하면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겠다고 설명
- 사무국은 정보접근권은 정보를 찾고 얻는 권리이며 동 기념일을 장려하기 위해 회원국들과 파트너십을 통해 협력하겠다고 밝힘.

의제번호	Item 6.1 (38C/24)
의제 제목	디지털유산 포함 기록유산 보존 및 접근에 관한 권고문 초안 Draft recommendation on Preservation and Access to Documentary including Digital Heritage

- 위원회는 사무국(DDG)로부터 의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원안대로 채택함.
 - 사무국은 동 의제는 제37차 총회 결의에 따라 기록유산의 보존과 접근성을 위한 표준규범을 제정하기 위한 후속조치로서 2014년 바르사바에서의 국제전문가회의, 2015년 7월 정기간 전문가 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해 마련된 권고안으로 총회 의결을 위해 제안되었다고 설명함.
- 위원회는 사무국(Banerjee 지식정보사회국장)으로부터 의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원안대로 채택함.
 - 동 권고에 따른 활동에 대해 매 4년마다 보고하기로 결정함.
- 일본, 캐나다, 터키, 중국, 영국, 폴란드 등 대다수의 국가들은 동 권고안을 환영하면서 동 권고안이 기록유산사업의 중요한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함.
 - 중국은 기록유산사업이 유네스코 가시성 제고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모범사례를 제공해 줄 것을 제안함.
 - 베트남은 세계기록유산 아태지역위원회를 유지하였으며 내년 5월 이후에 개최될 예정이라고 소개함.
 - 일본은 권고문 적용에 있어서 각국이 처해있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고려해서 적용에 있어서는 유연(flexible)했으면 좋겠다고 발언함.
- 한국은 본 권고가 각국의 기록유산 보존 및 접근성 증진을 위한 정책수립에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내며 등재된 세계기록유산의 디지털화 현황을 파악하고 디지털화되지 않은 유산에 대해서는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함.

의제번호	Item 7.2 (38C/28)
의제 제목	2003년 다언어사용 증진 및 사이버스페이스 접근에 관한 권고 이행에 대한 3차 보고 Third consolidated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by Member States of the 2003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Promotion and Use of Multilingualism and Universal Access to Cyberspace

- 위원회는 사무국(DDG)로부터 의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원안대로 결의안을 채택함.

〈결정문 채택〉

- 3번째 자문과정에서 22개국만 보고서 제출하였음을 주목하고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에 의거, 회원국에게 사이버 공간에서의 다언어주의 이용에 대한 보고서 제출 요청하고 사무국에게 40차 총회에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함.

의제번호	Item 4.4 (38C/18)
의제 제목	유네스코 카테고리 2 센터 설립 Establishment of the Category 2 institutes and centres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Proposal for the establishment in Kuwait City, Kuwait, of a global centre for excellence for the empower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roug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CT)

- 별도 수정 없이 결의안을 채택함.

의제번호	Item 4.10 (38C/48)
의제 제목	장애인을 위한 통합적 ICT에 관한 뉴델리 선언 The New Delhi Declaration on Inclusive ICT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Making Empowerment a Reality

- 위원회는 사무국(DDG)으로부터 의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원안대로 결의안을 토의 없이 채택함.
 - 사무국은 인도와 유네스코가 지난 2014년 11월 24-26일간 개최한 “From Exclusion to Empowerment: Rol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첫 번째 국제회의의 결과와 성과를 설명하면서 스티븐 호킹을 유네스코 친선대사에 임명할 예정이라고 소개함.
 - 영국, 콜롬비아, 브라질 등이 인도정부에 사의를 표함.

■ 부대행사

- PERSIST 관련 부대행사 개최
 - 급속도로 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소중한 디지털유산이 사라져갈 위험에 처해 있음을 고려, 유네스코가 IFLA와 공동으로 PERSIST(유산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창설함. 옛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사용하는 컴퓨터와 수행능력을 보존하는 virtual machine을 이용함.
 - 국제자문위원회 산하 교육연구 소위원회(위원장: Prof. Jordan Lothar/독일)는 정보커뮤니케이션 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MOW 교육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전시회를 개최: Memory of the World Touch-Table and Museum Coffers 전시함.

■ 관찰과 평가

- 대다수의 회원국들은 정보커뮤니케이션부문의 사업에 대해 사업의 방향성이나 내용에 있어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으나 부족한 예산과 인력에 대해 우려를 표함.
- 북유럽국가를 위주로 한 선진국 그룹은 지난 총회와 같이 표현의 자유와 언론인의 안전을 강조하며 강한 지지의사를 표함. 우리정부의 주된 관심인 기록유산사업의 경우, 폴란드, 오스트리아 등 일부 국가만 관심을 표명하는 등 관련 발언의 횟수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을 관찰할 수 있었음.
- 금번 총회 직전 기록유산사업의 개혁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던 일본은 정작 관련 의제 논의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음. 이는 일본이 아직까지 동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적어 금차 총회 기간 중에는 적극적인 의견 개진보다는 정보수집에 주력한 탓으로 사료됨.
 - 일본대표단은 11.11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김귀배 팀장을 포함한 베트남, 필리핀 기록유산관련인사들을 초청하여 기록유산사업에 대해 문의함.
- 일본이 비록 금번 총회에서는 구체적인 전략을 드러내지 않았으나 1) 사무국과의 직접적인 접촉 2) 전문가 대 전문가를 통한 국제자문위원들과의 접촉을 통해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있어 일본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혁 작업을 구체화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한국도 ▲신청서의 공개 확대 ▲심사과정의 의견 개진 기회 확대 등 향후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선제적으로 사무국에 제안하는 것이 바람직함.
- 김은영 주재관 및 김귀배 팀장은 오스트리아, 폴란드, 네덜란드 등 관심국들을 접촉한 결과, 기록유산사업의 성과는 국제자문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에 기인한 것임을 인정하는 한편, 급격한 제도개편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일부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
- 아울러, 기록유산분야의 한국의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 향후 차기 국제자문위원회의 유치(혹은 중국), 국제자문위원회 등재소위원회에 한국 전문가의 진출 등을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할 필요가 있음.
 - 이스크라 기록유산담당관은 한국이 국제자문위원회 등재소위원회에 적합한 인사를 추천한다면 진출할 수도 있다고 답변함.

6 행정·재정·프로그램·대외협력 분과회의

회의 기간 · 11월 4일 ~ 9일

장소 ·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본부

■ 요지

- 이전 집행이사회에서 제안된 대로 다음 회기 사업 및 예산안(38C/5)의 예산상한은 667백만 불, 지출계획은 518백만 불을 각각 승인함. 한편 지난 회기 지출계획 507백만 불과의 차액을 조달하기위해 긴급기금 잔액인 11백만 불을 활용함으로써 회원국들의 분담금은 지난 회기와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하기로 결정함.
-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사무국에 별도의 교신을 하지 않은 6개국(미국, 이스라엘, 안티구아바부다, 코모로, 마이크로네시아, 상투메 프린시페)은 금번 총회에 투표권을 상실함.
- 회원국들은 차기(2018-2021) 중장기전략안(C/4)에서는 제한된 자원에도 불구하고 유네스코가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음. 또한 회원국들은 앞으로도 유네스코가 거버넌스 개선과 결과기반경영 등에 있어 개혁노력을 계속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논의의제

11월 4일

- **의제 1.3** 유네스코 헌장 제IV조 C항 8(c)문단 관련 회원국 제출 서한에 대한 사무총장 보고
- **의제 5.4** 관리자문위원회(OAC) 관한 개정
- **의제 5.6** 유네스코 지역 사업 이행에 있어 지역의 정의
- **의제 10.4** 의료혜택기금(MBF)의 상황에 대한 사무총장 보고
- **의제 10.1** 인사 규정 및 규칙
- **의제 10.2** 직원 보수, 수당 및 혜택
- **의제 10.3** 2016-2017년도 유네스코 직원연금 위원회 회원국 대표 임명 및 유엔

공동 직원 연금기금

11월 5일

- **의제 11.2** 본부위원회의 임무
- **의제 11.1** 유네스코 본부건물 관리에 대한 사무총장 보고
- **의제 3.1** 예산 수립 방법·기술 및 2016-2017년도 예산안
- **의제 3.2** 2016-2017 예산안 심의 및 채택
- **의제 3.4** 2018-2021년도 사업 및 예산안 준비
- **의제 4.1** 2016-2017년도 유네스코 연계 기념일 제정 관련 회원국 제안
- **의제 4.24** 아프리카지역 제1차 평화의 문화 포럼(루안다 비엔날레)
- **의제 4.17** 평화의 문화를 위한 아프리카 지역 고위급 훈련 및 연구 카테고리2 센터 설립
- **의제 8.1** 유네스코 활동에 대한 NGO의 기여 보고

11월 6일

- **기타 의제** 유네스코 통계연구소 활동에 관한 이사회 보고
- **의제 5.1** 사무국의 집행이사회 대상 새로운 사업이행 보고형식(EX4)
- **의제 9.5** 운영기금(WCF) 현황 및 관리
- **의제 9.3** 회원국 분담금 비율 및 회원국 분담금 통화
- **의제 9.4** 회원국 분담금 납입 현황
- **의제 5.3** 특별계좌 관련 재정규정 개정
- **의제 1.3** 유네스코 헌장 제IV조 C항 8(c)문단 관련 회원국 제출 서한에 대한 사무총장 보고

11월 9일

- **의제 5.2** 유네스코 정부간기구 업무방식에 관한 유엔합동 조사반 권고 후속조치
- **의제 5.8** 유네스코 의사결정기구의 운영, 업무진행절차 및 방식
- **의제 9.1** 2013년도 유네스코 재정 보고, 재무제표 및 외부감사 보고
- **의제 9.2** 2014년도 유네스코 재정 보고, 재무제표 및 외부감사 보고

■ 의장단 선출

- 의장 : Mr. Mathew Sudders (영국)
- 부의장 :
 - Mr. J. Kalinoe (파푸아뉴기니)
 - Mrs. V. Lacoeluihe (세인트루시아)
 - Mr. G. Godia (케냐)
- 보고관 : 부재

■ 상세내용

의제번호	Item 1.3 (38C/10+Add.)
의제 제목	유네스코 헌장 제IV조 C항 8(c)문단 관련 회원국 제출 서한에 대한 사무총장 보고 Report by the Director-General on communications received from Member States invok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IV.C, paragraph 8(c), of the Constitution

- 4일 오전 Sudders 의장은 선거 그룹 별 1명으로 구성 될 비공개 워킹그룹(세네갈, 슬로베니아, 독일, 오만, 엘살바도르, 필리핀)이 분담금을 체납한 14개국(미국, 타지키스탄, 안티구아바부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코모로, 그루지아, 이스라엘, 키르기즈스탄, 리비아, 마이크로네시아, 상투메 프린시페, 소말리아, 남수단, 베네수엘라)에 대한 투표권 부여 문제를 5일 간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함.
- 10일 오후 동 워킹그룹 의장(독일 부대사)은 사무국에 공식서한을 통해 자국의 상황(전쟁, 자연재해, 정치적 상황에 의한 예산부족 등)을 설명하고 투표권 유지를 요청해 온 7개국(남아공, 리비아, 그루지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소말리아, 남수단)에 대해 투표권 부여를 권고함.
 - 미국, 이스라엘, 안티구아바부다, 코모로, 마이크로네시아, 상투메 프린시페 등 6개 국가는 투표권을 상실함.
 - 베네수엘라는 해당 일 오전에 분담금을 납부하여 투표권을 유지함.

의제번호	Item 3.1 (38C/5+Add.)
의제 제목	예산 수립 방법 · 기술 및 2016-2017년도 예산안 Methods of preparing the budget, budget estimates for 2016-2017, and budgeting techniques

- 사무국은 결과기반예산수립 방법을 통해 2016-2017년도 예산 667백만 불과 지출 계획 518백만 불을 각각 책정했다고 소개하고 차기 회계연도까지 적용하기로 한 달 러 대 유로 고정 환율을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했다고 부연함.
- 나이지리아, 캐나다, 엘살바도르, 파라과이 등은 사무국이 예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어느 때보다 집행이사회, 외부감사와 성실하게 협의했으며 예산계획에 대한 회원국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력한 점을 높이 치하함.
- 한국은 유네스코가 사업 이행과정에서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계속해 노력해줄 것을 요청하고, incompressible cost에 대한 좀 더 분명한 정의와 산정방식이 39C/5 준비에 반영되길 희망한다고 발언함.
- 차기 예산 수립 시 사무총장이 외부감사 권고와 실제 인력비용 등을 고려하도록 요청한 캐나다의 수정결의안이 채택됨.

의제번호	Item 3.2 (38C/5+Add., 38C/6+Add., 38C/8)
의제 제목	2016-2017 예산안 심의 및 채택
	Consideration and adoption of the Draft Budget for 2016-2017

- 위원회 간 합동 회의에서는 이전 집행이사회에서 제안한 38C/5의 예산상한 667백만 불(ZNG+)과 지출계획 518백만 불을 각각 승인함. 한편 이전 37C/5의 지출계획 507백만 불과의 차액은 긴급기금 잔액 11백만 불을 활용함으로써 회원국의 부담금에는 변화를 주지 않기로 결정함.
- 사무국은 지난 총회와 집행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38C/5 상에서 전략기획국 사무차장보 직위를 폐지한 사실을 포함 조직도 상의 변화를 소개함.
- 아르헨티나는 C/5문서 준비과정에서 국가위원회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며 국가위원회 간의 정기적인 면대면 회의와 온라인상 자문회의 개최 필요성, 국가위원회의 적극적인 유네스코 사업 참여 강화 필요성 등을 강조한 수정결의안을 제출함. 한국은 동 수정결의안에 대한 지지 표명과 함께 온라인 자문회의 준비와 관련 새로운 플랫폼 개발에 투자를 하기보다는 가용한 무료 프로그램의 적극적 활용을 제안함. 한편, 동 수정결의안의 재정적 함의에 대한 여러 유럽 국가의 우려로 인해 결의안 채택은 무산됨.

의제번호	Item 3.4 (38C/8)
의제 제목	2018-2021년도 사업 및 예산안 준비
	Preparation of the draft programme and budget for 2018-21

- 사무국(Dir/BSP)은 제37차 총회에서 C/4 준비를 위한 지역별 의견수렴은 4년에 한번 온라인 설문조사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된 바 있음을 상기시킴.
 - 슬로베니아, 캐나다는 사무국이 이 과정에서 국가위원회 전체회의 등 회원국들이 주최하는 회의를 최대한 활용하여 이를 진행할 것을 권고함.
- 회원국들은 차기(2018-2021) 중장기전략안(C/4)에서는 제한된 재원에도 불구하고 유네스코가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음.
-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프랑스, 캐나다 등은 유네스코가 거버넌스 개선, 결과기반경영 등을 포함해서 조직개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함. 또한 사업 우선순위 설정과 안정적인 재정 확보의 중요성, 예산수립 과정에서의 부문 간 전체적(holistic)인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함. 특히 스웨덴은 이를 위해 의사결정기구가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을 계획하도록 하는 보다 체계적인 재정 논의 제도(Structured financial dialogues)를 도입할 것을 제안함.
 - 노르웨이는 IOC 등 해양 관련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함. 노르웨이는 또한 유네스코가 다양한 파트너십(네트워크)을 활용해 재정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함.

〈결의안 채택〉

The General Conference,
Having examined document 38C/7,

1. Expresses its satisfaction with the contributions made by UNESCO in its fields of competence to the preparation of 2030 Agenda;
2. Underscores the *abiding enduring* relevance of UNESCO's mandate to the achievement of the 2030 Agenda, and stresses the importance for UNESCO to contribute to the implementation and follow-up of the 2030

Agenda at appropriate levels, in particular by delivering assistance and technical support to Member States in its various domains;

3. Further underscores the continued relevance of UNESCO's Medium-Term Strategy for 2014–2021, of its two overarching goals of peac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nd of its two Global Priorities – Africa and Gender equality;
4. Emphasizes the importance for UNESCO to harness its multidisciplinary expertise and experience in its fields of competence towards the achievement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5. Welcomes the Director-General's efforts to focus the Organization's programme and resource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 initial mapping provided in this regard in document 38C/7, 6. Invites the Director-General, when preparing draft document 39C/5, to:
 - (a) take into account the debates and decision on this item at the 197th session of the Executive Board and at the 38th session of the General Conference,
 - (b) proceed with the consultations of Member States and relevant stakeholders on the preparation of the Draft Programme and Budget for 2018–2021 (39C/5) according to the roadmap presented in Annex III of document 38C/7.

의제번호	Item 4.1 (38C/15)
의제 제목	2016–2017년도 유네스코 연계 기념일 제정 관련 회원국 제안 Proposals by Member States concerning the celebration of anniversaries in 2016-2017 with which UNESCO could be associated

- 별도 논의 없이 결의안을 채택함.

의제번호	Item 4.17 (38C/64)
의제 제목	평화의 문화를 위한 아프리카 지역 고위급 훈련 및 연구 카테고리2 센터 설립 Establishment of a High Level Pan-African training and research centre for the culture of peace as a category 2 centre under the auspices of the African Union and UNESCO

- 별도 논의 없이 결의안을 채택함.

의제번호	Item 4.24 (38C/62)
의제 제목	아프리카지역 제1차 평화의 문화 포럼(루안다 비엔날레) First biennial Pan-African Forum for a Culture of Peace in Africa, Biennale of Luanda

- 별도 논의 없이 결의안을 채택함.

의제번호	Item 5.1 (38C/22)
의제 제목	사무국의 집행이사회 대상 새로운 사업이행 보고형식(EX4) New format of reporting to the Executive Board on programme implementation (EX/4)

- 사무국(Dir/BSP)은 EX/4 문서의 활용 관련, 봄 집행이사회에는 의제에 포함시키되 가을 집행이사회에는 의제에 포함시키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공람할 계획임을 안내. 사무국은 또한 동 문서를 결과중심적, 분석적으로 만드는 한편 그 분량을 현재의 1/3 정도로 줄이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부연함.
- 캐나다, 스웨덴은 중장기전략 수립에 대한 논의가 회원국들에게 추후 배포될 설문지 (stakeholder survey)에 포함되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으며, EX/4 문서의 성과지표 부분이 좀 더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 스웨덴, 멕시코는 사무국에 재차 해당 문서의 요약본 제공을 요청했으며 사무국에서는 이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함.

<결의안 채택>

The General Conference,
 Recalling 194 EX/Decision 4 Part I.B and 195 EX/Decision 4 Part V,
 Having examined document 38 C/22 and its annexes containing the Report of the Executive Board Preparatory Group 195 EX/4 Part V – PG/Report and 195 EX/Decision 4 Part V,
 Recognizing the need to enhance further reporting on programme implementation in the EX/4,

1. Adopts this approach to reporting;
2. Requests the Director-General to prepare the reports to the Executive Board based on the objectives and elements, and following the format and periodicity described in document 195 EX/4 Part V – PG/Report, including the proposed timetable [추가] and requests that the coverage of the PIR report be cumulative within the programming cycle.

의제번호	Item 5.2 (38C/23, 38C/INF.12)
의제 제목	유네스코 정부간기구 업무방식에 관한 유엔합동 조사반 권고 후속조치 Follow-up to the United Nations Joint Inspection Unit (JIU) recommendations concerning the methods of work of UNESCO's Intergovernmental bodies- Report by the External Auditor

- 외부감사는 설문조사 결과 모든 의사결정기구가 현재 유네스코 정부간기구의 거버넌스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은 우려되는 상황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함.
 - 주요 권고사항인 정부간기구들 간의 중복 회피(유산 관련, 교육 관련 카테고리 1 센터 등), 기구의 의장 및 부의장 후보들에 대한 심사 절차 도입 등에 대해 소개함.
- 결의안을 제출한 덴마크, 네덜란드, 핀란드, 오스트리아는 현재까지 많은 외부감사의 권고사항들이 제시되었으나 그 이행은 부진했다고 지적하면서 2030 지속가능개발 의제 이행을 위한 효율적, 전략적, 일관적인 계획의 필요성 강조와 이 권고들의 실행을 위한 워킹그룹 구성을 제안함.
 - 캐나다, 필리핀을 비롯한 다수 남미국가들의 지지로 동 결의안이 채택됨.
- 스웨덴과 도미니카공화국은 향후 모든 총회 의제에 결의안을 포함시킬 것을 요청하고 이를 최종결의안에 반영시킴.
- 유네스코 정부간기구의 의사결정 방식을 합의에서 투표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는 권고와 관련 다수 회원국들이 우려를 표명한 바, 외부감사는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라고 설명함.
- 세인트루시아, 엘살바도르는 재무국(BFM)의 활동(예산)의 집행과 책임의 분리 여부, 규정 부합여부 및 특히 신탁기금 간접비용(FITOCA)의 운영에 대해 외부감사가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고, 캐나다는 Invest for Efficiency Fund 관련 유네스코의 투자 방향에 대해 조사해줄 것을 요청함.

Part I

The General Conference,

1. Recalling 37C/Resolution 96, in particular the acknowledgement of the need to optimize the governance of intergovernmental programmes, committees and conventions by harnessing the potential for greater synergy, harmonization, efficiency and impact while bearing in mind requirements regarding the quality of the work and the specific mandate, constituency and functioning of individual governing bodies,
2. Having examined documents 38C/23, including its annex, 197EX/28,INF and 38C/63, Recalling 197EX/Decision 28 and 44,
Reaffirming the need for a holistic and comprehensive reform of UNESCO, particularly its governing bodies, in order to ensure greater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n the governance of the Organization,
Decides to establish an open-ended working group on governance, procedures and working methods of the governing bodies of UNESCO;
Also decides that the open-ended working group will:
 - convene open-ended meetings, thus allowing enhanced participation of all Member States of UNESCO;
 - hold its first meeting no later than end of January 2016;
 - designate its Chairperson and Vice-chairperson at its first meeting;
 - define, also at its first meeting, a detailed timetable of its work as well as criteria for evaluation;
 - examine the governance, procedures and working methods of the governing bodies of UNESCO on the basis particularly of the External Auditor's audit report on the governance of UNESCO as well as relevant IOS evaluations and audits as well as previous decisions and resolutions related to governance;
 - develop concrete follow-up proposals to be examined by the General Conference at its 39th session;

- report to the Executive Board at the autumn session in 2017 with a view to enable the Executive Board to make its recommendations to the 39th session of the General Conference;

3. Requests the Director-General to start the implementation of recommendations 1, 11 and 13 of the External Auditor's report, as recommended by the Executive Board at its 197th session;
4. Further requests the Director-General to, that, on an experimental basis, to organize a two-yearly meeting of chairs and directors of Category 1 institutes in the Education Sector, ~~should be organized with structured coordination between the two sessions~~, in line with recommendation 6 (i) of the External Auditor's report, ~~and followed up by an evaluation which results should be submitted to the General Conference at its 39th session~~;
5. Invites all intergovernmental programmes, committees and organs of the conventions to inscribe, in 2016 if feasible, an item on its their agenda concerning the follow-up to the recommendations of the External Auditor's report, to improve their governance by concrete measures, and to ~~communicate~~ a report on [추가] their proposals to the Chairperson of the open-ended working group;
6. Invites the Director-General to assist the open-ended working group by providing appropriate secretariat support;

[추가] Part II Method of work of the General Conference

7. Also requests the Director-General to ensure that each item and sub-item placed on the General Conference agenda by the Secretariat, General Conference and Executive Board Agenda contain a draft solution.

의제번호	Item 5.3 (33C/51)
의제 제목	특별계좌 관련 재정규정 개정
	Revision of the Financial Regulations for Special Accounts

- 엘살바도르,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등 남미국가들은 사무총장에게 특별계정 폐쇄 전 집행이사회에 자문을 구할 것과 신탁기금 간접비용(Funds-In-Trust Overhead Cost Account)에 관한 정기 연간 보고서를 제출할 것, 그리고 다자파트너 신탁기금 모델을 고안하여 제200차 집행이사회에 제안할 것을 요청하고 이를 최종결의안에 반영시킴.
– 세인트루시아는 FITOCA가 정규사업의 일부로 분류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 및 회원국 프로그램 이행에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을 지적함.

〈결의안 채택〉

9. Requests the Director-General to inform the Executive Board in writing on the occasion of the opening of special accounts as well as before introducing any change in the Section of the Administrative Manual regarding these aspects of the special accounts.
- 9 bis. Requests the Director-General to consult the Executive Board before the closing of special accounts as well as before introducing any change in the Section of the Administrative Manual regarding these aspects of the special accounts.
13. Requests the Director-General to provide the Executive Board with an annual report on the use of FITOCA through which she shall seek such guidance, noting that this report may be part of other routine reporting to the Executive Board.
18. Invites the DG to propose a multi-partner trust fund model together with details on how it might work to the 200th session of the Executive Board.
19. Invites the DG to report back to the 39th Session of the General Conference on the implementation of this decision.

의제번호	Item 5.4 (38C/52)
의제 제목	관리자문위원회(OAC) 권한 개정
	Revision of the Terms of Reference of the Oversight Advisory Committee

- 내부감사실장은 현재 4명의 외부독립위원으로 구성된 동 위원회에 내부감사와 평가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 한명을 추가할 것, 위원들이 활동 중에 직원들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 그리고 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집행이사회 기간 중 보고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권한 수정을 제안함.
- 동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총장에 의해 선임되는 바, 동 위원회가 총회 의장에게 외부감사의 선임에 관해 조언할 수 있다는 조항(5조 3항)은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한 캐나다와 세인트루시아의 제안으로 관련 문단이 결의안에서 삭제됨.

〈결의안 채택〉

- The General Conference,
 Recalling 35C/Resolution101 and 196EX/Decision24,
 Having examined document 38C/52,
1. Takes note of the role of the Internal Oversight Service (IOS) in the functioning of the Organization;
 2. Welcomes the Director-General's proposal on the revised Terms of Reference for the Oversight Advisory Committee and the Executive Board's endorsement thereof;
 3. ~~Approves the revised Terms of Reference of the OAC (Annex to document 38C/52) to the Executive Board.~~
 3. Invites the Director-General to revise and complete the terms of reference of the Oversight Advisory Committee, taking into account for the forthcoming Joint Inspection Unit decisions and thereon and to bring them into line with the UN independent Audit Advisory Committee and delegates to the Executive Board the authority to adopt the final version,

- 3 bis. Decides to reinstate article 3 paragraph 1 as originally proposed and delete article 3 paragraph 5.
4. Approves the revised Terms of Reference of the OAC, subject to the amendments in paragraph 3bis (Annex to document 38C/52)
5. Requests the Director-General to propose the further update the Terms of Reference in consultation with the OAC to the 200th session of the Executive Board.

의제번호	Item 5.6 (38C/58)
의제 제목	유네스코 지역 사업 이행에 있어 지역의 정의 Definition of regions with a view to the execution by the organization of regional activities

- 금번 총회에서 준회원국으로 유네스코에 가입한 몬트세랫(Monserrat)이 카리브해 지역 그룹으로 분류되기를 요청한 바 이를 승인함.

의제번호	Item 5.8 (38C/63)
의제 제목	유네스코 의사결정기구의 운영, 업무진행절차 및 방식 Governance and working procedures and methods of the governing bodies of UNESCO

- 의제 5.2와 함께 논의됨 (해당 의제 참조)

의제번호	Item 8.1 (38C/34, 38C/INF.5)
의제 제목	유네스코 활동에 대한 NGO의 기여 보고 Quadrennial report on the contribution made to UNESCO's activities by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 별도 논의 없이 결의안을 채택함.

의제번호	Item 9.1 (38C/35)
의제 제목	2013년도 유네스코 재정 보고, 재무제표 및 외부감사 보고
	Financial report and audited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relating to the accounts of UNESCO for the financial period ended 31 December 2013, and report by the External Auditor
의제번호	Item 9.2 (38C/36+Add., 38C/INF.12)
의제 제목	2014년도 유네스코 재정 보고, 재무제표 및 외부감사 보고
	Financial report and audited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relating to the accounts of UNESCO for the financial period ended 31 December 2014, and report by the External Auditor

- 외부감사는 해가 갈수록 외부감사의 권고사항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유네스코 재무관련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권고함.
 - 국제공공부문 회계기준(IPSAS)과 관련된 권고는 해당 기준과 일치하도록 유네스코가 재무제표 승인을 1년 주기로 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을 권고하고, 고정환율 제도도 현재 시중환율과 다르기 때문에 IPSAS 기준에 맞게 유엔과 같이 변동환율로 바꿀 것을 권고함.
 - 퇴직 후 의료보험(ASHI) 관련, 그 수입과 지출의 격차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며 믿음만한 장기적 재정구조의 필요성을 강조함.
- 케냐는 IPSAS 시스템의 도입(환율 등)을 위한 방법을 문의하였으며 중국은 IPSAS 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부담금 수준의 변화에 대해 문의함.
 - 외부감사는 예산의 정확한 수립 및 환율 조정과 관련된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변동환율을 도입하는 것을 추천함. 유엔이 총 3번 예산(예산수립 시, 1회기 후, 2회기 후)의 환율조정을 실행하는 것을 참고로 언급함.
- 의제 9.1, 9.2 모두 결의안 수정 없이 채택함.

의제번호	Item 9.3 (33C/37+Add.)
의제 제목	회원국 부담금 비율 및 회원국 부담금 통화
	Scale of assessments and currency of Member States' contributions

- 수석재정관(CFO)은 유엔 총회에서 결정 사항에 따라 회원국별 유네스코의 부담금이 결정되었음을 소개함. 또한 부담금의 달러-유로 분할납부 유로의 비율이 사무국의 인력비용 절감 등으로 인해 57%에서 47%로 변경됨을 알림.
- 해당 내용을 반영한 사무국 제안 결의안을 채택함.

의제번호	Item 9.4 (33C/38+Add.)
의제 제목	회원국 부담금 납입 현황
	Collection of Member States' contributions

- 수석재정관(CFO)은 2015년 8월 31일 기준 총 470백만 불의 부담금이 납입 완료되었으며 이는 전체 부담금의 72%에 해당한다고 소개함.
- 의제 1.3 논의 결과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회원국들에게 납부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채택됨.

의제번호	Item 10.1 (33C/40+Add.)
의제 제목	인사 규정 및 규칙
	Staff Regulations and Staff Rules

- 독일, 아르헨티나, 캐나다, 알제리 등 회원국들은 조직 내 공석 채용의 우선순위를 내부 직원에게 주는 것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함.
 - 인적자원국장은 지금까지 사무국 내 공석에 대해 내부에서 우선적으로 30일 동안 공고한 후 외부 채용공고를 시작해왔으나, 이제는 내부 및 외부에 최소 1개월 동안 동시에 공고하고 모든 신청서를 취합하고 있으며 직원들을 어느 정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을 변경했다고 설명함.
 - 내부감사실장도 내부와 외부에 동시 채용공고를 하는 것이 유엔 시스템 내에서 보편적인 사례임을 소개하고 인적자원국의 관련 규정 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회원국들은 사무총장이 특정 직위의 경우 내부 후보들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이와 관련된 결의안 문구 삭제를 요구함.
 - 인적자원국장은 이가 사무국의 구조조정 등 특수한 상황에만 적용하기 위한 것임을 설명했으나, 회원국들의 강한 반대로 해당 문구가 삭제됨.
- 세인트루시아의 제안으로 사무총장이 직원의 임명, 직위 연장 및 갱신, 해임 등을 진행할 때에는 현재와 같이 법률자문가 뿐 아니라 윤리자문가와 내부감사실장에게 자문을 받는 것으로 해당 조항이 수정됨.

<결의안 채택>

1. Takes note of the information provided in that document;
2. Decides to amend Staff Regulations 4.3.2 and 4.4 as follows:
 - Regulation 4.3.2
Deleted
 - Regulation 4.4
“Recruitment and appointments shall be made on a competitive basis following formal advertisement of the vacant posts for a minimum of one month.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Regulation 4.2., 4.3., and 4.3.1 and 4.3.2, and

without prejudice to the recruitment, at all levels, of fresh talent, staff members (and former staff members with at least one year's service, separated during the previous two years owing to the abolition of posts) shall be given priority of consideration for vacant posts, *on the basis of equal competence.*

In the case of internal recruitment, posts shall be advertised for one month. ~~The Director-General may limit eligibility to apply for vacant posts to internal candidates as defined by the applicable Staff Rules.”~~

Next priority, with regard to externally advertised posts, shall be given, subject to reciprocity, to applicants already in the service of the United Nations and other Specialized Agencies on the basis of equal competence,

Regulation 4.5.3

The Director-General shall take decisions concerning the appointment, ~~tenure-~~extension, renewal and termination *of appointment of the legal advisor, the Ethics Advisor and the IOS Director* of the Organization in consultation with the Executive Board.

의제번호	Item 10,2 (38C/41)
의제 제목	직원 보수, 수당 및 혜택
	Staff salaries, allowances and benefits

- 별도 논의 없이 결의안을 채택함.

의제번호	Item 10,3 (38C/42)
의제 제목	2016-2017년도 유네스코 직원연금 위원회 회원국 대표 임명 및 유엔 공동 직원 연금기금
	UN Joint Staff Pension Fund and Appointment of Member States' Representatives to the UNESCO Staff Pension Committee for 2016-2017

- 유네스코 직원연금 위원회의 회원국 대표로 케냐, 브라질은 그 대표직을 연임하고 필리핀이 새로운 멤버로 자원하여 총 3개 대표가 임명됨.
 - 교체 대표로는 오만, 리비아와 캐나다가 임명됨.

의제번호	Item 10,4 (38C/43)
의제 제목	의료혜택기금(MBF)의 상황에 대한 사무총장 보고
	Report by the Director-General on the state of the medical benefits fund (38C/43)

- 사무국은 제37차 총회 때 의료혜택기금(MBF)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그 구조를 변경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현재 MBF는 유로 환율변동, 직원 수 감소 등으로 인해 17개월 평균 지출 분을 확보한 상태라고 설명함.
- 케냐, 나이지리아, 앙골라는 다른 유엔 기구들처럼 유네스코가 삼자그룹을 만들어 MBF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함.
 - 사무국은 올해 ASHI 부채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은 금리 때문임을 설명함. 또한 유네스코도 적극적으로 참여 중인 유엔 차원에서의 ASHI 관련 워킹그룹 논의 결과

가 2016년 봄 유엔 총회에 보고될 것이라고 소개함.

- 캐나다, 독일 등의 제안으로 삼자위원회의 구성 여부를 유엔 보고서 발행 이후에 개최될 집행이사회에 위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함.
- 한편, 한국과 말레이시아 등은 MBF의 개혁을 치하하며 1백만 불의 재정을 절감하는 등 재정상황이 최근 몇 년 사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발언함.

〈결의안 채택〉

The General Conference,
Having examined document 38 C/43,

1. Takes note of the improved financial situation of the Medical Benefits Fund;
2. Authorizes the Director-General to transfer any balance remaining from the contributions to the MBF for Associate Participants, following the final closing of the accounts of the 37 C/5, to the Special Account for ASHI;
3. ~~Invites the Director-General to report to it, at its 39th session, on the state of the MBF, the ASHI liability and the ASHI Special Account; Requests the External Auditor to include in his programme of Audits for the forthcoming biennium and audit of the Medical Benefits Fund;~~
4. Further invites the Director-General to report on the results of the United Nations system ASHI Working Group to the Executive Board in its session after the consideration of the report by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and delegates to the Executive Board the authority to consider creation of a tripartite committee of UNESCO to find homegrown solutions to the ASHI liabilities of the Organization.

의제번호	Item 11.1, Item 11.2 (38C/44)
의제 제목	11.1 유네스코 본부건물 관리에 대한 사무총장 보고 11.2 본부위원회의 임무
	11.1 Report by the Director-General, in cooperation with the Headquarters Committee, on managing the UNESCO complex 11.2 Mandate of the Headquarters Committee

- 사무국 운영지원국장은 본부 건물이 노후화되고 있으며 재정난 속에서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사무국과 본부위원회가 장기 재정계획을 세우기 위한 노력 중임을 설명함.
- 세인트 빈센트, 엘살바도르 등 회원국들은 동 위원회가 도입한 새로운 본부 건물 임대 계획으로 인해 임대 수입이 처음으로 증가한 것을 치하하고, 이를 건물 보수에 사용할 것을 요청함. 또한 앞으로 일회성 행사를 위한 본부 공간 임대도 유료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함.
 - 사무국은 사무 공간뿐만 아니라 회의장 사용에 대해서도 비용 회수(cost recovery)를 위해 공간 임대료에 대한 새로운 가격책정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해당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본부위원회와 사무국이 협력할 것이라고 소개함.
- 캐나다는 1번방 보수와 관련해 신설된 위원회와 본부 위원회의 차이점에 대해 문의함.
 - 사무국은 1번방 보수 관련 위원회는 내부 위원회이며 본부 건물의 대규모 보수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라는 외부감사의 권고에 따라 설치된 것이라고 답변함.

의제번호	추가제 (38C/REP/25)
의제 제목	유네스코 통계연구소 활동에 관한 이사회 보고
	Report by the Governing Board of the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UIS) on the activities of the Institute (2014-2015)

- 유네스코 통계연구소장은 그동안 삭감된 예산 하에서도 교육, 과학, 문화 분야의 통계를 강화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의 성과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아시아 등 지역에서 워크숍을 개최하여 역량강화 지원 활동에도 힘써왔음을 소개함. 또한 유네스코의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실행을 위한 성과지표개발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소개함.
- 유네스코 통계연구소를 유치하고 있는 캐나다는 해당 기관의 활동과 성과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기관의 재정에 계속 기여하겠다는 뜻을 밝힘.

■ 관찰과 평가

- 금번 행정·재정·프로그램·대외협력위원회는 회원국들의 참여율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편이었으며 그 논의도 대부분 전자 집행이사회에서 결정된 바를 추인하는 형식으로 진행됨.
- 차기(2018-2021) 중장기전략을 논의하는 첫 기회였던 금번 총회에서 회원국들은 관심사는 주로 유네스코의 중장기 재정계획 및 거버넌스 개혁에 집중되었음. 특히 다수 회원국들은 스웨덴이 제안한 체계적인 재정 논의 제도 도입과 이를 통한 중장기 재정계획 및 사업 우선순위 설정 방안을 지지했으며, 거버넌스 개혁을 위한 외부감사 권고사항의 이행을 위한 워킹그룹 구성에 동의함.

IV. 주요 선거결과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1 집행이사회 선거결과

일시 · 11월 11일

■ 선거결과

- 그룹 I (서구·북미) :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미국
- 그룹 II (동구) : 리투아니아, 러시아,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 그룹 III (중남미·카리브해) : 브라질, 아이티, 멕시코, 니카라과, 파라과이
- 그룹 IV (아시아·태평양) : 이란,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대한민국, 스리랑카, 베트남
- 그룹 V(a) (아프리카) :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나이지리아, 가나, 케냐, 세네갈, 남아프리카공화국
- 그룹 V(b) (중동) : 레바논, 오만, 카타르, 수단

〈참고자료〉 지역별 집행이사국

COMPOSITION OF THE EXECUTIVE BOARD FOR 2015-2017 BY ELECTORAL GROUP

Group I (9 seats)	Term expires	Group II (7 seats)	Term expires
1. France	2019	1. Albania	2017
2. Germany	2017	2. Estonia	2017
3. Greece	2019	3. Lithuania	2019
4. Italy	2019	4. Russian Federation	2019
5. Netherlands	2017	5. Serbia	2019
6. Spain	2019	6. Slovenia	2019
7. Sweden	2017	7. Ukraine	2017
8.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2019		
9. United States of America	2019		

Group III (10 seats)	Term expires	Group IV (12 seats)	Term expires
1. Argentina	2017	1. Bangladesh	2017
2. Brazil	2019	2. China	2017
3. Dominican Republic	2017	3. India	2017
4. El Salvador	2017	4. Iran (Islamic Republic of)	2019
5. Haiti	2019	5. Japan	2017
6. Mexico	2019	6. Malaysia	2019
7. Nicaragua	2019	7. Nepal	2017
8. Paraguay	2019	8. Pakistan	2019
9. Saint Kitts and Nevis	2017	9. Republic of Korea	2019
10. Trinidad and Tobago	2017	10. Sri Lanka	2019
		11. Turkmenistan	2017
		12. Viet Nam	2019

Group V(a) (13 seats)	Term expires	Group V(b) (7 seats)	Term expires
1. Cameroon	2019	1. Algeria	2017
2. Chad	2017	2. Egypt	2017
3. Côte d'Ivoire	2019	3. Lebanon	2019
4. Ghana	2019	4. Morocco	2017
5. Guinea	2017	5. Oman	2019
6. Kenya	2019	6. Qatar	2019
7. Mauritius	2017	7. Sudan	2019
8. Mozambique	2017		
9. Nigeria	2019		
10. Senegal	2019		
11. South Africa	2019		
12. Togo	2017		
13. Uganda	2017		

2 총회 산하 정부간위원회 선거결과

일시 · 11월 12일

■ 한국 선출 위원회

- 국제 인간과생물권계획(MAB) 조정위원회 : 임기 2015-2019
- 정부간 생명윤리위원회(IGBC) : 임기 2015-2019

■ 법률위원회

- 그룹 I (서구·북미) : 캐나다, 프랑스, 스웨덴, 영국, 미국
- 그룹 II (동구) : 우즈베키스탄
- 그룹 III (중남미·카리브해) : 아르헨티나,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페루, 베네수엘라
- 그룹 IV (아시아·태평양) :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이란, 미얀마
- 그룹 V(a) (아프리카) : 케냐, 레소토
- 그룹 V(b) (중동) : 쿠웨이트

■ 본부위원회

- 그룹 I (서구·북미) : 프랑스, 영국
- 그룹 II (동구) : 체코, 우즈베키스탄
- 그룹 III (중남미·카리브해) : 엘살바도르, 페루, 베네수엘라
- 그룹 IV (아시아·태평양) : 인도네시아, 미얀마
- 그룹 V(a) (아프리카) : 콩고, 레소토, 짐바브웨
- 그룹 V(b) (중동) : 예멘

■ 유네스코 국제 교육국(IBE)

- 그룹 I (서구·북미) : 스위스
- 그룹 II (동구) : 루마니아
- 그룹 III (중남미·카리브해) : 볼리비아
- 그룹 IV (아시아·태평양) : 태국
- 그룹 V(a) (아프리카) : 마다가스카르

- 그룹 V(b) (중동) : 쿠웨이트

■ 국제 인간과생물권계획(MAB) 조정위원회

- 그룹 I (서구·북미) : 오스트리아, 터키, 영국
- 그룹 II (동구) : 아제르바이잔, 러시아, 슬로바키아
- 그룹 III (중남미·카리브해) : 콜롬비아, 과테말라, 온두라스, 페루
- 그룹 IV (아시아·태평양) :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대한민국
- 그룹 V(a) (아프리카) : 마다가스카르, 말리, 나이지리아, 토고
- 그룹 V(b) (중동) : 모로코

■ 국제 수문학사업(IHP) 정부간위원회

- 그룹 I (서구·북미) : 오스트리아, 독일, 노르웨이, 스위스
- 그룹 II (동구) : 헝가리, 폴란드, 러시아
- 그룹 III (중남미·카리브해) : 아르헨티나, 쿠바, 과테말라, 페루
- 그룹 IV (아시아·태평양) : 카자흐스탄, 네팔, 파키스탄
- 그룹 V(a) (아프리카) : 가나, 케냐, 나이지리아, 세네갈
- 그룹 V(b) (중동) : 요르단, 모로코, 수단, 튀니지

■ 사회변동관리사업(MOST) 정부간위원회

- 그룹 I (서구·북미) : 프랑스, 터키
- 그룹 II (동구) : 러시아, 슬로바키아
- 그룹 III (중남미·카리브해) : 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쿠바
- 그룹 IV (아시아·태평양) : 아프가니스탄, 필리핀, 태국
- 그룹 V(a) (아프리카) : 가나, 케냐, 토고, 탄자니아
- 그룹 V(b) (중동) : 바레인, 이집트, 요르단, 레바논

■ 정부간 생명윤리위원회(IGBC)

- 그룹 I (서구·북미) :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 그룹 II (동구) : 러시아
- 그룹 III (중남미·카리브해) : 콜롬비아, 도미니카공화국, 멕시코
- 그룹 IV (아시아·태평양) : 인도, 이란, 일본, 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북한

- 그룹 V(a) (아프리카) : 카메룬, 기니, 말리
- 그룹 V(b) (중동) : 알제리, 리비아, 오만, 수단

■ **체육교육 및 스포츠에 대한 정부간위원회(CIGEPS)**

- 그룹 I (서구·북미) : 터키
- 그룹 II (동구) : 아제르바이잔, 우크라이나
- 그룹 III (중남미·카리브해) : 콜롬비아, 멕시코
- 그룹 IV (아시아·태평양) : 말레이시아
- 그룹 V(a) (아프리카) : 마다가스카르
- 그룹 V(b) (중동) : 오만

■ **불법소유문화재 반환 촉진위원회(ICPRCP)**

- 그룹 I (서구·북미) :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터키
- 그룹 II (동구) : 헝가리, 루마니아
- 그룹 III (중남미·카리브해) : 아르헨티나
- 그룹 IV (아시아·태평양) : 중국, 일본
- 그룹 V(a) (아프리카) : 탄자니아, 잠비아
- 그룹 V(b) (중동) :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 **국제 커뮤니케이션 개발사업위원회(IPDC)**

- 그룹 I (서구·북미) : 오스트리아, 캐나다, 핀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 그룹 II (동구) : 체코, 라트비아, 폴란드
- 그룹 III (중남미·카리브해) :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 그룹 IV (아시아·태평양) : 중국
- 그룹 V(a) (아프리카) : 카메룬, 에티오피아, 니제르, 나이지리아, 세네갈, 탄자니아, 잠비아
- 그룹 V(b) (중동) : 오만, 아랍 에미리트 연합국

■ **모두를 위한 정보사업(IFAP) 정부간위원회**

- 그룹 I (서구·북미) : 이스라엘, 네덜란드, 스웨덴
- 그룹 II (동구) : 無

- 그룹 III (중남미·카리브해) : 아르헨티나, 그레나다, 페루
- 그룹 IV (아시아·태평양) :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 그룹 V(a) (아프리카) : 에티오피아, 가나, 잠비아
- 그룹 V(b) (중동) : 이집트

■ **Conciliation and Good Offices Commission responsible for seeking the settlement of any disputes that may arise between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against Discrimination in Education**

- M. Eibe Riedel (독일)
- M. Pierre-Michel Eisemann (프랑스)

■ **Governing Board of the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UIS)**

- Ms Olga Karmazina (우크라이나)
- Mr Luis Madera Sued (도미니카 공화국)

■ **Executive Committee of the International Campaign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Nubia Museum in Aswan and the National Museum of Egyptian Civilization in Cairo**

- 프랑스, 체코, 이집트, 수단

Thursday 12 November 2015

Results of the elections of members of Committees, Commissions and other subsidiary organs established by the General Conference

Item 12.2 Legal Committee

Elected without conducting a ballot:

- Group I: Canada, France, Sweden,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United States of America
- Group II: Uzbekistan
- Group III: Argentina, El Salvador, Nicaragua, Peru, Venezuela (Bolivarian Republic of)
- Group IV: Afghanistan, Bangladesh, Iran (Islamic Republic of), Myanmar
- Group V (a): Kenya, Lesotho
- Group V (b): Kuwait

Item 12.3 Headquarters Committee

Elected without conducting a ballot:

- Group I: Franc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 Group II: Czech Republic, Uzbekistan
- Group III: El Salvador, Peru, Venezuela (Bolivarian Republic of)
- Group IV: Indonesia, Myanmar
- Group V (a):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Lesotho, Zimbabwe
- Group V (b): Yemen

Item 12.4 Conciliation and Good Offices Commission responsible for seeking the settlement of any disputes that may arise between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against Discrimination in Education

Elected without conducting a ballot:

- M. Eibe Riedel (Germany)
- M. Pierre-Michel Eisemann (France)

Item 12.5 Council of the UNESCO International Bureau of Education (IBE)

Elected after conducting a ballot for Groups V(a).

Group V(a) (1 seat to be filled)

Numbers of votes in descending order:

Madagascar	68
Mali	57
Togo	33

Therefore the composition of the Council is as follows:

- Group I: Switzerland
- Group II: Romania
- Group III: Bolivia (Plurinational State of)
- Group IV: Thailand
- Group V (a): Madagascar
- Group V (b): Kuwait

Item 12.6 Intergovernmental Council for the Information for All Programme (IFAP)

Elected after conducting a ballot for Group V(a).

Group V(a) (3 seats to be filled)

Numbers of votes in descending order:

Ethiopia	112
Zambia	104
Ghana	100
Mali	86
Niger	63

Therefore the composition of the Council is as follows:

- Group I: Israel, Netherlands, Sweden
- Group II: NO SEATS FOR GROUP II
- Group III: Argentina, Grenada, Peru
- Group IV: Cambodia, Malaysia, Philippines, Thailand
- Group V (a): Ethiopia, Ghana, Zambia
- Group V (b): Egypt

Item 12.7 International Coordinating Council of the Programme on Man and the Biosphere (MAB)

Elected after conducting a ballot for Group V(a).

Group V(a) (4 seats to be filled)

Numbers of votes in descending order:

Madagascar	140
Mali	134
Nigeria	133
Togo	114
Niger	90

Therefore the composition of the Council is as follows:

Group I:	Austria, Turkey,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Group II:	Azerbaijan, Russian Federation, Slovakia
Group III:	Colombia, Guatemala, Honduras, Peru
Group IV:	China, Indonesia, Japan, Republic of Korea
Group V (a):	Madagascar, Mali, Nigeria, Togo
Group V (b):	Morocco

Item 12.8 Intergovernmental Council of the International Hydrological Programme (IHP)

Elected after conducting a ballot for Group II.

Group II (3 seats to be filled)

Numbers of votes in descending order:

Poland	127
Hungary	125
Russian Federation	114
Ukraine	96

Therefore the composition of the Council is as follows:

Group I:	Austria, Germany, Norway, Switzerland
Group II:	Hungary, Poland, Russian Federation
Group III:	Argentina, Cuba, Guatemala, Peru
Group IV:	Kazakhstan, Nepal, Pakistan
Group V (a):	Ghana, Kenya, Nigeria, Senegal
Group V (b):	Jordan, Morocco, Sudan, Tunisia

Item 12.9 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Promoting the Return of Cultural Property to its Countries of Origin or its Restitution in Case of Illicit Appropriation (PRCP)

Elected after conducting a ballot for Group IV.

Group IV (2 seats to be filled)

Numbers of votes in descending order:

China	109
Japan	96
Cambodia	69
Afghanistan	45

Therefore the composition of the Committee is as follows:

Group I:	Austria, Italy, Turkey
Group II:	Hungary, Romania
Group III:	Argentina
Group IV:	China, Japan
Group V (a):	United Republic of Tanzania, Zambia
Group V (b):	Egypt, Saudi Arabia

Item 12.10 Intergovernmental Council of the International Programme for the Development of Communication (IPDC)

Elected without conducting a ballot:

Group I:	Austria, Canada, Finland, Netherlands, Norway
Group II:	Czech Republic, Latvia, Poland
Group III:	Argentina, Ecuador,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Group IV:	China
Group V (a):	Cameroon, Ethiopia, Niger, Nigeria, Senegal, United Republic of Tanzania, Zambia
Group V (b):	Oman, United Arab Emirates

Item 12.11 Intergovernmental Council of the Management of Social Transformations (MOST) Programme

Elected without conducting a ballot:

Group I:	France, Turkey
Group II:	Russian Federation, Slovakia
Group III:	Argentina, Costa Rica, Cuba
Group IV:	Afghanistan, Philippines, Thailand
Group V (a):	Ghana, Kenya, Togo, United Republic of Tanzania
Group V (b):	Bahrain, Egypt, Jordan, Lebanon

Item 12.12 Intergovernmental Bioethics Committee (IGBC)

Elected without conducting a ballot:

Group I:	Austria, Belgium, Finland
Group II:	Russian Federation
Group III:	Colombia, Dominican Republic, Mexico
Group IV:	India, Iran, Japan, Malaysia, Republic of Korea,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Group V (a):	Cameroon, Guinea, Mali
Group V (b):	Algeria, Libya, Oman, Sudan

Item 12.13 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CIGEPS)

Elected after conducting a ballot for Group V(a).

Group V(a) (1 seat to be filled)

Numbers of votes in descending order:

Madagascar	92
Mali	69

Therefore the composition of the Committee is as follows:

Group I:	Turkey
Group II:	Azerbaijan, Ukraine
Group III:	Colombia, Mexico
Group IV:	Malaysia
Group V(a):	Madagascar
Group V (b):	Oman

Item 12.14 Governing Board of the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UIS)

Elected without conducting a ballot:

Ms Olga Karmazina (Ukraine)
Mr Luis Madera Sued (Dominican Republic)

Item 12.15 Executive Committee of the International Campaign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Nubia Museum in Aswan and the National Museum of Egyptian Civilization in Cairo

Elected without conducting a ballot:

France
Czech Republic
Egypt
Sudan

3 2015-19년 임기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 선거결과

일시 · 11월 18일 ~ 20일

참석자 · 세계유산보호협약 당사국(191개국) 대표단

장소 · 유네스코 본부

- 세계유산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다음의 9개국이 신규위원국으로 당선됨.
 - 앙골라, 아제르바이잔, 부르키나파소, 쿠바,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튀니지, 탄자니아, 짐바브웨
- 또한, 세계유산위원회 집행이사회(Bureau of the World Heritage Committee)의 부의장국(Vice-Chairperson)으로 탄자니아가 합류함.
- 세계유산위원국 선거에 있어 지역 간 균형을 추구하기 위해 지역 별로 배분한 후의 여분의 공석(floating seat)을 그룹 III 또는 그룹 IV에 할당하기로 결정한 WHC-14/1EXT.GA/3에 따라(UNESCO, 2014), 그룹 III과 그룹 IV에 교대로 공석을 할당하기로 결정함.
 - 2015년의 20차 총회에서는 그룹 IV에 할당되었으므로, 2017년에는 그룹 III에 할당될 예정임.

1 주요인사 면담결과

유네스코사무총장

■ 면담 개요

- 일시 : 2015년 10월 30일 15:45~16:20
- 장소 : 유네스코 사무총장실
- 면담대상 : Irina Bokova 유네스코 사무총장
- 면담자 : 민동석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 배석자 : Mr. Eric Falt 유네스코 대외협력 및 홍보분야 사무차장보, Mr. Andrei Chevelev 아태지역 담당과장, Ms. Cynthia Guttman 비서관, 김은영 주유네스코한국대표부 주재관, 전진성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국제협력조정팀장

■ 핵심 요지

- 민 사무총장은 고은 시인 시낭송회와 국가위원회 만찬의 공동 개최를 수락하고 지원해준 Bokova 사무총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지난 9월 개최된 경희대 “Peace Conference” 관련 비디오 축하메시지를 보내준 것에 대해서도 사의를 표함.
-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 유네스코의 역할 : 민 사무총장은 최근 이산가족 상봉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는 등 남북관계에 있어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언급하고 남북한 간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해 유네스코의 역할이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함.
- 민 사무총장은 최근 홍용표 통일부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남북한 관계 개선을 위한 유네스코의 기여 방안 (북한 교과서 지원사업, 남북 문화유산 공동등재 촉구 등 유네스코 사업분야에서의 교류 협력 논의를 위한 Bokova 사무총장과 민 사무총장의 방북 구상)을 제안했고 홍 장관으로부터 긍정적 지지를 받은 사실을 안내함.
- 민 사무총장은 동 기여 방안에 대해 우리 정부의 최종 승인이 있을 경우 이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Bokova 사무총장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함. 이에 Bokova 사무총장은

향후 남북한 관계를 예의주시하겠다는 말과 함께 민 사무총장이 제안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무국 관련 부서들과 상의해보겠다고 답함.

- 세계유산기금 지원 : 민 사무총장은 한위가 후원개발 사업을 시작하는데 있어 Bokova 사무총장의 지지서한이 큰 힘이 되었음을 강조하고 지난 2년여 간의 성과에 대해 설명함. 한편 이 같은 성과의 하나로 하나투어가 제공한 기금을 설명하고 이중 미화 10만 불을 3년에 걸쳐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힘. 민 사무총장은 한위의 이 같은 작은 기여가 재정위기를 맞고 있는 유네스코에 힘이 되길 바라며 보다 많은 나라 국가위원회들이 이 같은 지원 노력에 동참해주길 희망한다고 밝힘. 한편, 민 사무총장은 제2차 국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위의 후원개발 사업 경험을 다른 국가위원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발표시간을 할애해 준 사무국(Mr. Falt)에 사의를 표함.
- “Value and Impact of UNESCO activities in Korea” 발간 : 민 총장은 최근 한위가 출판한 영문 연구보고서 “Value and Impact of UNESCO activities in Korea”를 소개하고 이를 제2차 국가위원회 전체회의 때 모든 참가자에게 배포할 계획임을 밝힘. 이에 대해 Bokova 사무총장은 큰 관심을 표명하고 바로 이런 일에 보다 많은 국가위원회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함. 면담에 배석한 Falt 사무차장보 또한 동 보고서가 단순히 유네스코 활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 분석에 국한되지 않고 보다 포괄적인 시각의 분석을 담고 있다는 민 사무총장의 설명에 관심을 표하고 동 연구결과의 보다 효과적인 배포 방안에 대해 별도로 논의하자고 제안함. (면담 후 Falt 사무차장보의 요청으로 보고서 1부를 별도 전달함.)
- 2016 브릿지 지역 컨퍼런스 (Bridge Regional Conference) : 민 사무총장은 2016년 2월 17-19일 말라위 블란타이어 혹은 라롱게에서 개최될 브릿지 지역 컨퍼런스에 대해 소개하고 동 회의에 Bokova 사무총장 혹은 유네스코 직원이 참여해 줄 것으로 요청함. 이에 대해 Bokova 사무총장은 본인의 참석이 가능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의사와 함께 혹시 본인의 참석이 불가할 경우 유네스코 본부 혹은 지역사무소의 직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힘.
- 유네스코 평화예술인 : 민 사무총장은 최근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특별 홍보대사에 위촉된 한류스타 이영애 씨에 대해 소개하고 이영애 씨를 유네스코 평화예술인 후보로 추천함. 민 사무총장은 ‘대장금’ 등 이영애 씨가 출연한 작품의 국제적 인지도(전세계 91개국에 ‘대장금’이 방영된 사실과 이란에서는 동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률이 57 퍼센트를 넘기도 한 점 등을 언급), 이영애 씨의 대표적 자선 및 기부활동 사례, 개도

국 교육사업에 대한 이영애 씨 개인의 깊은 관심과 지원 의지 등을 소개하면서 유네스코 평화예술인으로 이영애 씨를 위촉하는 것에 대해 Bokova 사무총장이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함. 이에 Bokova 사무총장은 동인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함께 유네스코 평화예술인 위촉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달라고 하였고, 민 사무총장은 미리 준비해간 공식 요청서한을 바로 전달함. Bokova 사무총장은 동 요청건과 관련 자체적인 검토 후 그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약속함.

- **유네스코 키즈 프로그램** : 민 사무총장은 그 동안 유네스코 키즈(Kids) 프로그램의 진행과 관련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아왔던 Bokova 사무총장에게 사의를 표하면서 2016년도 사업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함. Bokova 사무총장은 흔쾌히 동 사업에 대한 계속적 지원을 약속하고 구체적인 유네스코 방문 시기를 문의함. 이에 민 사무총장은 현재 방문일이 2016년도 1월 19-20일로 잠정 계획되어있다고 답함.
- **제주포럼** : 민 사무총장은 2016년 5월 25-27일 제주도에서 개최될 제주포럼의 목적, 규모, 의미, 역대 참가자 명단 등을 구두 안내하고 관련 자료를 전달하면서 Bokova 총장의 관심과 참여를 촉구함.

■ **면담 개요**

- **일시** : 11월 6일
- **장소** : 유네스코 본부 Conference Cafeteria
- **면담대상** : Mr. Everton Hannam 유네스코 자메이카위원회 사무총장
- **면담자** : 민동석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 **배석** : 전진성 국제협력조정팀장

■ **핵심 요지**

- Hannam 총장은 면담을 통해 ① 자메이카 킹스턴시와 제주시 간의 교류협력 (예: 생물권보전지역 상호 홍보 등) 주선 ② 자메이카 'Blue & John Crow Mountain'의 세계유산 등재신청관련 역량강화 지원 ③ 주 자메이카 한국기업과 유네스코 자메이카위원회 간 파트너십 개발 주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지원과 협력을 요청함. Hannam 총장은 또한 ④ 기금 모금을 위한 자메이카 공연그룹의 한국 투어 실현 가능성을 문의하고 ⑤ 한위가 원할 경우 유네스코 자메이카위원회에서 한국인 대학생 인턴을 받아줄 의향이 있음을 밝힘. (한국 기업의 후원이 있을 경우 자메이카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에서의 인턴십 프로그램도 실시하고자 함.)
- 민 총장은 ① 킹스턴시와 제주시 간의 교류협력 주선을 위해서는 킹스턴시에서 구상하는 교류협력 방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제안서가 필요함을 언급하고 제안서를 보내줄 경우 제주시와 접촉을 시도해보겠다는 뜻을 전달하고, ② 세계유산 등재신청 지원 여부와 관련해서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담당부서와 협의해보겠다고 답변함. 한편, 민 총장은 카리브해지역 국가들과 협력 가능한 분야로 국가위원회역량강화지원 사업, 웹사이트개발지원사업, 직원교류사업 등을 언급하고 이밖에도 문화분야에서 협력을 모색할 수도 있다고 언급함.
- 한편, 민 총장은 Hannam 총장에게 ③ 자메이카에 진출한 한국 기업 명단을 확인해주면 주선 여부를 검토해보겠다는 답변과 함께 한위의 경험 상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금 모금이 쉽지 않으며 한국의 경우 차라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모금이 보다 효과적이었다는 점을 소개함. 민 총장은 또한 ④ 자메이카 공연단의 한국 투어안에 대해서는 물리적 거리와 이로 인한 이동 경비 문제 등 어려움이 많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⑤ 한국인 인턴의 자메이카 파견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그 가능성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함.

■ 면담 개요

- 일시 : 11월 3일 15:00
- 장소 : 유네스코 본부, VIP 라운지 4번방
- 면담대상 : Hon Dr. Mahali Phamotse
- 면담자 : 민동석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 배석 : Ms. Linda Lydia Ntoane 주독대사, Mrs Mapaseka Kolotsane 국가위 사무총장의 1명, 전진성 국제협력조정팀장
- 선물 : 멀티어댑터 4개, "Value and impact of unesco activities in Korea" 2권

■ 핵심 요지

- 민 총장은 2010년부터 지금까지 브릿지 아프리카 프로젝트를 변함없이 지원해준 레소토 정부, 특히 Mrs. Kolotsane 사무총장에 사의를 표하고 수혜지역의 자립 역량 강화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앞으로도 양 국가위원회 간 협력관계 지속을 희망함.
- 민 총장은 또한 최근 현대그린푸드의 지원을 받아 레소토 하무추 지역학습센터 내에 급식소를 설치한 사례를 상기시키면서 문해교육 외에도 영양위생 교육, 직업기술교육 등 해당지역의 필요를 고려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자 한다는 뜻을 밝힘.
- Phamotse 장관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변함없는 지원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레소토인들이 브릿지사업에 보다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립역량을 키웠으면 한다는 뜻을 밝힘. Phamotse 장관은 또한 레소토 정부차원에서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바, 동사업이 이 같은 레소토 정부의 정책방향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길 바란다고 당부함. 이에 민 총장은 지역학습센터 설립 후 현지 레소토인들에 의해 센터의 실질적인 관리와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답함.
- 민 총장은 또한 2015년 2월 17일부터 19일까지 말라위에서 Bridge Regional Conference가 개최될 예정이며 말라위 대통령도 이 행사에 참석할 예정임을 알림. 아울러 민 총장은 레소토의 참여와 지난 5년간 브릿지 사업을 통해 축적한 경험 공유를 부탁함. 이에 Phamotse 장관은 레소토측 관계자가 동 회의에 꼭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함.

■ 면담 개요

- 일시 : 11월 4일 11:00
- 장소 : 유네스코 본부, VIP 라운지 2번방
- 면담대상 : Hon. Mr. Henry Puna
- 면담자 : 민동석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 배석 : Ms Gail Townsend 유네스코 콕아일랜드 사무총장, 전진성 국제협력조정팀장
- 선물 : 한위 넥타이 1개, 멀티어댑터 1개, "Value and impact of unesco activities in Korea" 2권
- 면담 배경 : 제38차 유네스코 총회에 참석한 Mr. Puna 총리는 최초 한국대표단의 수석대표와 면담을 원했으나 우리측 수석대표의 총회 불참으로 인해 대신 한위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요청함.

■ 핵심 요지

- Puna 총리는 최근 몇 년 동안 콕아일랜드와 한국 간 교류 및 협력이 활발히 진행되어 온 점에 대해 환영을 표하고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등 한국 주요 단체들의 다양한 지원사업에 대해 사의를 표함. 민 총장은 2013년도 웹사이트개발지원사업과 2015년도 콕아일랜드 인간문화재 제도 도입 지원사업의 내용과 성과를 설명한 뒤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개도국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해온 배경에 대해 소개함.
- 민 총장은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우리나라가 오늘날의 발전을 일궈낼 수 있었던 데에는 교육의 힘이 컸다는 점과 전후 교육재건에 있어 유네스코의 지원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을 강조함. 민 총장은 현재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개도국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과거 우리나라가 국제사회로 받았던 도움을 다시 국제사회에 환원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보다 활발한 개도국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2014년부터 후원개발사업을 시작해왔다고 소개함.
- 한편 Puna 총리는 과거 한국을 방문한 경험이 있음을 언급했고 민 총장은 추후 다시 한국을 방문하게 될 경우 꼭 유네스코한국위원회를 방문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함. Puna 총리는 초대에 고맙다고 화답하고 향후에도 양 국 간의 우호적 협력관계가 다양한 분야에서 이어지길 바란다는 뜻을 밝힘. 아울러 Puna 총리는 콕아일랜드의 구전전승기록 보호와 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을 당부함.

스와질랜드 교육부 장관

■ 면담 개요

- 일시 : 11월 5일 13:15
- 장소 : 유네스코 본부, VIP 라운지 1번방
- 면담대상 : Hon. Dr. Phineas Magagula
- 면담자 : 민동석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 배석 : Ms. Njabuliso B. Gwebu 제네바 대표부대사, Ms. Hazel Zungu 국가위 사무총장, 전진성 국제협력조정팀장
- 선물 : 한위 넥타이 1개, 멀티어댑터 2개, "Value and impact of unesco activities in Korea" 2권

■ 핵심 요지

- 민 총장은 브릿지사업의 배경과 사업 개요를 Magagula 장관에게 설명하고 가능하다면 2016년부터 유네스코 스와질랜드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스와질랜드에서도 동 사업을 실시하고자 한다는 뜻을 밝힘.
- Magagula 장관은 스와질랜드 정부가 지난 2010년부터 직업기술교육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정책 마련을 시작으로 범 국가적 차원에서 직업기술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음을 소개함. 또한 Magagula 장관은 2020년까지 양질의 과학 및 수학 교사 양성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음을 부연하고 이들 분야에서 한국의 지원을 기대함. (참고로 스와질랜드의 6-12세 아동의 95%가 초등교육을 이수하는 등 초등교육분야에서는 이미 상당한 진전을 이룸.)
- 이에 민 총장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실시하고 있는 브릿지사업의 경우 국가 차원의 수요에 응할 수 있는 큰 규모는 아니라는 점을 언급하고 스와질랜드와 협력 가능한 사업의 규모와 내용에 대한 정보를 2015년 말 이전까지 공유하기로 함. 한편 민 총장은 2015년 2월 17일부터 19일까지 말라위에서 개최될 Bridge Regional Conference에 대해 소개하고 스와질랜드의 참여를 촉구함. Gwebu 대사는 회의 참여에 대한 긍정적 검토 의사 표명과 함께 올해 유엔에서 채택한 2030 Agenda의 실행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면 어떤 사업이라도 적극적으로 진행할 의사가 있음을 강조하고 민 총장에게 2015년 말 이전 스와질랜드 방문을 통해 현지 상황 파악과 협력 논의를 계속할 것을 제안함.

잠비아 고등교육부차관

■ 면담 개요

- 일시 : 11월 5일 15:10
- 장소 : 유네스코 본부, VIP 라운지 4번방
- 면담대상 : Dr. Patrick Kona Nkanza
- 면담자 : 민동석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 배석 : Mr. Solomon Mbuji 주불대사, Dr Charles Ndakala 국가위 사무총장 외 5명, 전진성 국제협력조정팀장
- 선물 : 한위 넥타이 2개, 멀티어댑터 4개, "Value and impact of unesco activities in Korea" 2권

■ 핵심 요지

- 민 총장은 2010년부터 지금까지 브릿지 아프리카 프로젝트를 변함없이 지원해준 잠비아 정부에 사의를 표하고 올해 네가네가 지역학습센터 건축을 통해 협력관계가 더욱 강화된 점과 이의 결과로 19명의 훈련생이 TEVETA 자격증을 획득한 사실을 언급함. 민 총장은 특히 네가네가 지역학습센터가 기초문해교육과 직업기술교육을 결합한 형태로 운영될 예정임을 소개하고 이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잠비아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함. 민 총장은 또한 2015년 2월 17일부터 19일까지 말라위에서 개최될 Bridge Regional Conference에 대해 소개하고 잠비아의 참여와 브릿지 사업을 통해 축적한 경험 공유를 요청함.
- 이에 Nkanza 차관은 지역회의 초대에 사의를 표하고 관련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대답함. 한편, Nkanza 차관은 최근 BEAR 프로젝트(직업기술교육) 및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의 협력사업(건축/서비스 교육) 등 한국과의 교류·협력관계가 확대·발전되고 있는 것에 대해 만족을 표하고 현재 잠비아 정부는 일반교육과 직업기술교육 간의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노력중임을 소개함. 특히 Nkanza 차관은 중등교육단계에서의 과학기술 교육 제공 필요성과 이 분야 교사훈련 강화 필요성 등을 강조함. 또한 유아교육 단계에서도 레고 활용 등 간단한 형식의 교육이라도 창의력 증진을 위한 교육과정이 개발 및 보급이 절실하다고 강조함.
- 민 총장은 ① 다목적 지역학습센터 구축 및 운영 ② 문해 및 직업기술교육분야 교사 지원 및 훈련 ③ 교재 보급 등 동 사업의 세 가지 핵심 내용을 Nkanza 차관에게 설

명하고 수혜국가·지역의 자립역량을 키우기 위해 필요에 따라 동 사업의 틀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함 (예: 레소토에서 다목적 지역학습센터를 국가 전체차원의 교육시스템 내에서 적극 활용한 사례와 말라위에서 과학 및 수학교육을 위한 교보재 제공 사례 등)

- 이에 Nkanza 차관은 브릿지 사업의 성공적 이행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브릿지 사업의 규모와 수혜 범위를 고려할 때 잠비아가 안고 있는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그 영향력도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함.
- 민 총장은 동 사업의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후원모금활동 등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함.

짐바브웨 초중등교육부 장관

■ 면담 개요

- **일시** : 11월 6일 09:30
- **장소** : 유네스코 본부, VIP 라운지 4번방
- **면담대상** : Hon. Lazarus Dokora 초중등교육부장관
- **면담자** : 민동석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 **배석** : Mr. Rudo M. Chitiga 대표부대사, Mr. Machivenyika Mapuranga 고등 및 지역교육 & 과학기술개발부 차관, Ms. M. J. Chirapa 국가위 사무총장외 3명, 전진성 국제협력조정팀장
- **선물** : 한위 넥타이 2개, 멀티어댑터 2개, "Value and impact of unesco activities in Korea" 2권

■ 핵심 요지

- 민 총장은 그동안 브릿지 아프리카 프로젝트를 지원해준 짐바브웨 정부에 사의를 표하고 동 사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함. 이에 Dokora 장관은 짐바브웨 정부가 최근 정규교육과정의 적극적 활용과 과학기술 및 수학교육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이 같은 정부차원의 교육 기조에 브릿지 사업이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 검토한 후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 협조를 요청하는 Follow-up 문서를 보내주겠다고 언급함.
- 민 총장은 ① 다목적 지역학습센터 구축 및 운영 ② 교사 지원 및 훈련 ③ 교재 보급 등 동 사업의 세 가지 핵심 내용을 Dokora 장관에게 설명하고 동사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짐바브웨 교육부의 지원을 당부함. 아울러 민 총장은 동 사업의 이행 과정에서 양국 국가위원회 간 연결고리 역할을 맡게 될 전문요원을 2016년 4월 중 유네스코 짐바브웨위원회로 파견하고자 한다는 뜻을 전하고 이의 수용 가능성 여부를 문의함. 이에 Dokora 장관은 전문요원의 파견 여부를 정하기에 앞서 양자 간 구체적인 협력 분야, 사업 방법, 진행절차, 예산 규모와 사업 기간 등 대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이에 대해서 자체적인 검토 후 연락을 취하겠다는 뜻을 밝힘.
- 끝으로 민 총장은 2015년 2월 17일부터 19일까지 말라위에서 개최될 Bridge Regional Conference에 대해 소개하고 짐바브웨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당부함.

■ **면담 개요**

- **일시** : 11월 6일 13:00
- **장소** : 유네스코 본부 근처, 이태리 식당 Fontana Rosa
- **면담대상** : Hon. Unity Dow 교육 및 기술개발부 장관
- **면담자** : 민동석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 **배석** : Mr. Samuel Outlule EU대사, Mr. Richard K. Matlhare 교육 및 기술개발부 차관, Mr. Oteng Mokowe 국가위 사무총장, Dr. Gloria Somolekae 유네스코 집행이사후보, O.T. Masesane 교육 및 기술개발부 국장, 전진성 국제협력조정팀장
- **선물** : 한위 넥타이 2개, 멀티어댑터 2개, "Value and impact of unesco activities in Korea" 3권

■ **핵심 요지**

- 민 총장은 2015년 세계교육포럼 기간 중 실시한 Dow 장관과의 첫 면담에서 브리짓 아프리카 프로젝트를 소개했던 사실을 상기시키고, 가능하다면 2016년부터 동 사업을 보츠와나에서도 실시하고자 한다는 뜻을 밝힘.
- Dow 장관은 동 사업에 대한 관심 표명과 함께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문의한 바, 민 총장은 ① 다목적 지역학습센터 구축 및 운영 ② 교사 지원 및 훈련 ③ 교재 보급 등 동 사업의 세 가지 핵심 내용을 설명하고 동사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Dow 장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함. Dow 장관은 동 사업에 관심을 표하고 현재 보츠와나 정부가 유아교육 및 직업기술교육 증진을 교육 분야 주요 목표로 삼고 있음을 언급함. 아울러 브리짓 아프리카 프로젝트를 통해 경험이 부족한 교사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훈련 제공 등 교사양성에 기여해줄 수 있는지를 문의함. 민 총장은 동 사업의 이행에 있어 보츠와나 교육정책과 현지 수요를 고려하여 사업의 수행형태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답함. Dow 장관은 보츠와나의 교육개선 노력과 브리짓 아프리카 프로젝트를 어떻게 연계시킬 수 있을 지에 대해 고민해보겠다는 뜻을 밝힘.
- 민 총장은 2015년 2월 17일부터 19일까지 말라위에서 개최될 Bridge Regional Conference에 대해 소개하고 보츠와나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당부함. 또한 민 총장은 동 회의 개최 이후 보츠와나를 방문해 동 사업관련 구체적 협력 방안 논의를

희망한다고 밝히고 방문 가능 여부를 문의함. 이에 Dow 장관은 Bridge Regional Conference에 보츠와나 관계자를 파견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민 총장의 보츠와나 방문 계획을 환영함. (참고로 2016년은 보츠와나 독립 50주년 기념해임.)

- 한편, Dow 장관은 브리짓 아프리카 프로젝트관련 양국 국가위원회 간 협력의 기한이 정해져 있는 지를 문의한바 민 총장은 양 국가위원회 간 협력에 별도의 기간 제한이 없음을 안내하고 빠른 시일 내 양국 국가위원회 간 MOU 체결을 바란다는 뜻을 밝힘.
- 끝으로 민 총장은 동 사업의 이행 과정에서 양국 국가위원회 간 연결고리 역할을 맡게 될 전문요원을 2016년 4월 중 유네스코 보츠와나위원회로 파견하고자 한다는 뜻을 전하고 이의 수용 가능성 여부를 문의함. 이에 Mokowe 사무총장은 현재 유네스코 보츠와나위원회 내에는 수용 공간이 없다고 답하고 공간 마련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함.

前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사업 담당자

■ 면담 개요

- 일시 : 11월 6일 17:30
- 장소 : 유네스코 본부
- 면담대상 : Ms. Joie Springer 前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사업 담당자
- 면담자 : 전진성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국제협력조정팀장, 김은영 주유네스코한국대표부 주재원
- 선물 : 한위 넥타이 1개

■ 핵심 요지

우리 대표부의 요청으로, 일본의 MOW사업 개혁 요구에 관한 정보 수집을 위해 Springer씨를 만나 면담을 실시한바 면담 주요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MOW 관련 규정 및 문서의 개정 절차는?
 - MOW IAC 규정(Statutes) 및 의사진행규칙(Rules of Procedure)은 회원국의 개정 제안 - 집행이사회 검토 - 총회 의결을 거쳐 개정해야 함. 그러나 MOW 사업 전반을 소개하고 있는 MOW 일반지침 (General Guidelines), MOW 등재 신청안내를 담고 있는 (MOW Register companions) 등은 별도의 의결과정 없이 전문가로 구성된 working group이 문서의 업데이트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수정/보완 가능함.
 - 일본이 투명한 사업 운영을 강조하며 개혁 필요성을 지적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됨. (a. 신청서 준비/제출과정에 있어 관련국 간의 협의/합의 의무화, b. 현 재 비공개로 이뤄지고 있는 IAC 심사회의 운영 방법 개선)
2. Moratorium 선언 가능성은?

일본측에서 극단적 안으로 추진할 수 있으나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 (Joie 씨 사건)
3. 일본의 예상 행보는?

일본은 전문가회의, 지역회의 혹은 국제회의 등 다양한 회의 개최를 통해 동 사업의 개혁 필요성과 그 구체적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며 동시에

양자 협의를 통해 지지국의 수를 늘여갈 것으로 예상됨. 또한 일본은 동 사업을 정부 간사업으로 변화시켜 정부대표가 동 사업에 적극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고자 할 것으로 예상됨. (Joie씨에 따르면 중국도 자국의 영향력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동 사업을 정부간사업으로 바뀌어나는 것에 지지하고 있는 입장이라함. 아울러 Joie씨는 중국과 일본의 지원을 받고 있는 다수의 개도국들이 동 개혁안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언급함).

4. 한국의 대응 전략마련 관련 자문내용 :

현재 MOW사업 틀 안에서 일본측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방안: 과거 MOW사업의 협약사업화를 적극 추진하던 폴란드가 동사업의 심각한 정치화 문제를 경험하면서 최근 입장을 바꾸었으며, 네델란드, 호주, 바베이도스 등은 이전부터 MOW사업의 정치화를 우려하며 협약사업화 혹은 정부간사업화를 반대해옴. 따라서 1. 이들 국가와의 연대를 바탕으로 현 MOW 사업의 정치화와 회원국의 정치적 개입에 대한 반대 논리를 공고히 하고; 2. 현 MOW사업의 부분적 장치 개선을 통해 일본의 두 가지 요구를 수용하고; 3. 새롭게 보완된 사업에 대한 실험적 운영기간 (예: 4년) 도입을 통해 사업의 급격한 변화와 이를 통한 충격의 최소화를 제안

*** 신청서 작성/제출 간 관련국들과의 협의 의무화 -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 주체는 회원국 정부는 물론 개별 기관/단체 도 가능함. 현재에도 사안에 따라 필요시 관련국 간의 협의를 장려하고 있음. 단, '관련국 협의'의 범위를 꼭 정부 간 협의로 제한하지 않고 관련국 민간/학자/기관/단체 간 협의로 넓게 정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협의를 의무화 하는 조항을 새롭게 추가할 수 있음.

*** 비공개 IAC 심사회의: 현재는 IAC 회의 시 등재 신청국에게 별도의 발언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있으나 필요시 발언 기회를 부여하도록 운영 방식을 수정할 수 있음. 다만 최종 심사평가는 현재와 같이 비공개로 운영해야함.

*** 2015년 10월 아랍에미레이트에서 개최된 제12차 IAC회의에서는 향후 신청서 작성/제출 시 특정 국가에 대한 비난과 공격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MOW Register companion을 수정하기로 이미 결정한 바 있음. 이에 더해 '관련국들 간의 협의 의무화 조항'과 'IAC회의시 신청국에 발언권 부여 조항' 등을 MOW General

guidelines과 MOW register companions 등에 추가로 삽입하는 선에서 수정/보완 가능.

이상 정리한 내용에 더해 우리 대응책 마련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

1. IAC 위원 임명은 전적으로 DG 재량인 바, 일본인의 IAC 위원 진출도 매우 가능한 시나리오로 판단됨. 이럴 경우 우리나라 전문가의 IAC 진출도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일본인의 사무국 진출 (MOW 사업분야) 또한 이미 일본 정부가 공언한 사안인 바, 이에 대해서도 역량있는 한국인의 진출 지원을 통해 맞대응 하거나, 대 MOW사업 일본의 지나친 간섭과 정치적 영향력 확대 문제에 대한 비판적 여론 형성 등도 고려해 볼 수 있음.

한국언론사 파리특파원 간담회

■ 개요

- **일시** : 10월 30일(금) 12:00~14:00
- **장소** : 파리 우정식당(8, Boulevard Delessert 75016 Paris France)
- **참석자**
 - 파리특파원 : 연합뉴스 이명조 유럽총국장, 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KBS 이후락 PD 등 3명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민동석 사무총장, 윤병순 후원개발홍보본부장, 김영은 홍보소통팀장, 서자연 홍보소통팀 선임담당관, 김현철 홍보소통팀 담당관 등 5명

■ 핵심 요지

- 민동석 사무총장은 11월 1일에 유네스코 본부에서 개최되는 '고은 시인 시낭송회 및 양방언 공연'의 취지 및 개요 등을 소개함. 또한 유네스코국가위원회 환영만찬과 세계유산기금 전달식 개최를 안내함.
- 이어 배우 이영애 씨를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특별대사로 임명했고, 관련 후원 CF가 11월 1일자로 방영될 것임을 홍보함.
- 끝으로 브릿지 사업 등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국내외 활동 현황을 설명함.

2 제2차 유네스코국가위원회 전체회의

일시 · 11월 2일 9:00~17:30

■ 요지

- 하기 5개 의제에 따라 발표 및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국가위원회와 사무국의 의견을 공유함.

■ 논의의제

11월 2일 . 오전

- 의제 1 회원국 내 유네스코의 가치 평가
- 의제 2 대중 · 기업 파트너십
- 의제 3 유니트윈/유네스코석좌 프로그램과 국가위원회

11월 2일 . 오후

- 의제 4 지역사무소-국가위원회 간 협력
- 의제 5 지속가능발전 어젠다와 국가위원회의 역할

■ 의장단 선출

- 의장 : Ms. Rita Brasil de Brito 유네스코포르투갈위원회 사무총장

■ 상세내용

개회

유네스코 대외협력공보섹터 사무차장보 개회사
Opening remarks by Mr Eric Falt (ADG/ERI)

- Eric Falt 대외협력공보섹터 사무차장보(ADG/ERI)는 국가위원회 관련 주요 현황 및 정보를 공유함.
 - 참여사업(Participation Programme)은 유네스코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온라인 신청서 제출 방식을 지속할 계획임.
 - ‘유네스코 협회 · 센터 · 단체의 유네스코 명칭 및 로고 사용에 대한 지침(<http://goo.gl/oSizMn>)’이 개정되었음. 국가위원회가 유네스코협회의 로고 관리에 대해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며, 올바른 유네스코 로고 사용에 대한 유네스코협회의 협조와 국가위원회의 지원을 요청함.
 - 제197차 집행이사회(197EX/5 Part IV)에서 C/4 및 C/5 지역별 자문회의(Regional Consultation Meeting)를 온라인회의로 진행할 것을 검토했으며, 제38차 총회에 서 이를 결의할 예정임.
 - 전날(11월 1일) 환영만찬 중 이리나 보코바 사무총장의 연설을 상기시키며 국가위원회 간 협력 강화(훈련, 경험 공유, 자원 제공 등)의 중요성을 강조함.

의제 1

회원국 내 유네스코의 가치 평가

How to assess the value of UNESCO in Member States

- Louise Filiatrault 유네스코캐나다위원회 사무총장 발표
 - 유네스코가 추구하는 질적 가치(존엄성, 평등, 평화 등)의 실현을 평가하기 위해 '일화-델파이 방법론(Anecdote-Delphi Element method)'을 채택하여,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함. 2차 조사 진행 후 최종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고, 본 연구방법론을 다른 유네스코 프로그램에도 적용하여 유네스코의 질적 가치를 측정할 예정임.
- 발표 관련 질의응답
 - 영국, 프랑스위원회는 2015년 8월에 스위스위원회 주최로 개최된 제7차 루가노 회의와 11월 4일에 열릴 후속 모임을 언급하며 다수의 국가위원회들이 관련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소개함.
 - 한국위원회(민동석 사무총장)는 유네스코가 한국에 미친 사회적·문화적·경제적 가치를 분석한 영문판 보고서의 출간을 알리며, 해당 연구는 오늘날의 유네스코의 가치뿐만 아니라 과거에 유네스코가 한국에 준 영향도 분석되어 있음을 알림.
 - 우간다, 나이지리아위원회는 유네스코의 가치를 측정하는 연구에 대해서 지난 2-3년 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만큼, ERI에서 표준화된 연구법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발언함.
 - 이에 캐나다위원회는 하나의 연구법이 모든 국가에 해당될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각 국가에서 유사한 연구를 진행하여 결과를 취합한다면 유네스코의 가치를 파악할 수 있으리라고 발언함.

의제 2

대중·기업 파트너십

Public and private partnership

- 민동석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발표
 - 한국위원회는 한국전쟁 이후 한국이 유네스코로부터 받은 지원을 국제사회에 환원하고자 브릿지 사업을 추진하고 후원개발에 착수함. 2014년에 시작한 후원개발의 결과, 오늘날 2,200 여 명의 정기후원자, 월 50,000불 이상의 정기후원을 받고 있음.
 - 후원개발을 위해서는 1) 법적 기틀 마련, 2) 홍보를 통한 기관 및 활동의 가시성 제고(유네스코뉴스, 홍보대사 등 활용), 3) 유네스코학교 등 유네스코 네트워크의 효과적 활용, 4) 사기업과의 협력 강화 등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함.
- Lutz Moeller 유네스코독일위원회 사무총장 발표
 - 독일위원회는 기업 대상 후원개발 경험을 공유하며, 기업은 유네스코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파트너이고 국가위원회는 기업의 매력적인 협력 파트너임을 강조함.
- 발표 관련 질의응답
 - 자메이카위원회는 한국위원회의 웹사이트개발지원사업을 통해 제작한 웹사이트로 국가위원회의 가시성을 증진했고, 기업과 소통하여 재원확보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갖추게 되었다고 발언함.
 - 자메이카위원회, 요르단, 우간다위원회는 한국과 독일의 경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개도국에 진출한 다국적기업,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시되지 않는 빈국 등)를 지적하며, 해당 상황에서의 후원개발 가능성 및 방법을 문의함. 이어 도미니카공화국위원회는 한국위원회의 워크숍(웹사이트개발지원사업)이 유익했다고 소개하며, 한국·독일위원회에서 기업 협력 분야에 대한 경험 공유 및 훈련을 제공해주길 희망한다고 밝힘.
 - 이에 민동석 사무총장은 국가위원회마다 법적 지위 및 시스템이 상이함을 고려해야 하지만,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위원회일지라도 후원개발을 실행할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이라고 발언함. 그 예로 한국의 유네스코학교가 수행한 모금활동을 소개함. 전날 진행된 환영만찬도 지방정부(전주시)의 후원으로 성사되었음을 언급하며, 후원개발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을 모색하도록 격려함. 이어 안정적인 재원확보에 대한 개인 대상 후원개발의 장점을 강조하며, 후원개발에 대한

명료한 목적과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발언함.

- Lutz Moeller 사무총장보는 국가별 상황에 따라 후원개발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은 자명하다고 발언하면서도, 대기업 대상 협상의 어려움에 공감함.

의제 3

유니트윈/유네스코석좌 프로그램과 국가위원회

UNITWIN/UNESCO Chairs Programme and National Commissions

- David Atchoarena 정책 · 평생학습시스템국장 (Director, Division for Policies and Lifelong Learning Systems, Education Sector) 발표
 - 유니트윈/석좌의 약 50%가 유럽 · 북미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나 지역적 분포 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유네스코 우선순위에 맞추어 석좌를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2012년 감사결과 이후 220개 석좌를 폐쇄했으며, 표준 협약서를 4년 기한으로 체결함으로써 석좌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음.
 - 유니트윈/석좌 운영 관련 국가위원회와의 협력 강화를 희망함.
- 발표 관련 질의응답
 - 프랑스, 쿠바위원회는 자국에서 석좌 연합회의를 개최하고 있음을 소개함. 이어 쿠바위원회는 석좌가 제출하는 정기보고서에 사무국이 피드백을 제공해줄 것을 요청함.
 - 네덜란드, 터키, 튀니지위원회는 석좌 운영과정 중 국가위원회 역할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함. 특히 네덜란드위원회는 석좌에 대한 국가위원회의 역할을 뒷받침하는 제도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했으며, 터키위원회는 석좌 신청 단계에서 신청기관-국가위원회-본부 간 협력 강화가 필요함을 강조함.
 - 한국위원회(민동석 사무총장)는 인력 · 재원의 부족 속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무국의 노력에 사의를 표하며, 정기보고서 제출 시 국가위원회에도 정보를 공유해줄 것을 요청함. 또한 현 석좌/유니트윈 가이드라인이 다소 두루뭉술하게 기술되어 있어 일반 대중이 이해하기에 어려운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청함.
 - 이에 Atchoarena 국장은 석좌 갱신 관련 평가 시 국가위원회의 코멘트를 참고하고 있다고 알리며, 석좌 관리에 대한 국가위원회의 역할을 상기시킴. 또한 프랑스 및 쿠바의 사례처럼 석좌 연합회의가 개최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의제 4

지역사무소-국가위원회 간 협력

Interface and cooperation between UNESCO Field Offices and National Commissions with the participation of representatives of UNESCO Field Offices

- Falt 사무차장보는 제1차 국가위원회 전체회의 중 요청에 따라 다수의 지역사무소장이 본 회의에 참가했음을 안내함.
- 국가위원회 발언
 - 20여 개 국가위원회가 지역사무소와의 관계 및 협력에 대한 높은 만족과 사의를 포함. 특히 카타르위원회는 도하사무소를 통해 신규·기존 직원 훈련이 이뤄지는 것에 대한 만족감을 포함.
 - 케냐위원회는 지역사무소-국가위원회 간 정기적 회의 개최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베트남위원회는 국가위원회-지역사무소-대표부 간 삼자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함.
- 지역사무소 발언
 - 아부자사무소장은 국가위원회의 발언 대부분이 지역사무소에 대한 칭찬으로 이뤄진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며, 국가위원회-지역사무소 간 정보 및 현황 공유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함. 국가위원회가 지역사무소의 자원 확보 기여에 대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워하는 상황도 언급함.
 - 방콕사무소 김광조 본부장은 국가위원회의 긍정적인 평가에 사의를 표하며, 아·태지역 회원국 및 국가위원회의 인적·재정적 지원에 사의를 표함.
 - 하라레사무소장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의 이행에 유네스코의 역할이 필수적인 만큼, 신탁기금·후원 등의 지원 강화를 요청함.

의제 5

지속가능발전 아젠다와 국가위원회의 역할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 role of UNESCO

- Jean-Yves le Saux 사업·예산국장(Director, Division for Programme and Budget, Bureau of Strategic Planning) 발표
 - 유엔 총회에서 9월 30일에 채택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어젠다 2030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의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중 유네스코가 수행해야 할 목표(SDG 4, 5, 6, 8, 9, 10, 11, 12, 13, 14, 15, 16, 17)를 소개하고, 유네스코와 국가위원회가 취해야 할 역할을 언급함.
- 발표 관련 질의응답
 - 독일위원회는 SDG 이행 시 목표에 대한 섹터 통합적인 접근법을 취해야 함을 강조함.
 - 한국위원회(전진성)는 SDG 이행의 책임은 기본적으로 회원국에 있음을 상기시키며, 회원국의 적극적인 SDG 이행과 국가위원회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함. 이어 유네스코의 SDG 관련 비교우위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며, 한정적인 인적·재정적 자원을 고려하여 유네스코의 SDG 이행 목표가 지나치게 원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함.
 - 이에 le Saux 국장은 한계를 인식하면서도, 과학과 문화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이 시점을 기회로 삼아 SDG를 전략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또한 유네스코가 정부 및 시민사회에 다가갈 수 있도록 국가위원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함.

■ 폐회사

- Falt 사무차장보는 금번 회의에서 (총회기간 중 개최된 전통적인 국가위원회 회의와 달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깊은 논의를 진행할 수 있어서 뜻 깊었다고 평하고, 차기 회의는 2016년에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될 것을 알리며 회의를 마무리함.

■ 관찰과 평가

- 전반적으로 회의는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나, 광범위하게 설정된 의제로 인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지는 못 함. 국가위원회 현황 공유 및 활동 소개, 단편적인 건의 및 제안 등으로 대다수의 발언이 이루어짐. 특히 지역사무소-국가위원회 협력 관련 의제에 대해서는 다수의 지역사무소장이 회의장에 참석하고 있어 문제 상황이나 도전 과제를 지적하는 발언은 자제하는 분위기였음.
- 한국위원회가 본부와 공동개최한 국가위원회 환영만찬(2015.11.1. 19:00, 유네스코 7층 레스토랑), 한국위원회의 후원개발 경험 발표, 대한민국 내 유네스코의 가치에 대한 연구사업 관련 발언 및 연구보고서 배포 등의 활동들이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가시성 증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3 청년포럼

회의명 • 9th UNESCO Youth Forum

기간 • 10월 26일(월) ~ 10월 28일(수)

장소 •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본부

■ 전체참가자

- 약 120개국 청년대표 및 일반 참가자 약 550명 (18-24세)
- 유엔 및 국제기구, 청소년 단체 등 참관인 약 100명

■ 한국대표단

- 신재윤 청소년단체 '청년기획단', '솔깃' 창립, 연세대 경영학
- 최단아 청소년단체 'Child Zero' 창립, 건국대 일어교육학
- 신미아 차세대팀장(인솔)

■ 주제

- 2015년 이후 세계의 젊은 세계시민(Young Global Citizens for a Post-2015 world)
 - Rights, freedoms, responsibilities
 - Diversity and identity
 - Learning, personal development and sustainability
-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젊은 세계시민(Young Global Citizens addressing climate change)
 - Knowledge, awareness, media
 - Local practices, biodiversity, disasters
 - Capturing the energy of youth

■ 주요내용

- 제9차 UNESCO Youth Forum 결론(Conclusions) 채택
 - 사전 온라인 토론을 통해 포럼 주제에 대한 각국의 청년 의견 수렴
 - 포럼 기간 중 주제별 소모임 토의, 전체토의를 거친 후 내용 통합

- 포럼 결론은 제38차 유네스코총회 제출 및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회의 (COP21; 2015. 11. 30 - 12. 11, 프랑스 파리)에서 발표 예정

- 청년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 세계시민교육, 과학기술과 기후 변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모바일 앱 활용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소규모 워크숍 개최
- 유네스코, 유엔 및 각종 단체들의 청년 활동 사업 전시
 - 포럼 기간 중 회의장 밖 복도에서 유엔봉사자 (United Nations Volunteers) 등 유엔 단체, 유네스코 각 분야, 포럼 후원 단체 등이 자신들의 청년 사업 전시

■ 회의일정

날 짜	시 간	주 요 내 용
10. 26.(월)	09:00 - 10:30	개회식
	10:45 - 12:15	6개 분과내 소모둠 회의 1.1 - 주제어: 희망과 기대
	12:30 - 13:30	6개 분과별 전체회의 1.2 - 주제어: 희망과 기대
	15:00 - 16:00	6개 분과내 소모둠 회의 2.1 - 주제어: 미래 생각
	16:15 - 17:15	6개 분과별 전체회의 2.2 - 주제어: 미래 생각
10. 27.(화)	09:00 - 11:00	6개 분과내 소모둠 회의 3.1 - 주제어: 행동하라
	11:00 - 13:00	6개 분과별 전체회의 3.2 - 주제어: 행동하라
	14:30 - 16:15	참가자 전체회의 3.3 - 주제어: 행동하라
	16:15 - 19:30	동반자의 시간 - 제8차 유네스코 청년포럼 선정 사업 경과 발표 등
	21:00 - 22:30	유네스코 주최, 바토 무슈 유람선 행사
10. 28.(수)		청년 역량 강화 워크숍 (주제별 소모둠회의) - 세계시민교육
	09:00 - 11:00	- 과학기술과 혁신 그리고 기후 변화 - 세계유산 보호 행동 계획 - 청년 연구자: 동감 유발 및 청년 역량 강화 등
		- 생활 기술: 지도역량 이끌어내기 - 기후 변화와 투쟁하고 평화를 증진하는 아프리카 청년
	11:00 - 13:00	- 지속가능발전목표 감시에 공헌하는 청년 - 양성 평등을 위한 청년 활성화- 대화를 위한 모바일 문화 등

15:00 - 16:00	행동하는 유네스코 (유네스코 사업 참가자들 발표)
16:15 - 18:30	폐회식

■ 핵심사항

개회식 · 10. 26.

- 사회
 - Ms. Gioel Gioachino (문화간 협력 연구자이자 청소년 활동가, 이탈리아)
 - Mr. Lawrence Ndambuki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소재 아프리카 정책실행 및 청소년 연구단체 공동설립자, 케냐) / 전문 사회자 영입
- 격려사
 - 37차 유네스코총회 의장인 Ping Hao 중국 대사
 - Irina Bokova 유네스코 사무총장
 - Ahmad Alhendawi 유엔사무총장청소년특사
- 기업홍보영상 상영 : 이번 포럼의 후원기업인 중국 게임업체 Perfect World의 기업 홍보 동영상 상영. Perfect World에서 상당한 예산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 청년 발표 : 시리아 난민 출신 청년 언론인, 인도의 성소수자 청년 인권활동가, 사우디아라비아 청년 사회적 기업가 등 다양한 배경을 지닌 청년 4명이 5분 이내로 짧게 자신이 하고 있는 일과 참가자들의 참여 권고 연설

과별 회의 및 포럼 결론 (Conclusion) 채택 · 10. 26. ~ 10. 27.

- 모둠 구성
 - 이번 포럼의 청년 참가자들은 약 550명이었음.
 - 유네스코는 원활한 토론을 위해 전체 참가자들을 포럼의 6개 주제¹⁾별 분과에 약 90명씩 배정함. 다시 이들을 8명씩 소모둠(Working group)으로 나누었음.
- 토론 절차
 - 소모둠 토론 후 정리된 의견을 6개 분과 전체회의(Sub-plenary)에서 다른 소모둠들과 공유함. 최종적으로 전체 참가자들이 모이는 전체회의(Plenary)에서 6개 분

1) ① Rights, freedoms, responsibilities ② Diversity and identity ③ Learning, personal development and sustainability ④ Knowledge, awareness media ⑤ Local practices, biodiversity, disasters ⑥ Capturing the energy of youth

과 논의 내용을 통합함.

- 참가자들은 3단계에 걸쳐 소모둠 회의, 분과별 전체회의를 실시했고, 참가자 전체 회의는 3단계 토론이 끝난 후 1회만 실시함.

• **토론 내용 및 9차 포럼 결론 채택**

- **1단계 : 기대와 희망 (Hopes and Expectations)** : 참가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자유롭게 토론

- **2단계 : 미래 생각 (Future Thinking)** : 참가자들은 소모둠별로 주최 측이 준비한 다양한 소품을 이용해, 본인들이 생각하는 미래의 모습을 조각, 그림 등으로 표현함.

- **3단계 : 행동하라 (Take Action)** : 1, 2단계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각 소모둠은 국가 등 거시적 차원에서 필요한 행동 1개와 청년들이 개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미시적 행동을 1개씩 선정함. 다시 분과전체회의에서 대표 행동 3~4개를 선정, 참가자 전체회의에 제출함.

- **참가자 전체회의 (Plenary)** : 토론 내용을 수렴하고 9차 유네스코 포럼 결론을 채택함. 찬반 토론 없이 6개 분과회의에서 정리된 내용을 접수함.* 분과별 서기 선정 : 주최 측은 포럼 약 2주일 전 이메일로 서기 지원자 모집 후 포럼 하루 전(10.25.) 서기 사전 연수 실시

참가자 역량강화 워크숍 · 10. 28.

• **참가자 역량강화 워크숍은 다양한 주제에 대해 2시간씩 2차례 실시**

- 참가자들은 본인이 원하는 주제를 선택해 워크숍에 참여함.
- 유네스코본부 관련 부서 또는 외부 전문가가 워크숍 진행함.

• **1차 워크숍 주제 및 진행단체 (09:00~11:00)**

- Youth Advocacy Toolkit for Action on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유엔교육 우선구상 (GEFI))
- Science, Technology & Innovation and Climate Change - Focus on Water and Biodiversity (유네스코 자연과학사업 부서)
- Step up for Our Heritage: Learning and Taking Action to Protect Our World Heritage (유네스코 문화사업 부서)
- Creating Youth Climate Summits (과학기술센터연합)
- Youth as Researchers: Invoking Empathy and Activating young People (아일

랜드 국립대학의 어린이, 청소년과 시민사회 참여 유네스코석좌 /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 농촌공동체, 지도력 및 청소년 개발 유네스코석좌)

• **2차 역량강화 워크숍 및 진행 단체 (11:00~13:00)**

- Life Skills: Unlock Your Leadership Potential (미국 리더십교육단체)
- African Youth Combatting Climate Change and Promoting Peace (유네스코 아디스아바바 연락사무소, 아프리카연합회의, 유네스코 아프리카사업부서 등)
- Youth Contribution in Monitor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유네스코 마하트마 간디 평화와 지속가능발전 교육 연구소, 유네스코 교육사업부서)
- Mobilising Young People for Gender Equality (유네스코 양성평등사업 부서)
- Mobile Cultures for Dialogue (유네스코 인문사회과학사업 부서)
- Building Bridges for Inclusion (영국 루모스재단)

전시 및 부대행사 · 10. 26 ~ 10. 28.

• **청소년활동 전시**

- 포럼 기간 중 유네스코 1번 회의실 앞 복도 및 휴게공간에서 유엔 및 유네스코, 포럼 후원단체 및 기업들의 청소년 활동 전시가 있었음.
- 유네스코 교육, 자연과학 등 모든 부문에서 전시 부스 운영, 홍보자료 배포 등 크고 작은 행사를 실시함.
- 특히 이번 포럼 후원기업인 중국 Perfect World는 전시 담당 인력만 별도로 약 10명이 참석하여, 대대적으로 기업을 홍보함.

• **15 Minutes of Fame**

- 주최 측은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Salle 1 복도에서 환경, 성소수자인권보호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자신의 활동에 대해 15분씩 발표할 수 있는 15 Minutes of Fame 프로그램을 마련함.
- 점심시간과 겹쳐 실제 참가자는 10~20명 정도로 극히 적었음.

• **문화다양성 1분 동영상 공모전**

- 유네스코 인문사회과학부서가 전체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문화다양성을 주제로 1분짜리 동영상 공모전 공모, 5명 선정 후 폐회식에서 시상함.

• **유네스코/후안 보우 상 시상식**

- 10. 26. 18:30~19:15. / Salle 1
- 남미와 카리브 지역 인문사회과학분야 청년 연구자에게 시상.

- 수상자: Mr. Manuel Alejandro Olivera Andrade (볼리비아)

• 음악공연 등

- 10. 26. : 피팅고(Pitingo), 스페인 플라멩고 가수. 현지인에게 인기가 많아 공연 시작 약 한 시간 전부터 출입문에 청중들이 몰렸음.
- 10. 27. : 바토 무수 탑승 (21:00~22:30). 주최 측이 유람선 1대를 빌려 포럼 청년 참가자들을 무료로 초청, 교류 기회 제공.
- 10. 28. : 유네스코 평화예술인 바이올리니스트 Eijin Nimura(일본)와 포럼 참가자 협연 / 한국 CJ문화재단 소속 로이킴, 플레이백 공연(주최 측이 9월경 CJ문화재단에 직접 요청하여 성사되었다함.)

• **점심 제공** : 주최 측이 청년 참가자 약 500여 명에게 포럼기간 중 푸드 트럭을 이용한 무료 점심 제공함. 이전 포럼에서는 없었음.

폐회식 • 10. 28.

• 제9차 유네스코포럼 결론(Conclusions) 발표

- 6개 분과별로 차례로 여성, 남성 서기 2명이 먼저 간단히 토론 결론을 소개한 후, PPT로 전체 내용을 발표함.
- 각 분과별 결론에 대해 다른 분과 참가자들이 간단히 질의 응답을 진행함. 결론 내용에 수정 또는 찬반 토론 없이, 큰 방향에 대한 질의응답만 실시함.
- 이에 따라 각 분과별 발표 내용에 대한 수정은 없었으며, 각 분과가 제출한 내용이 그대로 전체 결론으로 채택됨.

• 주요 연설자

- Ping Hao, 유네스코총회 의장
- Nada Al-Nashif, 유네스코 인문사회과학 사무총장보 (Bokova 사무총장 불참)
- Federico Mayor 전 유네스코사무총장
- Perfect World 회장. 본인의 성장과정과 기업설립 과정 소개.

• 문화다양성 1분 동영상 우수작품 시상

- 우수작품 5건 시상(한국 최단아 포함).

4 교육 2030 고위급회의 (Education 2030 High Level Meeting)

일시 • 11월 4일 10:00~18:00

장소 •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본부

■ 요지

- 2015 세계교육포럼에서 합의된 내용을 토대로 '교육 2030 실행계획'(Education 2030 Framework for Action(FFA))을 유네스코가 공식적으로 채택함.
- 70개국 이상의 각국 교육장관과 교육 분야 지도자들이 최종 채택한 FFA는 국가적, 지역적, 글로벌 차원에서 교육 2030 의제 실행을 위한 가이드가 될 것임을 표명하고, 이 과정에서 2015 세계교육포럼의 성공적인 개최와 인천선언의 채택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강조함.
- 대한민국은 대표연설(이병헌 주 유네스코대표부 대사)을 통해 FFA 채택을 환영하고, 세계교육포럼에서 채택된 인천선언이 FFA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상기하면서 향후 한국의 글로벌 교육의제 이행및 교육 지원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를 밝힘.
- 유네스코 이리나 보코바 사무총장은 이처럼 새로운 교육목표를 깊이 있게 논의하고 교육 목표 이행을 위한 세밀한 로드맵에 전 세계가 동의한 것은 처음이라고 강조함.

■ 상세내용

- FFA 운영위원회 덩커 배더러 의장은 2012년 글로벌 자문(global consultation)이 시작된 이래 2014년 공개작업단, 5개의 지역회의 및 2015년 세계교육포럼(인천선언) 등 FFA 채택 과정을 설명하고 FFA에서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와의 연계 ▲모든 회원국의 이행 참여 ▲아디스아바바 실행계획 내용 반영을 주요사항으로 언급함.
- 치안 탕(Qian Tang) 교육부문 사무차장보(ADG/ED)는 포괄적인 협의과정을 통한 컨센서스를 지향했으며, 국별 환경을 고려하여 FFA를 채택했다고 강조함. 총괄적이고 보편적인 목표로서의 FFA의 구성 내용을 소개함. 비전의 3가지 원칙으로 ▲인권으로서의 교육 ▲공공재로서의 교육 ▲양성평등을 제시하고 7개 세부목표 및 지표 전략도 소개하였는데, 이는 글로벌, 주제별, 지역별, 국가별 측정이 가능하다고 강조함. 2030년까지 포용적이고 평등한 양질의 교육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보장의 원칙이 이어질 것이며, 글로벌·지역별 교육 회의를 통해 재확인 할 예정이라고 밝힘. 이와

관련 유네스코통계연구소(UIS) 등을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GMR)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소개하면서 향후 FFA 실행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정부 책임과 정책이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이리나 보코바 사무총장은 글로벌교육우선구상 (Global Education First Initiative; GEFI) 및 줌티엔·다카·인천선언 등 일련의 과정을 소개하면서 새로운 교육목표는 인천선언에 기반하여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와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함. 특히 직업기술교육, 세계시민교육 및 평생학습의 중점 내용을 소개하고, 이와 같이 실행을 위한 세부계획을 세운 것은 전례 없는 일이며, 강력한 정치적 의지에 기반을 둔 재원조달이 필수적임을 언급함. 또한 전략이 필요하며 유네스코가 FFA 이행 책임(commitment)을 지고 있다고 강조함. 끝으로 FFA 도출에 힘을 보탠 대한민국, 노르웨이, 국제부흥개발은행(World Bank) 및 유엔기구, 시민사회에 사의를 포함.

5 세계인문학포럼 국제운영위원회

일시 • 11월 13일 14:00~17:00

장소 •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본부

요지

- 세계인문학포럼 추진위원회와 유네스코 사무국은 한국 측이 제안한 컨셉노트를 바탕으로 2016 개최 예정인 제4회 세계인문학포럼의 주제, 개최 시기, 기조강연자 초청 및 세부 일정에 대해 논의함.

상세내용

주제 선정

- 한국 측이 제안한 대주제 및 중주제, 분과세션 주제에 대해 유네스코 측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함.
 - 주제가 다소 광범위함.
 - 불평등과 세계화를 다루는 분과의 경우, 경제학자 등 사회과학자들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일부 논의 주제들은 유네스코의 이념을 성찰하여 다듬어야 함.
- 한국 측이 제안한 주제를 존중하되, 2030 유엔 의제와 연계를 위한 분과 세션을 여는 것으로 의견을 나눔. 소주제 1-3 (Information Technology and the Excesses of the Financial Sector)을 제외하고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중 하나인 환경 이슈 포함을 제안함.

기조강연자 추천

- 유네스코 측 : 우선 3-4명의 기조강연자를 추천하였으며, 11월 28일까지 이들을 포함하여 6명 정도 추천사유와 함께 추천하고자 함.
 - 피추천자 : Peters Sloterdijk (독일), Michael Sandel or Benjamin Barber (미국), Mary Beard (영국).
- 한국 측 : 유네스코 측에서 추천한 기조강연자 검토 후, 12월 초 초청자 리스트를 확

정하고 섭외하고자 함.

원탁회의 운영

- 구성 : 대륙 및 산학연 분포 등을 고려하여 6명 정도로 논의
 - 국제 철학 및 인문학 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for Philosophy and Humanistic Studies: ICPHS) 대표를 참여시켜, 2017년 벨기에에서 개최 예정인 세계인문학회의(World Humanities Conference)와 연계하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 제시
- 발표 내용 : 유네스코가 지원하는 인문학 사업, 각 학문분야 등에 대한 지적이고 도전적인 질문, 학문후속세대 양성 등 교육 문제, 연구결과를 대중과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공공의 언어 및 논쟁에서 인문학의 역할은 무엇인가 등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구성할 것을 제안함.
- 유네스코 측에서 원탁회의 참석자 추천 및 짧은 콘셉트노트를 11월 28일까지 보내기로 함.

논문 공모 및 젊은 학자 초청

- 유네스코 측은 논문 공모를 통해 개발도상국에 있는 젊은 학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가능한 재정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고 제안함.
- 홍보는 유네스코본부가 협력할 수 있으며, 선정 인원 및 방법, 역할 등에 대해서는 추후 정하기로 함.

기타

- 문학포럼 개최 예정일(16년 10월 27-29일)을 공유함.

■ 관찰과 평가

- 유네스코 세계인문학포럼이 제4회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동 포럼이 인문학분야 국제적인 논의의 장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와의 연계 등 관련 분야 글로벌 논의 동향 반영을 비롯하여, 전자 포럼과의 연계성 확보, 인문학 분야 석학 및 국제기구 대표 등의 참여 확대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6 루가노미팅 후속회의

회의명 • 루가노미팅 후속회의

일시 • 11월 4일 08:00~10:00

장소 • 유네스코 프랑크푸르트위원회 (프랑스 파리)

■ 주최

- 유네스코 스위스위원회

■ 참가국(국가위원회)

- 스위스, 스웨덴, 프랑스, 독일, 캐나다, 영국, 폴란드, 에스토니아, 아이슬란드, 한국 (이상 10개국) 및 Prof. Manfred Max Bergman (스위스 바젤대학교 인문사회과학부 교수)

■ 주요내용

- 유네스코 스위스위원회는 2015년 8월 스위스 루가노회의 개최를 통해 유럽·북미 지역 10여 개 국가위원회(한위도 초대받아 참가함)와 함께 유네스코 가치에 대한 공동연구 방안을 논의한 바 있음. 표제회의는 루가노에서의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개최된 회의로서 공동연구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국가위원회 규모를 확인하고, 연구사업의 기간 및 일정, 연구 내용 및 향후 진행 방법 등을 논의함.

■ 핵심사항

- 공동연구 참여국
 - 한국, 스위스, 스웨덴, 영국, 독일, 프랑스, 폴란드, 에스토니아 등 8개국은 참여 의사를 표명했고 캐나다, 아이슬란드 등 2개국은 추후 참여 여부를 정하겠다는 뜻을 밝힘. 사업을 초기부터 함께 시작하는 주요그룹(Core group)을 중심으로 연구의 전반적 방향 및 방법을 결정하되 추후 연구에 동참을 희망하는 회원국이 있을 경우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정함.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등 다양한 지역의 국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함).
- 연구 분야

- '유네스코의 핵심적 가치에 대한 회원국의 이해'와 '유네스코 사업의 효과'에 대한 분석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결정.

• 연구 진행 방법

- 연구기간 : 2016년 1월 - 2017년 12월 (2년)

- 연구 주제: 공동연구가 필요한 유네스코의 '가치' 혹은 '사업'은 참가국의 협의를 통해 하나를 정하기로 함. 동 사업이 성공적일 경우 향후 연구 주제 분야를 하나씩 늘리기로 함. (모듈화 고려)

- 사무국 역할 : 연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영국 및 스위스 위원회가 중심점 역할을 수행할 예정. 특히 양국 전문가 (Prof. Kiran Fernandes 영국 더럼대 경영학부장 / Prof. Manfred Max Bergman 스위스 바젤대학교 인문사회과학부 교수)가 심층인터뷰에 사용될 설문자료 초안을 준비하고 연구 참여국의 의견 수렴을 거쳐 설문자료를 완성할 예정. (2016년 3-4월 중 참여국의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

- 연구 참여국 역할: 연구에 참여하는 국가는 설문 내용을 자국어로 번역하여 주요 당사자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약 1시간)를 진행하고(국별 20-30명 규모), 그 구술기록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공유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원활 경우 연구 분석 작업에도 동참할 수 있도록 할 예정. 또한 필요시 자국의 관심 분야를 연구 항목에 추가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

- 참여국 간 의사소통: 연구 참여국 간 의사소통은 이메일 혹은 온라인 미팅 등의 방식을 적극 활용하기로 함. (2016년 2-3월 중)

■ 사업 예산

•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국별 사업 예산을 가늠할 수 없으나 국별 심층인터뷰 실시와 구술기록 번역비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 확보를 권고함.

7 고은시인 시낭송회 및 양방언 공연

일시 • 11월 1일(일) 17:00~19:00

장소 •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 Salle 1

■ 관객수

• 약 500여 명

■ 관계기관

• 주최/주관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 후원/협력 : 정선군, 한국문학번역원

■ 주요 참석자

• 에릭 팔트 유네스코 대외협력공보섹터 사무차장보 등 유네스코 사무국 인사
• 유네스코 주재 외교단(독일, 일본, 이집트, 레바논, 그리스, 불가리아, 미얀마, 이라크 대사 등)
• 전정환 정선군수 등 정선군 관련 인사 7명
• 그 외 각국 유네스코국가위원회 대표, 프랑스 문화계 인사, 교민과 파리 시민 등

■ 주요내용

• 유네스코 창립 70주년이자 대한민국 광복 70주년인 2015년을 맞이하여, 전 세계 유일한 분단지역인 한반도의 시인 고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평화친선대사, 음악가 양방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홍보대사가 전 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특별 시낭송회 및 음악 공연을 진행함.
• 동 공연이 일요일 저녁에 개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네스코 본부 에릭 팔트 대외협력공보섹터 사무차장보를 비롯한 사무국 인사, 유네스코 주재 외교단, 195개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대표단, 프랑스 문화계 인사 및 파리 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하여 고은 시인의 시낭송과 음악가 양방언의 합동 공연에 큰 호응을 보임.
• 고은 시인, 음악가 양방언 등 한국의 대표 예술인들이 유네스코에서 예술적 기량을 선보임으로써, 한국 문화예술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데 기여함. 특히 음악가

양방언의 '정선 아리랑' 피아노 연주에 장구, 태평소, 바이올린, 첼로 등 동서양 악기가 어우러진 경쾌한 리듬이 큰 호응을 얻음.

- 이번 행사의 언론 홍보를 위해 10월 30일에 파리 현지 특파원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행사 당일 연합뉴스 및 KBS(방송)의 취재가 있었음. 국내에서는 보도 자료를 사전 및 사후 배포하여 43건의 방송, 신문, 인터넷 뉴스 등에 보도됨.

■ 행사 프로그램

순서	시간	세부 프로그램
인사말	17:00-17:02	개회 (사회: 조용경 통역가)
	17:03-17:05	환영사 : 주유네스코대표부 이병현 대사
	17:06-17:08	축사 : 에릭 폴트 유네스코 대외 협력공보섹터 사무차장보
영상 상영	17:09-17:11	개회사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민동석 사무총장
	17:12-17:13	사회자 멘트
시낭송1	17:14-17:18	특별영상 상영 (A Journey towards Peace - '70 years of UNESCO and the Republic of Korea')
	17:19-17:20	사회자 멘트
음악 공연	17:21-17:45	고은 시인 시낭송
	17:46-17:47	사회자 멘트
시낭송2	17:48-18:12	음악가 양방언 공연
	18:13-18:14	사회자 멘트
피날레 합동공연	18:15-18:39	고은 시인 시낭송
	18:40-18:41	사회자 멘트(파이널)
	18:42-18:51	피날레 공연

8 유네스코국가위원회 환영만찬

일시 • 11월 1일(일) 19:00~21:00

장소 •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 7층 레스토랑

■ 참석자

- 유네스코국가위원회 대표단, 유네스코 본부·지역사무소 등 직원 (총 200여 명)

■ 주요 참석자

- 이리나 보코바 사무총장, 에릭 팔트 유네스코 대외협력공보섹터 사무차장보, 메틸트 뢰슬러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소장 등

■ 관계기관

- 주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
- 후원: 전주시 (미식분야 유네스코창의도시)

■ 주요내용

-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유네스코가 전주시의 후원을 통해 제2차 유네스코국가위원회 전체회의(2015.11.2.)를 맞이하여 참가 국가위원회 대표단을 대상으로 환영만찬을 개최함.
-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환영사, 민동석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의 만찬사에 이어, 하나투어가 향후 3년 간 미화 10만 불의 규모로 공여하기로 한 세계유산기금 약정식을 진행함.
- 비빔밥, 잡채, 산적, 김치 등의 한식을 외국인의 입맛에 맞게 선보였으며, 특히 아기자기한 뷔페식 플레이팅에 대한 반응이 뜨거웠음.

■ 행사 프로그램

순서	구분	내용
1	개회	사회: 전진성 국제협력조정팀장
2	환영사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
3	만찬사	민동석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4	세계유산 기금 약정식	기금 약정 패널 전달
5	만찬	한식 뷔페

VI. 한국 대표단 명단 및 한위 주요 활동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1 참가목적

- 유네스코 집행이사국으로서 적극적인 의사결정 참여
- 유네스코 회원국으로서 교육, 과학, 문화 분야에서의 국제협력 증진
- 유네스코 각종 사업 추진 경과, 향후 계획 등 제반 동향 파악
- 아국 관심 의제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활동 홍보

2 대표단 명단

※ 괄호 안은 회의 참가 기간

■ 수석대표

- 이병현 주유네스코한국대표부 대사(전 기간)

■ 대표

- 정영수 주유네스코대표부 참사관(전 기간)

■ 교체대표

- 민동석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10.29-11.7)

■ 자문단

- 정부부처 (6명)
 - 이상호 주유네스코대표부 2등 서기관(전 기간)
 - 조우석 주유네스코대표부 2등 서기관(전 기간)
 - 이영찬 주유네스코대표부 교육관(전 기간)
 - 김은영 주유네스코대표부 주재관(전 기간)

- 유재걸 문화재청 국제협력과 사무관(11.17-22)
- 조유진 문화재청 국제협력과 전문위원(11.17-22)
- **국가위원회 및 자문단 (12명)**
 - 박은경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부위원장/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이사장 (11.2-11.7)
 - 윤병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후원개발홍보본부장(10.28-11.4)
 - 전진성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국제협력조정팀장(10.27-11.7)
 - 서현숙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교육팀장(11.2-9)
 - 조우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과학팀장(11.7-14)
 - 김귀배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문화커뮤니케이션팀장(11.9-15)
 - 김영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홍보소통팀장(10.29-11.4)
 - 서자연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홍보소통팀 선임담당관(10.29-11.4)
 - 고영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국제협력조정팀 담당관(11.3-10)
 - 권 송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국제협력조정팀 담당관(10.29-11.5)
 - 김현철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홍보소통팀 담당관(10.29-11.4)
 - 송지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세계시민학교 담당관(10.29-11.5)
- **카테고리 2센터(2명)**
 - 엄정민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연구개발팀장(11.2-7)
 - 정경화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국제협력팀장(11.2-7)

공연' 공동개최 11월 1일(토)
 ※ 유네스코한국위원회-유네스코 본부 '국가위원회 대표단 만찬' 공동개최 11월 1일(토)

3 주요활동

■ 본회의 및 분과회의 참석

- ※ 이병현 주유네스코대표부 대사 수석대표 기초연설(National Statement) 11월 4일(수)
 - 특별회의 참석: 리더스 포럼, 청년포럼, 제2차 국가위원회 전체회의 등
 - 주요선거 입후보 지지 활동
 - 유네스코 사무국과의 업무협약
 - 유네스코 회원국 간 협력 논의
 - 본부 주요인사 및 주요국 리셉션 참가
- ※ 민동석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이리나 보코바 사무총장 면담 10월 30일(금)
- ※ 유네스코한국위원회-주유네스코대표부 '고은 시인 시 낭송회 및 피아니스트 양방언

VII. 종합 관찰, 평가 및 제안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1 종합 관찰

- 유네스코 창립 70주년에 즈음하여 개최된 이번 총회에서는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는 갈등과 폭력, 불평등, 환경위협 등을 고려할 때 유네스코의 사명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특히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채택에 즈음하여 유네스코의 역할과 기여를 강조함.
- 금차 총회는 2016-2017년도 사업 예산을 제로명목성장(Zero Nominal Growth)에 기초하여 책정함으로써 2011년도 재정위기 이후 시작된 긴축운영과 활동의 위축은 다음 회계연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다수의 회원국들은 사무국의 재정 위기 극복 노력을 치하하면서도 보다 강도 높은 조직 개혁과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요구했으나, 일부 회원국들은 지속되고 있는 재정위기가 유네스코 활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
- 회원국들은 기후변화 대응 및 COP21, 분쟁지역 문화유산의 보호, 시리아 난민 이슈,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인들의 안전, 글로벌 시민교육의 중요성, 코소보의 유네스코 가입 등을 주요 관심 주제로 다룸.
- 금차 총회 기간 중 유네스코 회원국 가입을 시도한 코소보는 찬성 92표, 반대 50표로 출석 회원국의 ⅔ 이상의 지지를 얻지 못해 가입에 실패함. 한편 카리브해 소재 영국령 섬나라인 몬트세랫은 준회원국 자격으로 유네스코에 가입함.
- 미국은 제37차 총회에 이어 이번 총회에서도 분담금 미납으로 인해 투표권을 상실했으나, 집행이사국 재선에 성공하며 영향력이 견재함을 드러냄.

2 평가

■ 의제 검토 및 총회 참가 준비

- 총회 참가 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내부 의제검토회의를 개최하여 국제협력조정팀, 교육팀, 과학팀, 문화커뮤니케이션팀이 관련 분야 의제를 분석하고 해당 내용을 공유

함. 회의 후 검토내용을 보완하여 의제검토의견 및 발언문을 준비하고 이를 대표부와 공유함.

- 한편, 주요 의제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이를 토대로 한 입장 정리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내부자체평가가 있었음.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직원들(특히 정책사업본부 직원들)의 주요 업무로서 유네스코 주요 의제에 대한 연구와 분석을 상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대표부 간의 보다 긴밀한 공조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됨.

■ 관련 기관 협력

- 금차 총회 기간 중 다소 형식적이거나 대표부 주도의 대표단 회의가 개최된 점이나 대표단 업무분장표가 마련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다만 동 회의와 업무 분장표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한위-대표부 간의 보다 긴밀한 사전 정보 공유와 사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고은 시인 시낭송회 및 양방언 공연

- 유네스코 본부 1번 방(Salle 1)에서 개최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최초의 행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특히 회원국 대표들과 프랑스 내 교민을 대상으로 유네스코 및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가시성을 증진했다는 평을 받음.
- 행사 준비 과정에서 담당부서인 홍보소통팀을 주축으로 국제협력조정팀과 대표부 김은영 주재관의 긴밀한 협력으로 차질 없이 행사를 준비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됨.
- 공연 전 연설 순서 조율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1) 이병현 주 유네스코 대한민국 대표부 대사의 환영사, 2) 에릭 팔트 유네스코 대외협력부문 사무차장보(ADG/ERI)의 축사, 3) 민동석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의 개회사 순으로 진행함.
- 유네스코 본부 내 소통문제로 이리나 보코바 사무총장이 본 공연에 참석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음.

■ 한국언론사 파리특파원 간담회

- 2013년 총회 당시 간담회에도 참여한 특파원이 유네스코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보여준 바, 총회 때마다 유네스코 및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주요 현황

을 공유하고 주요 활동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가능하다면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주 유네스코 대한민국 대표부가 공동으로 특파원 간담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면담

- 이번 총회 기간 중 한위 사무총장이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다수의 회원국 장관들과 면담을 실시하는 등 외적인 성과를 거둠. 이와 같은 고위급 면담이 보다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면담 일정 및 의제, 협력 방안 등에 대한 실무자 차원의 충분한 사전 조율과 현장에서의 효과적인 확인 및 결정 등의 수순으로 면담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유네스코의 주요 기조 및 논의사항을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우선순위, 활동방향 등에 긴밀히 반영함으로써 의제 분석 및 정책회의의 참여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사업 수행과 유기적으로 연결되길 기대함.

■ 유네스코 사무국 내 한국인 직원 간담회

- 이전의 사례를 고려하여, 총회 기간 중 유네스코 사무국 내 한국인 직원과 교류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정보 공유 및 협력 증진을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함.

3 제안

■ 전문가의 정책회의 참가 강화

- 현재 국고사업으로 진행 중인 '정책회의 참가 지원사업'의 주된 목적 중 하나가 국내 전문가 대상 국제무대 활동 기회를 부여하고 이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활동의 질적 제고를 꾀한다는 점에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위원 혹은 국내 전문가들의 유네스코 정책회의 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중장기적으로 협력이 가능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직원의 정책회의 관련 역량 강화

-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자문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직원들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함. 사무총장의 관심과 직원들의 노력은 물론 유네스코 주요 의제에 대한 연구·분석을 직원(특히 정책사업본부 직원)의 기본적 업무의 하나로 구체화 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연차가 적은 직원을 대상으로 의제분석 및 정책회의 참여 기회를 고르게 제공함으로써 역량강화를 위한 동기 부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지속적인 정책회의 참여도 훈련의 일환으로 작용하는 바, 부서 내에서 수 년 간의 기간을 두고 전략적으로 관련 인재를 양성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VIII. 참고자료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1 수석대표 기조연설문

General Policy Debate of H. E. Mr. LEE Byong-hyun
Ambassador and Permanent Delegate
Permanent Deleg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o UNESCO

Plenary Session of the 38th Session of the General Conference
At 12:50 pm, 4 October 2015, Paris

Honorable Mr. President
Madame Director General
Excellencies and Distinguished Delegates,

It is my honor and privilege to speak on behalf of the Republic of Korea during the 38th session of the General Conference when we celebrate the 70th anniversary of UNESCO. This session takes place with a towering achievement, the adoption of the 2030 Agenda, which will guid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attain sustainable development for the next 15 years.

Over the last 70 years, UNESCO has been at the heart of actions to strengthen the defences of peac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by promoting education for all on the basis of human rights and safeguarding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of humanity. UNESCO has been acting to advance scientific cooperation and innovation for the benefit of all and to lead social transformations and defend freedom of expression. UNESCO's mandate has never been so more relevant to us than today. The Republic of Korea reaffirms its full support to the mandates and fundamental principles of UNESCO and renews its pledge to further these tasks as shared responsibilities of humanity.

(Education)

The year 2015 is a milestone for global education. The World Education Forum 2015, which was held in Incheon, Republic of Korea in May, set out the direction of the global education agenda for the next 15 years. I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express my sincere appreciation to all stakeholders for their participation and contribution.

I am certain that the Incheon Declaration adopted at the Forum for the inclusive and equitable quality education and lifelong learning for all paved the way for the adoption of the mandated goals in education on the 2030 Agenda.

The Republic of Korea is determined to increase its ODA spending in education and continue its close cooperation with UNESCO to translate the Agenda into concrete actions.

In the same vein, the Republic of Korea is determined to take the lead in the "Better Life for Girls' Initiative" with a view to overcoming inequalities in education and building capacity for the most vulnerable girls in developing countries, as Madame President Park Geun-hye remarked at the GEFI high-level event during the UN Summit.

Also, the Republic of Korea is planning to launch a new project "ICT Transforming Education in Africa". Taking stock of achievements and the lessons learned through our previous projects, such as BEAR(Better Education for Africa Rise), the Republic of Korea is looking forward to engaging in future programmes for developing countries. (Natural Science / Social & Human Science)

Excellencies and distinguished delegates,

I highly appreciate Secretariat's efforts for the inclusion of water, oceans, biodiversity and science policy on the 2030 Agenda. I look forward to UNESCO's continued contributions and strong presence in these fields of competence with the expertise and experience of its international scientific programme such as IHP, MAB, IOC.

In this regard, I highly welcome the adoption of the MAB strategy 2015-2021, which reconfirms the mission of MAB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 would also like to call your attention to the 4th World Humanities Forum in the Republic of Korea next year, which will be organized jointly with UNESCO. Your

valuable support to this Forum will be much appreciated.]

(Culture)

Distinguished delegates,

It is our belief that the cultural universality and diversity unites and thrives all of us on the planet. [That is the core value of humanity that we should uphold for coexistence and prosperity.] As confirmed through the 2030 Agenda, culture is one of the major players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unlocking potentials and the values culture has, the Republic of Korea is using its utmost endeavors on the basis of the national policy goals, which are 'Happiness for the people', 'Cultural enrichment'.

In addition, my Government notes the great impact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o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us implements various activities with our expertise, in particular with the aim to strengthen the capacity to protect and preserve the world heritage of developing countries.

Also, my Government fully supports UNESCO's mandate of promoting and preserving documentary heritage and continues to extend our cooperation in the activities of the UNESCO Jikji Prize along with assistance on Memory of World registration through training workshops.

Mr. President

Distinguished Delegates,

The Republic of Korea is committed to respond to the global call for action in the new era of the 2030 Agenda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s a trustworthy partner of UNESCO throughout the journey, as it has always been.

Together with all of you in UNESCO, we will embark on a great journey toward a future with greater happiness, greater peace all over the world.

Thank you!

2 관련 기사

■ 『유네스코 뉴스 (제713호, 2015년 11월 1일)』 기사

한위, 하나투어와 함께 '세계 위험유산' 보호 나선다

1일 유네스코 본부서 기금 약정식, 국가위 최초로 세계유산기금 공여

11월 1일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 민동석)는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이리나 보코바 사무총장과 메틸트 뢰스러 세계유산센터 소장 및 전세계 유네스코국가위원회 사무총장 등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유산 보호를 위한 기금 약정식을 진행했다.

이번 세계유산기금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국가위원회로서는 세계유산분야에서 최초로 민간 후원을 통해 마련한 기금으로써, 지난 2월 국내 최대 여행 종합기업 하나투어(대표이사 최현석)가 공여한 기금을 중심으로 2012년부터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발간한 세계유산지도와 책자의 우편 수익이 포함되어 조성되었다.

총 3년간 미화 10만 달러(한화 1억 1500만 원) 규모로 조성되는 이번 기금은 최근 지진으로 파괴된 네팔의 세계유산을 비롯하여 전 세계의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 보호 활동 기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유네스코는 전 세계 1031개 세계유산 중 위험목록에 등재된 유산 48개를 비롯한 세계 각지의 위험유산 보호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국내 기업으로서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유산기금 공여에 참여하는 하나투어는 현재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공동으로 전문 가이드 교육 및 여행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개도국 교육지원을 비롯해 다방면에서 협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주재관 서신

창립 70주년 유네스코, 초심에서 길 찾기를

새천년개발목표를 잇는 '포스트 2015' 의제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채택한 유엔 총회가 지난 9월 열렸습니다. 국제기구의 대표 격인 유엔은 해마다 총회를 개최합니다. 그럼, 유네스코는 어떨까요. 2년마다 '홀수 해' 가을에 총회를 엽니다. 제38차 유네스코 총회가 11월 3일부터 파리 본부에서 시작됩니다.

총회가 열리는 해에는 마음도 몸도 바쁩니다. 총회 직전에 집행이사회도 열리기 때문입니다. 한 주 쉬고 바로 총회가 이어집니다. 지난 10월 중순에 2주간 제197차 집행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집행이사회는 매년 봄, 가을 두 번 열립니다. 집행이사회가 직접 결정하는 안건도 있고, 총회의 결정을 필요로 하는 안건들은 집행이사회의 의견을 총회에 권고하기도 합니다.

이번 집행이사회 안건 중에 '집행이사회 의사규칙 변경' 논의가 있었습니다. 유네스코 중기전략은 6년, 사업 및 예산은 2년 주기로 결정하던 것을 각각 8년과 4년으로 조정해 지난 총회에서부터 실행한 것처럼, 유네스코의 운영기구에 대한 이 논의는 향후 유네스코 운영에 큰 변화가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네스코 활동에 대한 집행이사국의 이해를 높이고, 집행이사회와 사무국 간 소통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집행이사회 회기를 늘리는 안'이 지난 봄부터 비공식적으로 논의돼 왔습니다. 그러다 이번 집행이사회에서 회기 변경 문제가 수면 위로 불거지게 된 것입니다.

논의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유네스코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것인데, 기본 취지에는 모두 동의하나 그 방법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유네스코 재정 위기 상황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여유가 주어지지 않는 듯합니다.

몇몇 국가들이 야심차게 의견을 모았던, '집행이사회 개최 빈도를 늘리자'는 제안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공개작업반을 구성해 유네스코 운영기

구의 작업방식에 대해 논의하고, 2년 뒤 39차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내년부터 집행이사회 정기회의 사이에 집행이사국 회의를 6번 열어 유네스코 활동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최근 들어 유네스코는 재정과 관련된 이슈들에 관심이 집중되고, 이 부분에 예민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수록 2차 대전의 절망 위에서 "평화의 방벽을 쌓을 곳은 사람의 마음속"이라며 세계의 지적 리더들이 함께 모여서 유네스코 활동을 시작했던 때를 떠올렸으면 합니다. 그때보다 인류사회는 발전한 것 같지만 빈곤과 분쟁은 여전히 우리 옆에 있으며 평화는 더욱 간절합니다. 또한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 등 인류의 공동과제는 점점 더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창립 70주년을 맞는 유네스코가 유엔 전문기구로서 인류에게 한 줄기 빛을 비추는 역할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함께 길을 모색하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운영기구의 효율성 향상도 추구하면서요.

한위-하나투어 '세계유산기금' 공여, 잔잔한 반향

세계유산센터 홈페이지 메인에 오르고 유산센터 소장 감사 서한도

유네스코한국위원회(한위·사무총장 민동석)가 11월 1일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기금 약정식'을 갖고 세계유산기금 10만 달러(총 3년간)를 공여한 사실이 유네스코에서 잔잔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 세계유산기금은 국가위원회로서는 최초로 세계유산 분야에서 민간 후원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하나투어'(대표이사 최현석)가 공여한 기금을 중심으로 한위가 발간한 세계유산지도와 책자의 우편 수익이 포함돼 있다. 이번 기금은 지진으로 파괴된 네팔의 세계유산 등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 보호활동 기금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 특별한 뉴스는 그 후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웹사이트(whc.unesco.org)의 메인 화면을 장식했고, 메틸드 뢰슬러 세계유산센터 소장은 최근 한위 민동석 사무총장에게 감사 서한을 보내왔다. 뢰슬러 소장은 "한국 기업들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기금 모금 프로그램을 시작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향후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협력관계가 더욱 긴밀해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2030 어젠다' 기여 방안 등 논의, 한위 '유네스코 외교'도 눈길

제38차 유네스코 총회, 국가위 전체회의 등 파리 본부서 11월 개최

제38차 유네스코 총회가 지난 11월 3일부터 18일까지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개최됐다. 유네스코 창립 70주년에 즈음하여 개최된 이번 총회에는 준회원국으로 새로 가입한 카리브해 소재 영국령 섬나라인 몬트세라트를 비롯해 195개 정회원국, 10개 준회원국, 국제기구 및 국제 비정부기구(NGO) 대표 등 3000여 명이 참가했다.

이번 총회는 2016-2017년도 유네스코 사업의 방향과 예산(미화 6억 6700만 달러)을 채택하고 유네스코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어젠다'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재정 위기 상황의 극복을 위한 효율적인 조직관리 및 조직개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총회에서 유네스코 회원국 가입을 시도한 코소보는 찬성 92표, 반대 50표로 출석 회원국의 2/3 이상의 지지를 얻지 못해 가입에 실패했다.

총회 기간 중에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민동석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활발한 유네스코 외교를 펼쳤다. 민동석 총장은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비롯해 쿡아일랜드 국무총리, 레소토 교육훈련부 장관, 스와질랜드 교육부 장관, 짐바브웨 초중등교육부 장관, 보츠와나 교육·기술개발부 장관, 잠비아 고등교육부 차관, 유네스코 자메이카위원회 사무총장 등과 면담을 갖고 유네스코 브릿지 프로그램을 비롯한 교육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총회 하루 전에 열린 제2차 유네스코국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민동석 사무총장이 국가위원회 사상 최초로 후원개발 사업을 펼치고 있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대중-기업 파트너십' 사례를 발표해 큰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냈다.

유네스코 본부 '고은 시인 시낭송회 및 음악가 양방언 공연' 후기

평화, 시 되어 선을 되어 세계를 적시던 날

“어제는 흰 구름이 다녀갔습니다. 어떤 반대도 어떤 이의(異議)도 하찮은 날이었습니
다.

오늘은 어떤 날인가요….”

고은 시인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파리 유네스코 본부 총회장을 채웠다. 현악 8중주가
조용히 그 뒤를 받쳤다. 시가 고조될수록 음악도 힘 있게 울려퍼졌고, 크로스오버 뮤
지션 양방언 씨의 피아노 연주가 더해지며 시와 음악은 하나가 되었다.

고은 시인이 유네스코 창설 70주년을 맞아 새롭게 지은 시 '그러나의 노래'는 음악가
양방언 씨가 작곡한 선율과 어우러지며 지난 11월 1일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
총회장에 모인 500여 관객들의 마음을 울렸다.

유네스코 창설 70주년과 대한민국 광복 70주년을 기념하여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2년마다 한 번 열리는 유네스코 본부 총회를 앞두고, 총회가 열리는 제1회의실(Salle
1)에서 '고은 시인 시낭송회 및 음악가 양방언 공연'을 열었다. 이날 행사의 타이틀은
'평화에 목마르다'(Thirsting for peace).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인 한국의 시인
과 음악가가 평화의 시를 낭송하고, 평화의 음악을 선보이며 우리 민족의 평화에 대
한 염원을 전 세계 유네스코 회원국 대표들을 비롯해 유네스코 본부 직원과 파리 시
민들과 나누기 위함이었다.

준비 과정도 길고, 참여하는 주체도 다양해 어려움도 많았던 만큼 실무팀은 행사를
앞두고 걱정이 적지 않았다. 현지에서 섭외한 8명의 프랑스 현악 연주자와 음악가
양방언 씨의 협연이 잘못을지, 고은 시인의 시를 영어로 낭송할 프랑스 낭송배우 2
명의 호흡은 어떨지, 특히 행사의 클라이맥스가 될 '피날레' 무대에서 고은 시인과 음
악가 양방언 씨, 시와 음악의 조화가 얼마나 잘 이뤄질지... 예측하기가 힘들었다. 게
다가 총회장 무대 한복판에는 총회에 쓸 거대한 단상을 비롯해 총회를 위한 기본적
인 세팅이 완료되어 있었고, 유네스코 본부에서는 이를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총회용 단상과 출연진을 함께 무대에 올려야 할 상황이었다.

긴장 속에 시작된 리허설. 피아노와 연주자들의 자리를 세팅하고 보니, 단상은 가려
져 작지만 아늑한 무대가 연출되었다. 천만다행이었다. 뒤이어 도착한 8명의 현악 연
주자들과 양방언 밴드의 협연도 기대 이상으로 훌륭했다. 연주 연습 중에 고은 시인
이 양방언 씨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공연장으로 들어서자 리허설 분위기는 더욱 밝
아졌다. 곧바로 진행된 고은 시인과 양방언 씨의 피날레 무대 리허설은 완벽했다. 평
소 리허설은 거의 하지 않는다는 고은 시인이었지만, 이날만큼은 몇 번이고 반복해
리허설에 임해주셨다. 참으로 고마운 일이었다.

오후 5시. 드디어 평화의 염원이 시 되어, 선을 되어 세계인과 만날 시간이 되었다.
객석의 불이 꺼지고, 민동석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과 이병현 주유네스코대
한민국대표부 대사, 그리고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본부 사무총장을 대신해 에릭
폴트 유네스코 본부 대외협력공보섹터 사무차장보가 인사말을 했다. 민동석 사무총
장은 개회사에서 “평화를 꿈꾸는 땅 '지구촌 유일의 분단국'인 대한민국의 대표 시
인과 음악가가 전한 이번 감동이 세계의 평화와 화합이라는 유네스코 이념을 실천해
나가는 데에 하나의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별영상 상영 후 등장한 고은 시인은 총회장 무대에 세팅된 전 세계 회원국의 국
기들을 한 번씩 손으로 쓰다듬으며 등장해 관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고은 시인
은 유네스코 본부에 헌정하는 시인 '유네스코에게'를 비롯해 '히말라야 이후', '그것
은...', '일인칭은 슬프다', '아리랑' 등 평화와 관련된 시 10편과 대표적 시집 『순간의
꽃』, 『두고온 시』의 짧은 시 20여 편을 한국어로 낭송했다. 시낭송 배우 2명이 고은
시인의 시를 영어로 낭송하고, 무대 위편에 불어 자막을 제공했다.

피날레 전 무대에서 고은 시인은 시 '아리랑'을 낭송한 후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로 끝나는 시의 마지막 구절에 이어 우리 고유의 구슬픈 정서가 담긴 아리랑을 독창
했다. 시와 노래의 경계가 없어지는 순간이었다. 음정도 박자도 맞지 않는 아리랑이
었지만, 관객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는 충분했다.

음악가 양방언 씨의 공연도 성공적이었다. '프론티어' '민트 아카데미' 등 대표곡과
함께 우리 고유의 정선 아리랑을 재해석한 '정선 아리랑'을 연주했다. 매 곡마다 곡에

대한 설명이 자막으로 제공되어 관객들의 이해를 도왔다. 피아노와 현악 8중주, 타악기, 전통 타악기와 태평소 대금, 그리고 여성 보컬의 조화에 500여 관객은 큰 박수를 보냈다.

행사 이틀 뒤 열린 총회에서 이리나 보코바 사무총장은 “유네스코현장은 언제나 희망의 원천”이라며 “그 희망은 이틀 전 한국의 대시인인 고은 시인이 지은 ‘유네스코에게’라는 시에 잘 나타나 있다”고 했다. 그리고 보코바 사무총장은 ‘모든 후광이여, 모든 미완성이여 여기 있어라’로 시작되는 시 ‘유네스코에게’의 일부를 직접 읽었다.

평화가 필요한 곳은 비단 한반도만은 아닐 터이다. 끔찍한 테러로, 전쟁으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는 지금, ‘평화의 방벽’을 인간의 마음속에 세워야 한다는 유네스코 현장은 여전히 우리에게 큰 의미로 다가온다.

■ 『UNESCO.int (2015년 11월 2일)』 기사

UNESCO National Commissions dinner

On the eve of the 38th session of the General Conference, representatives of more than 100 National Commissions gathered at UNESCO Headquarters to attend a welcome dinner generously hosted by the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on 1 November, as a pre-event of the 2nd Interregional Meeting of National Commissions for UNESCO.

In her address, the Director-General expressed gratitude to the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the spirit and energy that guided all its work, recalling her visit of the country in 2014 on the occasion of the 60th anniversary of the Commission — when a new partnership scheme was launched to expand UNESCO activities through fundraising. She also paid tribute to the Korean National Commission’s flagship Bridge Programmes, to develop interregional cooperation between National Commissions.

Referring to the Action Plan for Enhancing the Cooperation of the UNESCO Secretariat with National Commissions, fruit of the tripartite working group and adopted at the 37th session of the General Conference, the Director-General underlined the importance of networks among National Commissions — for training, for knowledge and experience sharing, for secondments and funding grants, and commended a range of initiatives taken by different regional or sub-regional groups for these purposes.

Highlighting the historic context of the 38th session of the General Conference to be held right after the United Nations Summit and the agreement on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right before the Paris Climate Change Conference, COP21, the Director-General urged National

Commissions and its unique network to support the Organization, the call for which at this turbulent time, has never been so high from societies across the world. Recalling the mission entrusted to UNESCO and National Commissions 70 years ago in a world devastated by war, the Director-General reiterated the Organization's determination to meet the challenge of defending, together with National Commissions, the vision of a humanity gathered in its diversity and in its commitment to fundamental values.

Mr Dong-seok MIN, Secretary General of the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welcomed the participants and thanked the Director-General for her support of the new partner scheme launched by the Republic of Korea in 2014. Funds raised by the Korean National Commission were handed over to the World Heritage Centre during a ceremony.

3 사진



▣ 개회식



▣ 고은시인 시낭송회 및 양방언 공연



■ 세계유산 기금 전달식 (좌-민동석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우-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



■ 제2차 유네스코국가위원회 전체회의



■ 유네스코국가위원회 환영만찬



■ 면담 (좌-민동석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우-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

